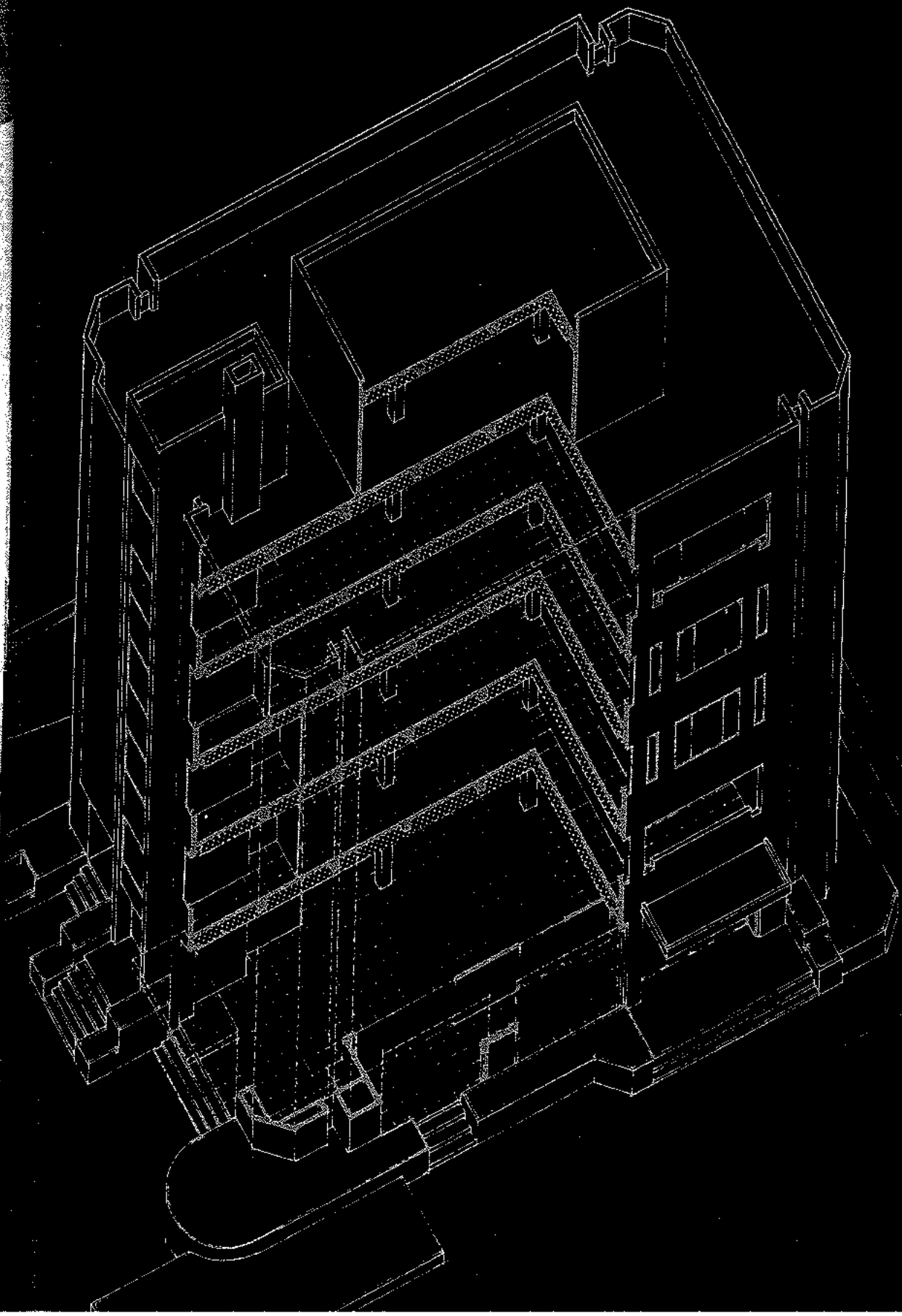
建築士協會誌 NOVEMBER 1984. NO. 188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품안내
S표시품)
S표시품)
크리트판 (K·S표
, 무색, 무늬무색)
보차도, 도로) K·
빗물받이
형 멘홀뚜껑
품제작
약점
都産業
소/ 266-9735·269-84
통/ 252-3862
장/ (1351)-2-7006, 27
기도 의정부시 호

"COMPUTER"의 생명은 "SOFT WARE"에 있읍니다.

● 좋은 SOFT WARE는
정확한 결과와 빠른 속도와 간편한
사용법에 있읍니다.

● 대한 SOFT BANK 는
최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긍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좋은 SOFT WARE 개발에
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 대한 Soft BANK의 Soft ware 는
복잡한 Computer 기능 및 구조계산의 깊은
지식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읍니다.

● 대한 Soft BANK의 Soft ware 를
사용하시는 분에게 초현대의 경제성을 보장
합니다.

◉ 철근 콘크리트조 일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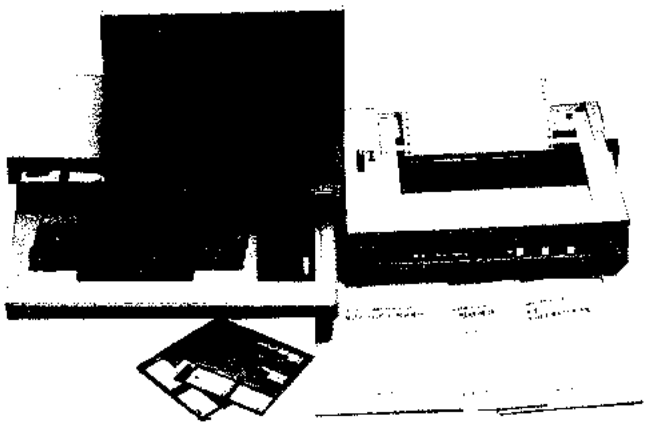
1. cover
2.. design criteria
3. framing plan graphics
4. design load
5. design of slab
6. calculation of c.mo.vo
7. calculation of column axial load
8. frame analysis
9. design of beam & girder
10. design of column
11. design of footing
12. design of stair
13. design of retaining wall
14. summary for drowing

ㄱ) slab
ㄴ) beam & girder
ㄷ) column
ㄹ) footing

◉ 철근 콘크리트 평면골조 일련계산.
보응력, 강비, 골조해석, 보단면
계산의 연산계산.

◉ 용접 H-형강
BEAM-COLUMN 단면산정
용접 H-형강의 인장, 압축재
및 단축 또는 양축휨을 동시
에 받는 휨인장, 휨 압축재의
단면 산정.

◉ 강성법에 의한 평면골조 해석(1)
절점하중이 작용하는 이형 평면
골조 및 트러스의 부재력과 처짐
계산



본체 : APPLE II PLUS
주변기기 : CONTROL DISK DRIVE
PRINTER(OPTIONAL ORDER)

TAI HAN SOFT BANK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4年11月15日 発行

1984. 11 NO. 188

目次

發行人＝吳雄錫
編　輯＝出版事業部
編集委員會
委員長 李永熙
委　員 呂鴻九
委　員 李援穆
委　員 姜健熙
委　員 裵宗明
委　員 李榮一
委　員 姜哲求
委　員 金琪碩
委　員 金　齡

發　　行＝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457－3
郵便番號－135
電　　話＝서울(02)584－0348, 4248, 1098, 9498, 9448, 6198, 0338
登錄番號－第라－1251
登錄日字－1967年 3 月23日
U. D. C. 69/72(054－2)：0612 (519)
印 刷 人－申鍾泰
(洸文精版社/ 712－2329)

建築士憲章

一. 建築士는 建築創作 藝術人으로서 創造力을 發揮하여 建築文化 發達에 이바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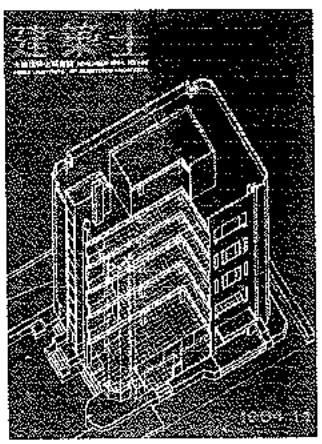
一.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建築士業務를 誠實히 遂行한다.

一. 建築士는 技術開發과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專門人으로서의 使命을 다한다.

一. 建築士는 友愛와 信義를 바탕으로 會員 相互間의 協同하여 名譽와 品位를 保持한다.

一. 建築士는 祖國과 自負心을 가지고 國家建設의 先鋒이 되어 國家와 社會에 獻身的으로 奉仕한다.

大韓建築士協會



보해빌딩 엑소노메트릭

会員設計作品

6●삼성동 K씨주택
閔庚辰 / 삼우종합건축연구소

8●전주서문교회
金正湜 / (주)정림건축

10●청담동 李씨주택
劉圭成 / 범양건축연구소

12●보해빌딩
朴英昊 / 건축환경동인 의전건축

15●역삼동 점포주택
鄭求殷 / 삼예건축

18●금오공대 학생회관 및 도서관
魏亨復 / (주)연희건축연구소

20●한 빌딩
俞元在 / 범 건축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188 호
구입년월일	19 . .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第18회 定期総会消息

4●吳雄錫 新任会長就任辞

23●金聖培 建設部長官 致辞

24●제19회 定期総会 開会辞

26●제19회 定期総会開催

35●金枝泰会長 離任辞

64●懇談 / 協会의 発展進路, 그 方向을 얘기한다

特輯 / 제 1 회 아시아건축사회의

36●제 1 회 아시아건축사회의참가 / 金知德

46●좌담 / 제 1 회 아시아건축사회의에 다녀와서

54●紀行文 / 넓은空間, 큰 線의 동남아建築과의 만남 / 吳文煥

論文 · 기타

82●太陽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研究 ④ / 尹榮在

V 84●高層建物에 대한 防火計劃의 着眼方向研究 ① / 金相旭

V 90●建築輸送設備工事標準示方書 / 宋 煥

89●정화칼럼－솔잎송편먹기 / 任仁燦

103●자료－건축허가(도서신고)면적 변동추세

104●건축계뉴스 / 정보

107●회원동정

108●신입회원

積極的인 対外活動時代로

吳雄錫 新任會長

친애하는 전국의 회원여러분

淺學한 본인이 지난 10월22일 협회 제19회 정기총회에서 영광스러운 제15대 會長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읍니다.

본인은 歷代 會長과 先輩會員들께서 그동안 이룩하여 주신 업적을 바탕으로 協會를 더욱 빛내고 발전시켜 회원여러분의 權益伸張은 물론 우리나라 建築文化發展을 위하여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볼때 우리 協會는 지난 65년 창설된 이래 19년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2천2백여 事務所開設會員으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으로서 準會員, 建築士補, 設計補助員 등과 건축계의 設計職 업무의 종사자 등을 포용하는 10万余 대가족의 막강한 대표적 기구로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들은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 年間(83년도 통계) 1십9만6천3백余棟 (연면적 44,253,356m²)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의 우수한 建物을 設計하여 건설을 선도함으로써 생활공간의 창작을 이룩하여 사회와 국가에 크게 이바지 하여 왔읍니다.

또한 우리의 숙원사업이있던 새 會館도 강당과 전시장을 갖춘 1천4백여평의 웅장한 모습으로 명년초에 준공을 보게 되었읍니다.

한편 우리들은 많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보다 발전적인 建築關聯 制度의 개선과 회원 스스로의 权益伸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노력의 정도와 공적에 비하여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代價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적극노력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우리들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앞으로 임기중 우리 본연의 업무인 設計와 監理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신장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며 잠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監理點檢業務 등 각지방의 시행방법 등의 差等을 개선하여 더욱 철저한 노력을 함으로써 하루속히 불법건축물발생이 근절되고 사회에 준법정신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또한 협회의 활동을 總力化하여 法과 制度의 미흡한 점을 自律化方向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對外弘報에 임하고 國際交流를 통한 기술의 향상 등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협회의 지역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聯合會制度에 대한 研究委員會를 발족하여 그 실현을 위해 적극노력할 것이며 우선은 잠정적인 절충안으로 地方支部의 지역사업을 위한 地方予算制度 등을 統合予算制度와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福祉會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지방별 운영형태를 개선하여 회원의 복리향상과 상호친목을 보다 알차게 해 나가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우리 協會의 体制를 整備強化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며 협회의 질서있는 指揮体系를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완공될 우리 회관의 竣工式과 20周年 自祝紀念行事等을 성대하게 거행하여 우리들의 사회적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것이며 강당 및 전시장의 활용으로 업무활동을 활성화하고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을 이룩하여 앞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회의 사무간소화와 인력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図書室 및 情報資料室 등을 운영하여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法에 의한 補修教育 등을 會館을 이용하여 自律実施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權益은 우리들 스스로가 보호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읍니다.

극히 적은 일부회원들의 非違로 우리들의 명예를 손상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自律淨化活動을 끈기있게 전개하여 건전한 건축계풍토를 조성하고 造形創作藝術人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직능인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우애와 신의로 협동단결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建築士像을 정립하고 나가서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위한 建築文化暢達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여러회원들께서 그동안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일층 지도편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하시는 일이 大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취임사에 대합니다.

會員作品

삼성동K씨 주택
閔庚辰
삼우종합건축연구소

전주 서문교회
金正湜
(주)정림건축

청담동 李씨 주택
劉圭成
범양건축연구소

보해빌딩
朴英昊
건축환경동인의전건축

역삼동 점포주택
鄭求殷
삼예건축

금오공대학생회관 및 도서관
魏亨復
(주)연희건축연구소

한 빌딩
俞元在
범 건축

삼성동 K씨 주택
SAM SUNG DONG K'S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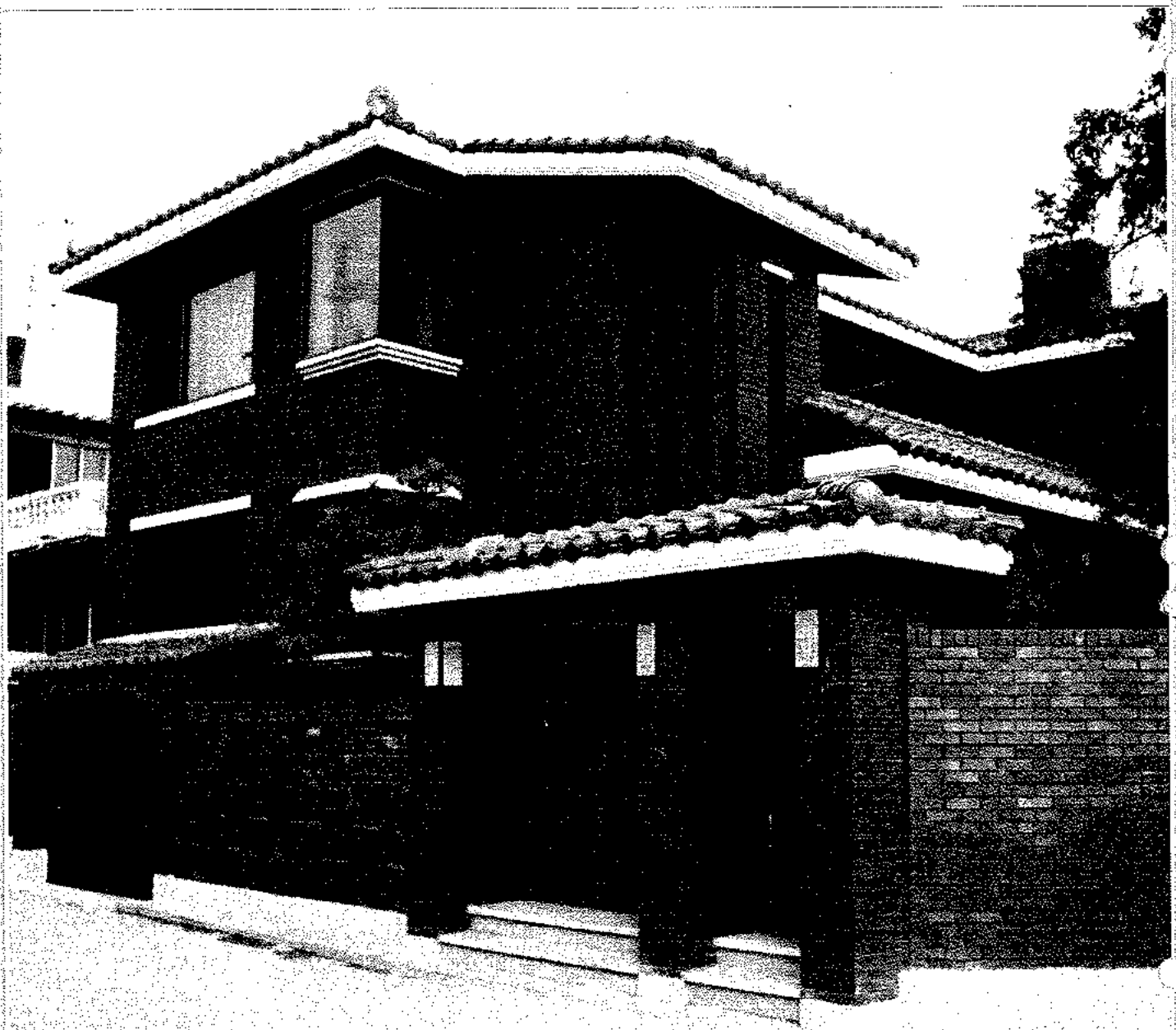
閔 庚 辰 / 삼우종합건축연구소(서울)
Sam Wo Architects & Engineers Assciation

●소재지 / 서울강남구삼성동 ●대지면적 / 295.0㎡ ●건축면적 / 133.93㎡ ●연면적 / 307.5㎡ ●구조 /조적조 ● 외장재료 / 붉은벽돌, 스페니쉬오지 기와 ●용도 /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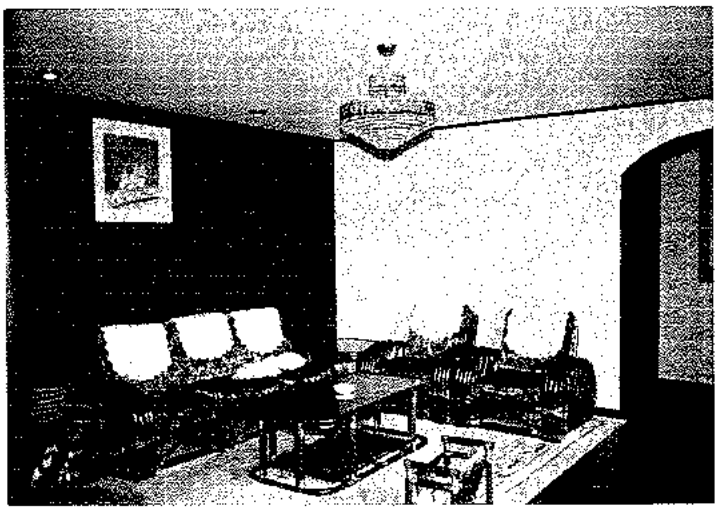
〔설계소묘〕

양지바르고 평탄한 위치에 평범한 대지가 주어졌다. 이 평범하고 얕으막한 대지를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면이 남향을 향한 동서로 조금은 긴 대지조건과 주위의 경관과의조화,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으로 받아 들여야 했다. 평면 계획에 있어서 주인부부와 자녀들의 방을 층별로 분리시켜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으로 유지토록 공간구성을 계획 하였고 좁은 정원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성토와 전면 담장의 높이와 외관에 유의 하였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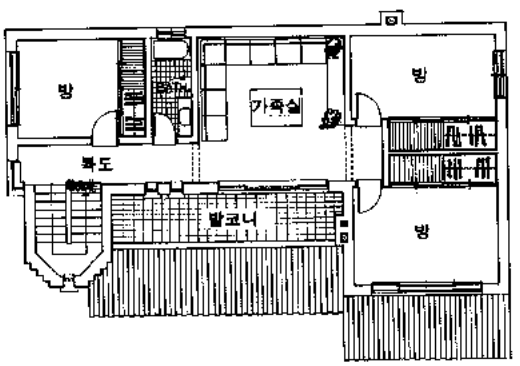
계단실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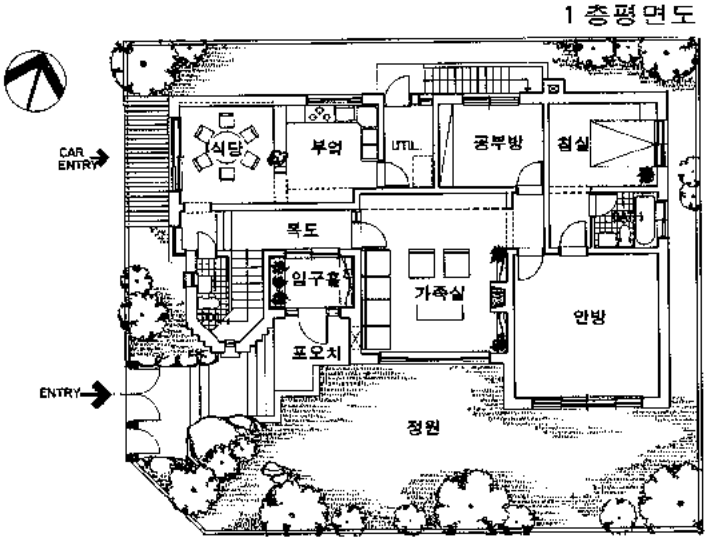
가족실

현관진입구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전주 서문교회
JEONJU SEOMOON CHURCH

金 正 凞 / (주)정림건축 (서울)
●소재지 / 전북전주시다가동 ●대지면적 / 3,001㎡ ●건축면적 / 1,057㎡ ●연면적 / 2,820㎡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주요마감재 / 붉은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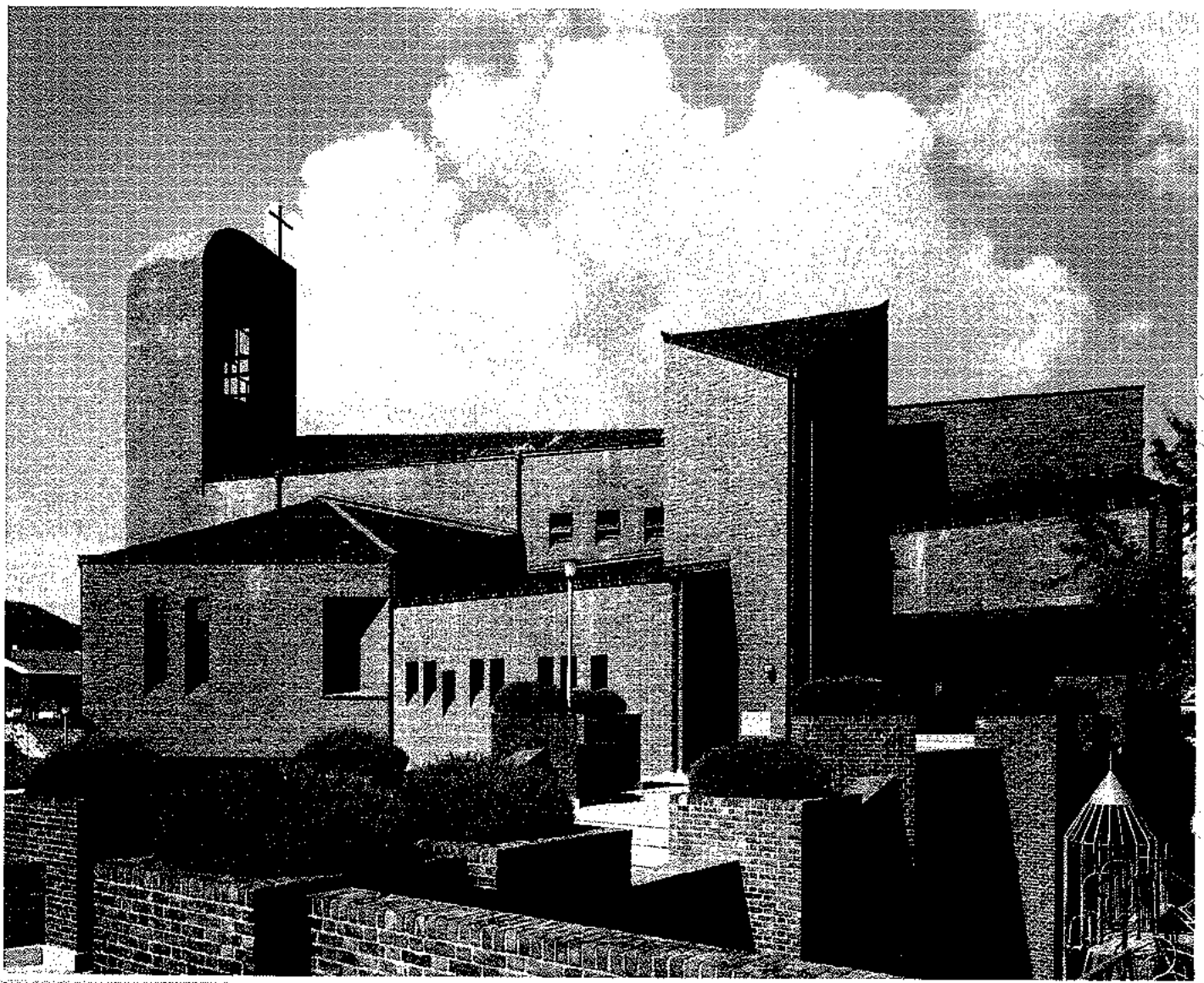
〔설계소 〔설계소요〕

전주시가 갖는 전통적이고 정정한 가로 분위기에 친화감을 갖기 위하여 과장의 위엄보다는 소박함과 품위를 갖도록 기본 Image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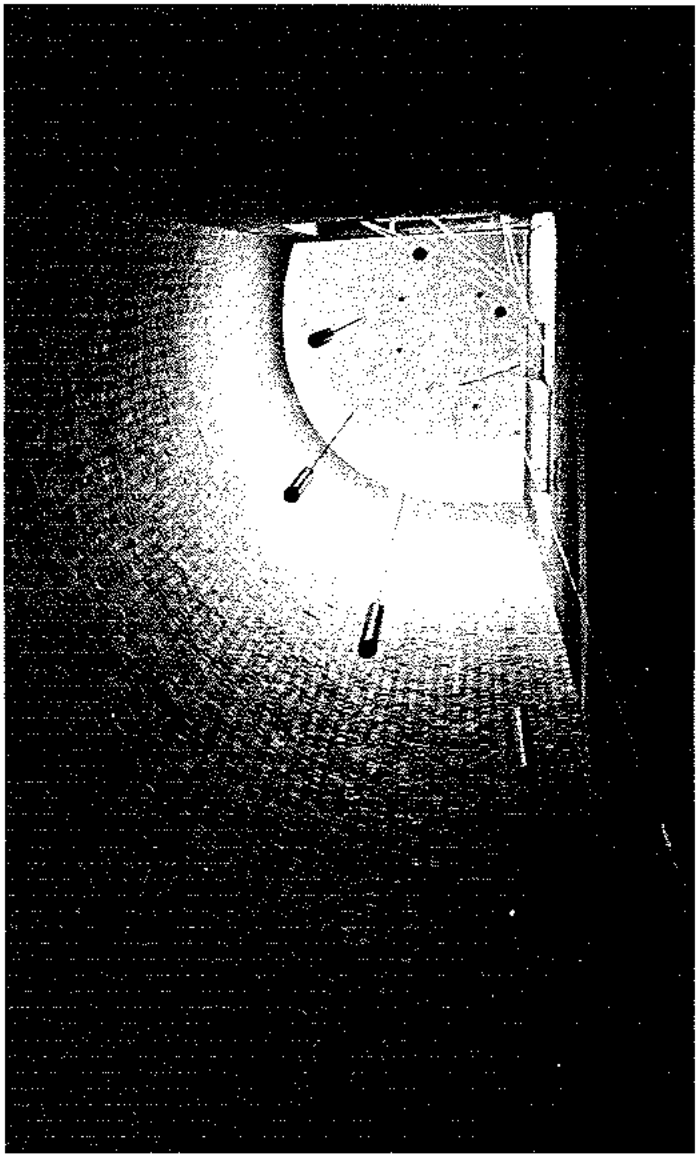
앞으로 다가공원을 접하고 노면보다 2m Down되어 있는 대지의 특성을 살려 도로에서 Deck를 통해 직접 전정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면에 교회의 친교 활동을 위한 Sunken 광장을 마련하였다.

외관에서는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되 형태를 위한 형태가 아닌 교회에서의 신앙과 예배에 충실한 형태를 추구하였다. 교회의 Volume은 주위에 대하여 四方性을 가지며 교회 건물로서의 Identity를 갖도록 하였는데, 벽돌이 모여 작은 Mass를 이루고 Mass가 연결되어 건축적 조형성이 표현된 형태는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다.

내부공간에서, 안정되고 차분하되 전혀 외부와는 별도의 세계를 만들어 자연히 신앙심이 우러나오게 하며 側窓과 강단 상부의 종탑에서 쏟아지는 빛에 의해 환희의 세계로 引入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교회 기능에 충실하면서 내부에 도입되는 광선 배치를 동력화하여, 상부 콘크리트 노출보와 함께, 제단으로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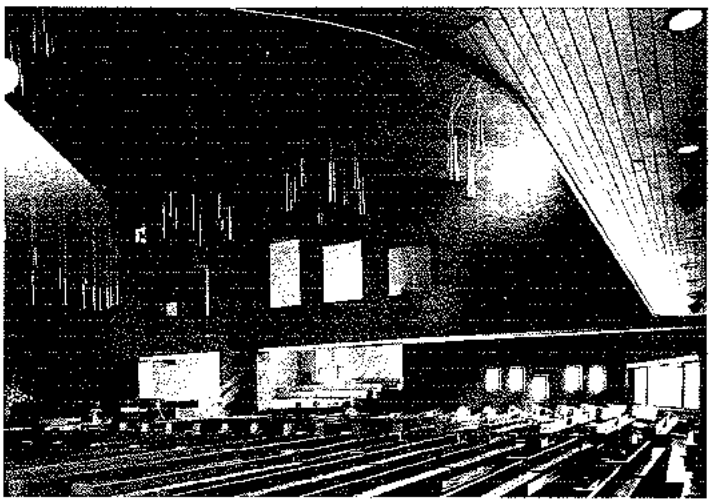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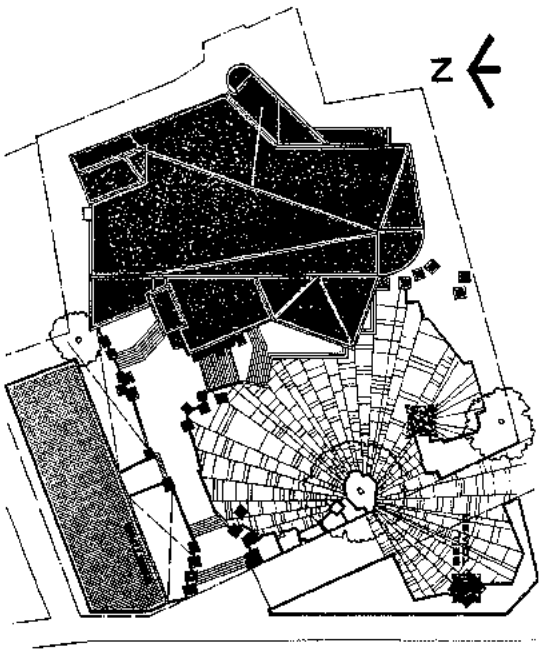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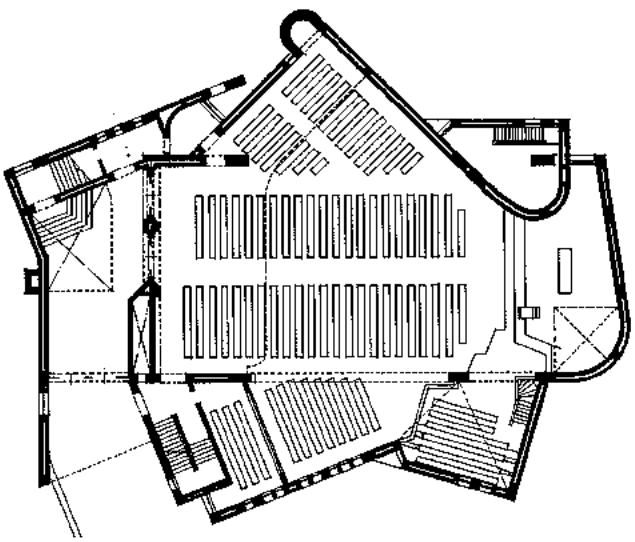
십자가탑 내부

집회질





배치도



2층평면도

청담동 李씨 주택

CHUNGDAM-DONG LEE'S RESIDENCE

劉 圭 成
• 범양건축연구소
BUM YANG ARCHITECTS & ENGINEERS

•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청담동
• 대 지 면 적 : 527㎡
• 건 축 면 적 : 185.7㎡
• 연 면 적 : 324.4㎡
• 주요외장재 : 인도벽돌치장쌓기. S형 오지기와 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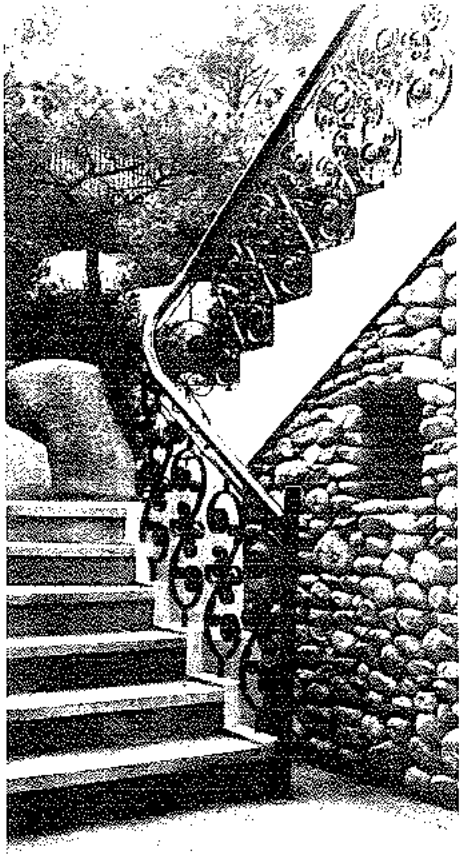
〔설계소묘〕

전체적으로 전망이 좋은 대지의 장점을 살려, 개방적이면서 아울러 상호 독립되어질 수 있는 실의 기능을 원하는 건축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개의 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도 각자의 출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집의 특징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집의 실체는 내부공간에 있으며, 형태와 기능이 서로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외관에 있어서 과도한 장식성은 가능한 배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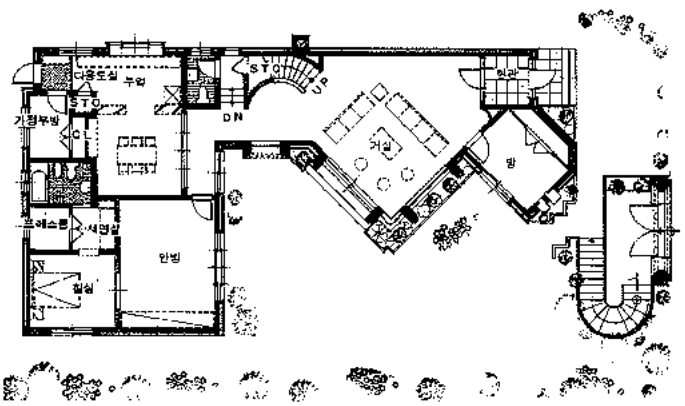
넓지 않은 대지에 거실을 돌출시킨 것은, 실내에 정원을 한껏들여 놓고 싶은 욕심의 한 표출이라고나 할까. 외벽은 인도벽돌을 사용하여 산뜻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차고는 밑에 배치되었다.

외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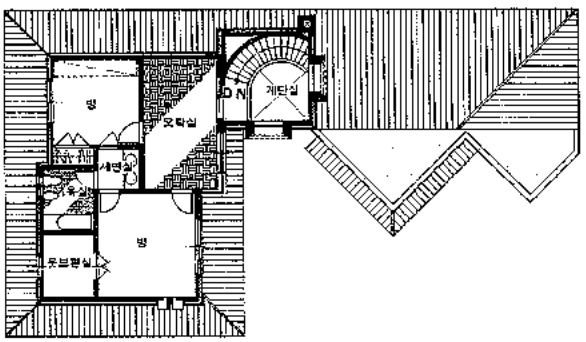


외경 (2)

외경 (3)



1층평면도 및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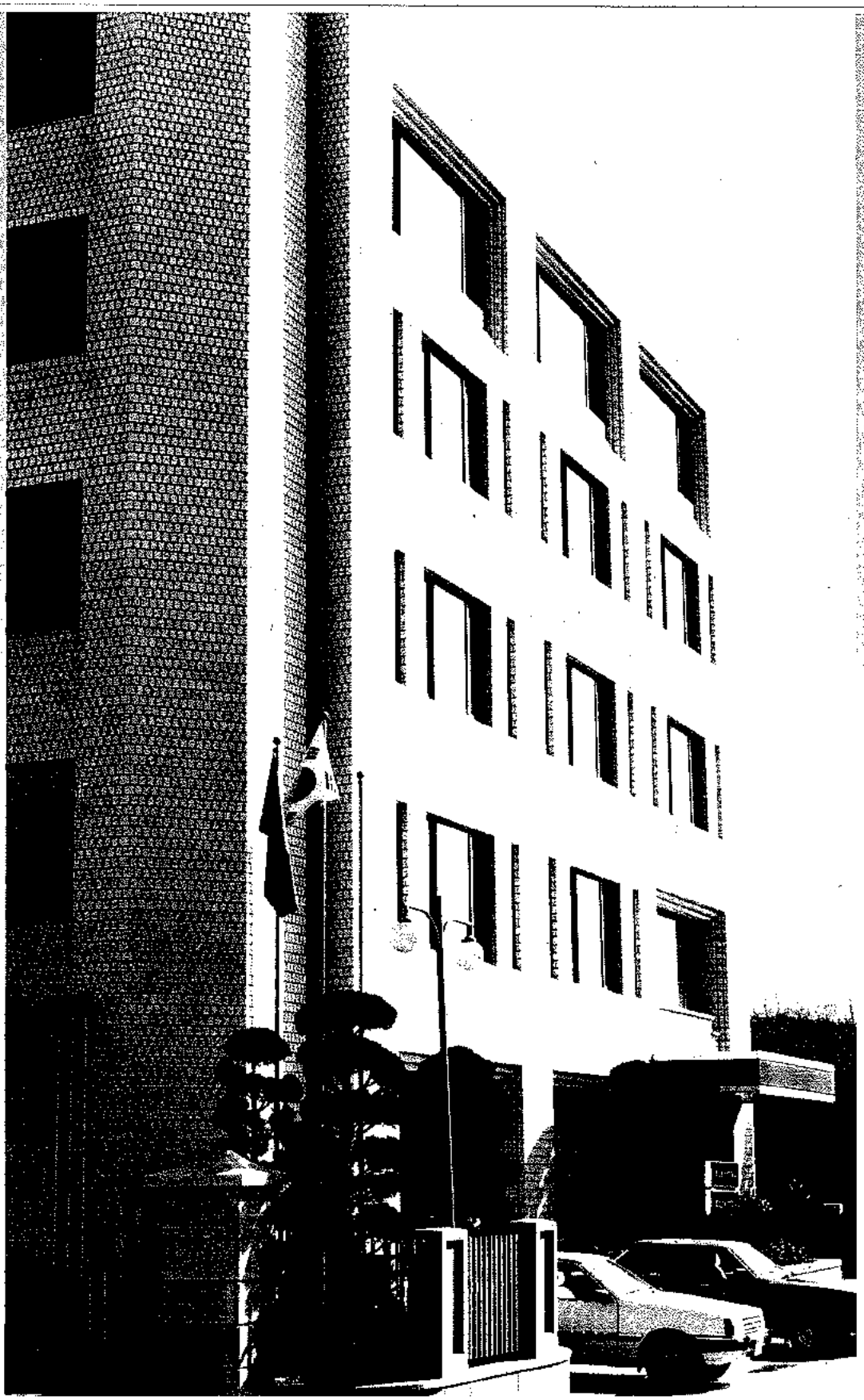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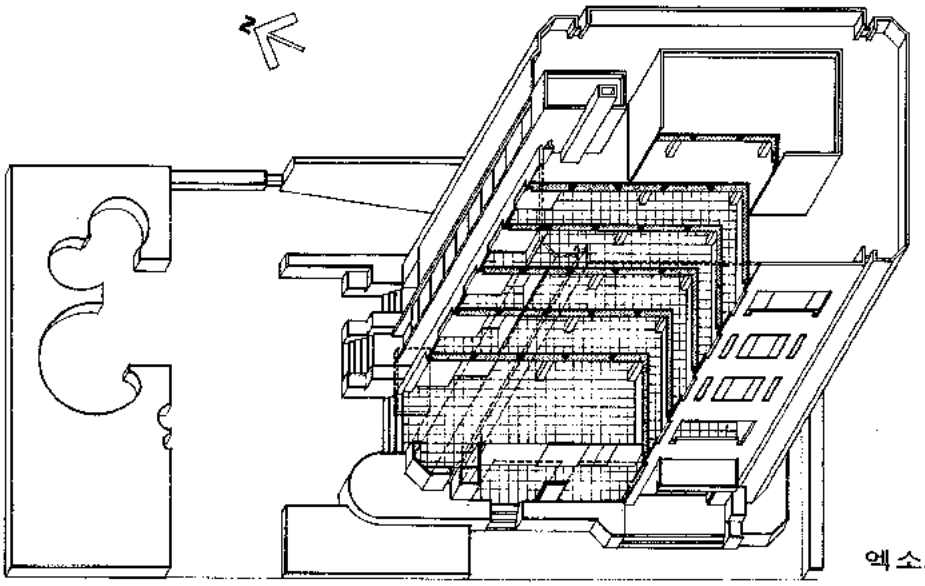
2층평면도

보해빌딩
BOHAE BUILDING

朴 英 昊 / 건축환경동인 의전건축 ●소재지 / 서울강남구서초동●대지면적 / 1,475㎡ ●건축면적 / 420.7㎡ ●연면적 / 2510㎡ ●층수 / 지하 1 층 · 지상 5층●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외부마감 / 외장자기질타일.

前面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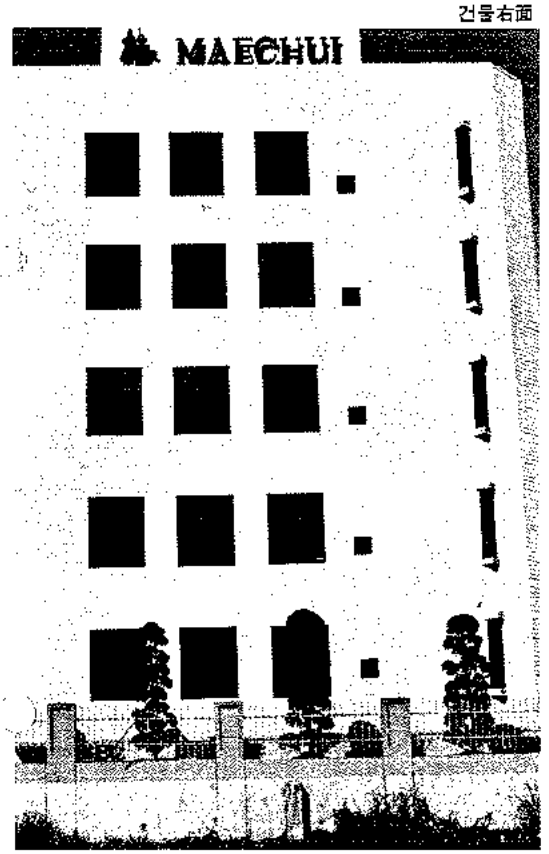
〔설계소묘〕

우리들은 상이한 두 세계의 존재를 알고 있다. 하나는 이론과 행동의 문제에 있어서 人間 理性이 국궁의 권위임을 주장한다. 반면 理性과 悟性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논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하는 다른 하나의 견해를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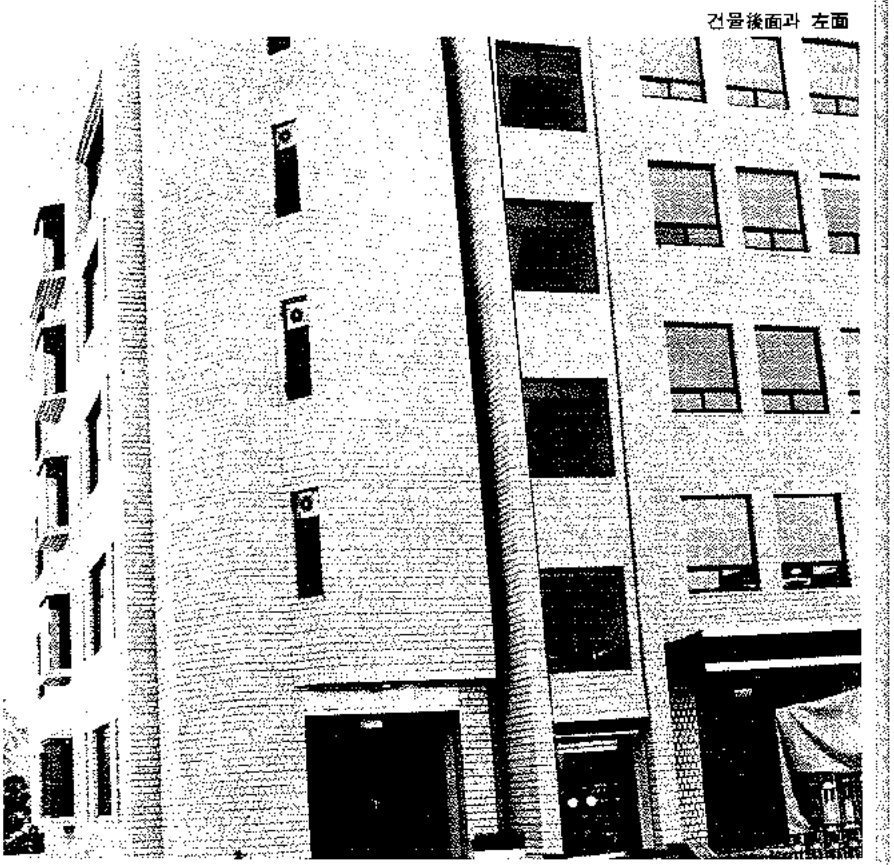
디자이너로서의 建築家는 이 相反된 世界로부터 각기 다른 충동을 받는다. 전자로 부터는 모든 부분이 특정 의미를 지니도록 합리적인 설계에로의 권유를 받는다. 배치계획으로 부터 건물 규모, 動線, 기능에 이르기 까지 주어진 규범에 의하여 통제 받는다.

나는 오랜 전부터 상이한 세계의 의미를 대조시키는 일련의 작업에 기대를 걸어 왔다. 그것은 어느 한편을 옹호함으로써 다른 한편을 배제하려는 편견적 실수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생활하는 사람이나 접촉하는 사람이 두 세계의 의미를 저울질하고 터득할 수 있는 자주적, 선택적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寶海 빌딩도 그러한 연관 작업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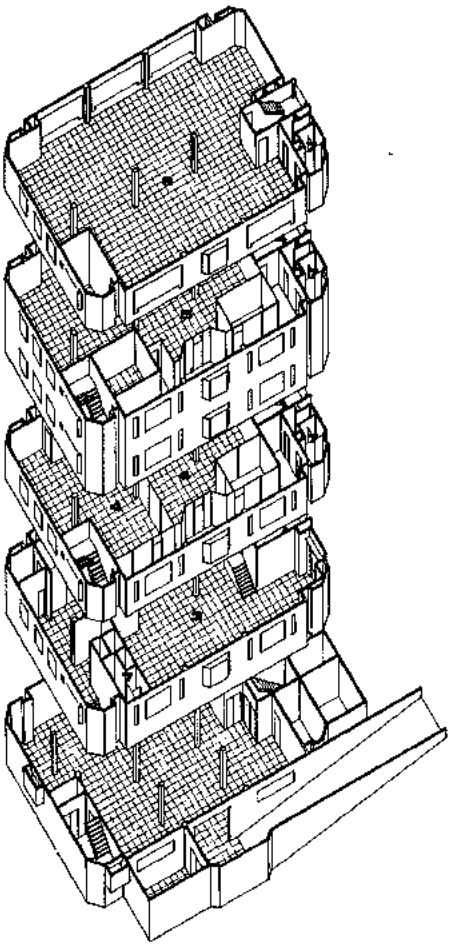
건물右面



건물後面과 左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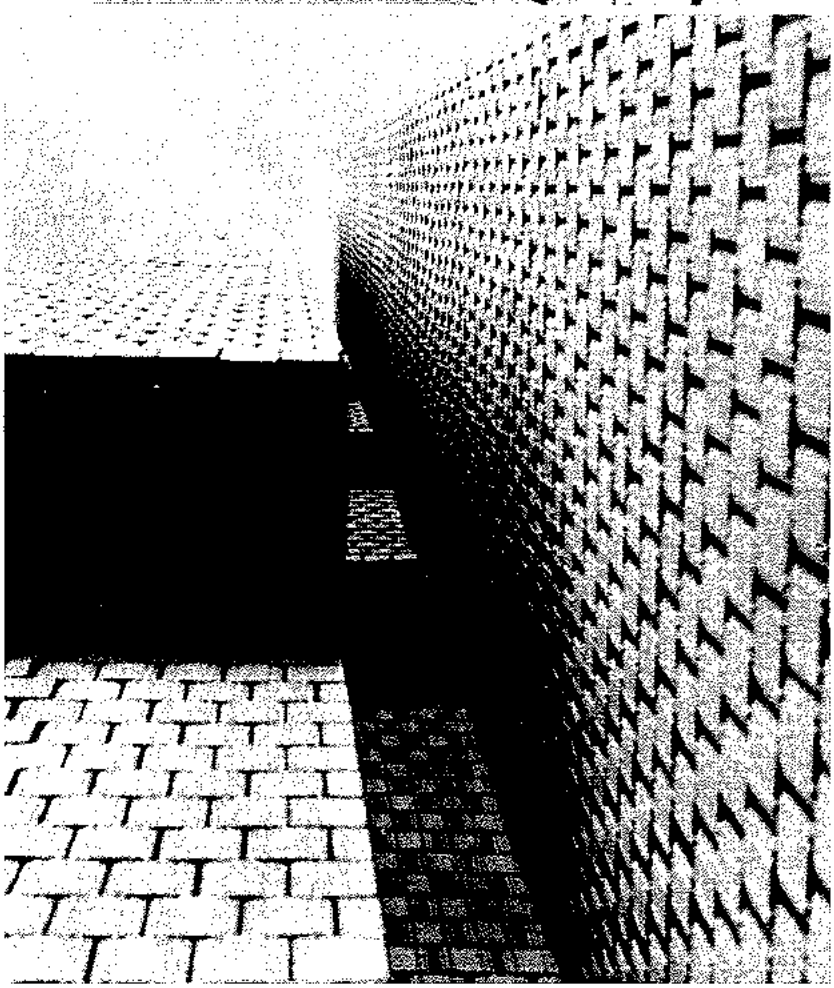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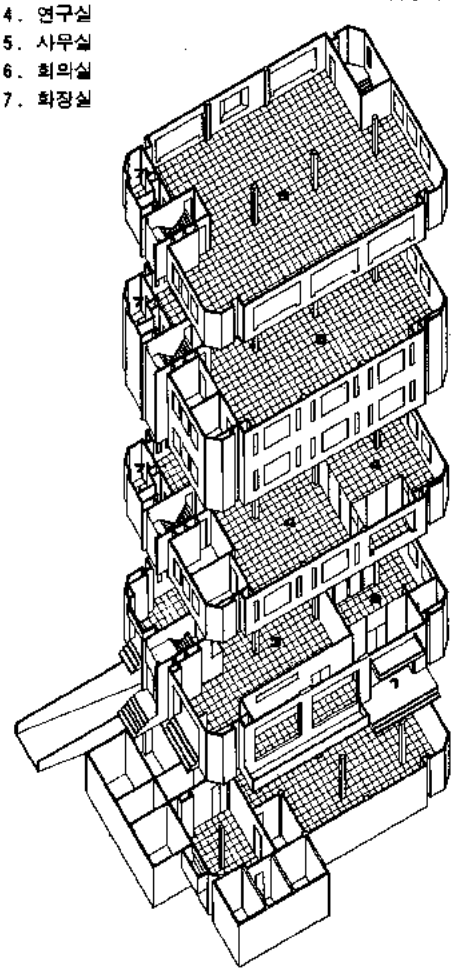
前面



1. 현관
2. 로비
3. 전시실
4. 연구실
5. 사무실
6. 회의실
7. 화장실

남동측액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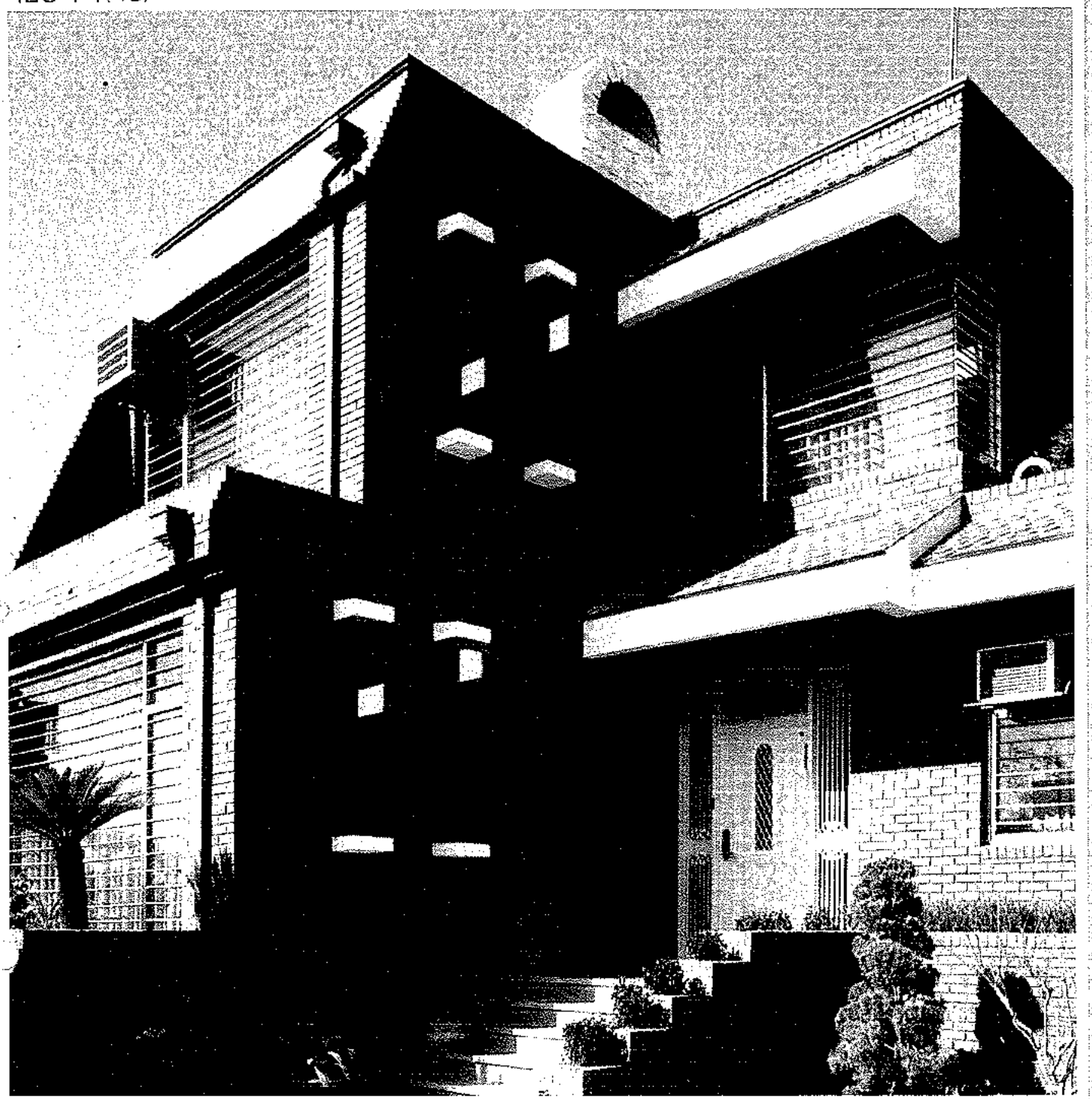
북서측액소노메트릭

역삼동점포주택
YUKSAMDONG STORE &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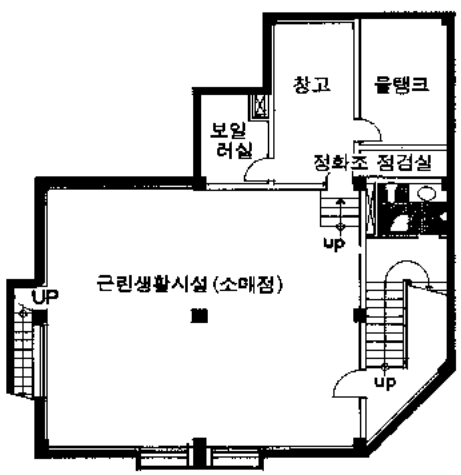
鄭 求 殷 / 삼예건축 (서울)
●소재지 / 강남구역삼동 ●대지면적 / 341.16㎡ ●건축면적 / 164.69㎡ ●연면적 / 657.6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설계소묘〕 부지조건은 전면도로 쪽으로는 6m, 측면에서는 도로의 Slope를 따라 3m의 고저차가 있는 급경사지에 도로 측에서는 점포의 기능을, 지면측에서는 주택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작업에서 점포와 주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통일감 있게 일체화 시키기위해 주재료를 적벽돌로 치장하여 사선까지 적층케 하였다. 취약점은 방수처리와 벽돌의 백화현상을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이 난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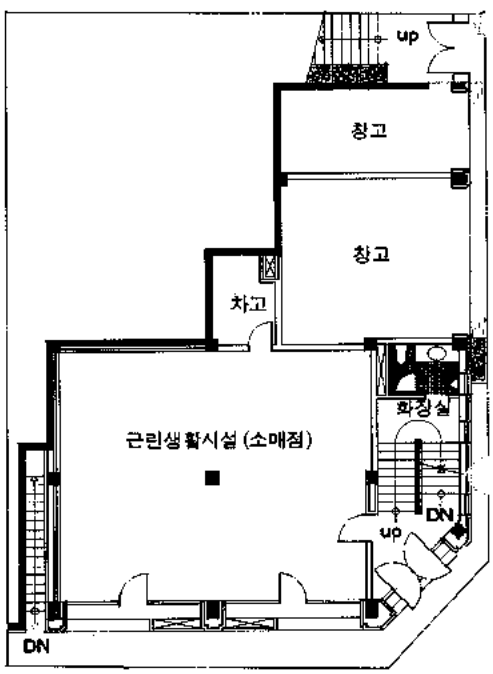
역삼동 주택 (외경)



역삼동 주택(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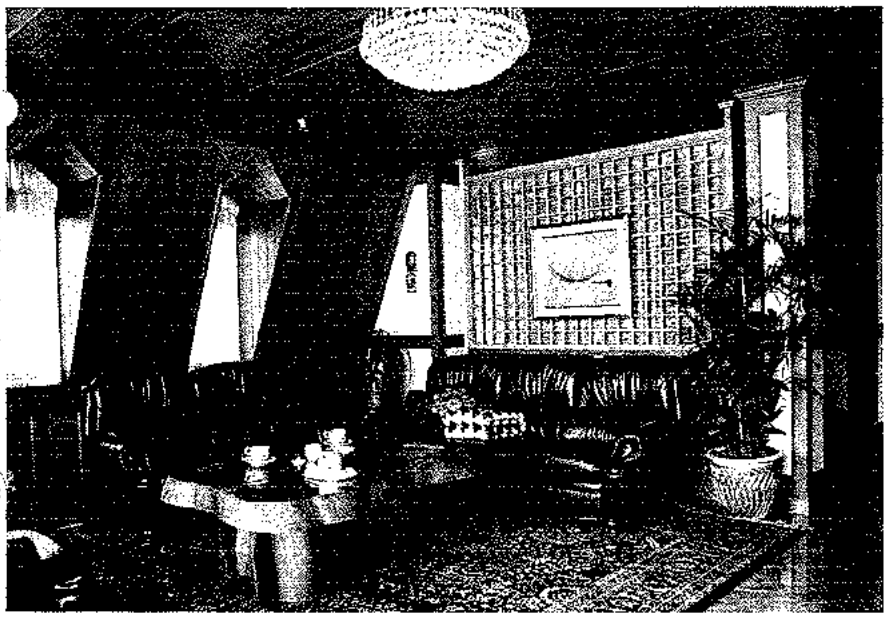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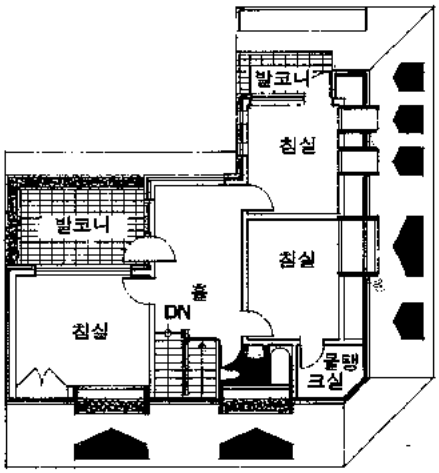
지하층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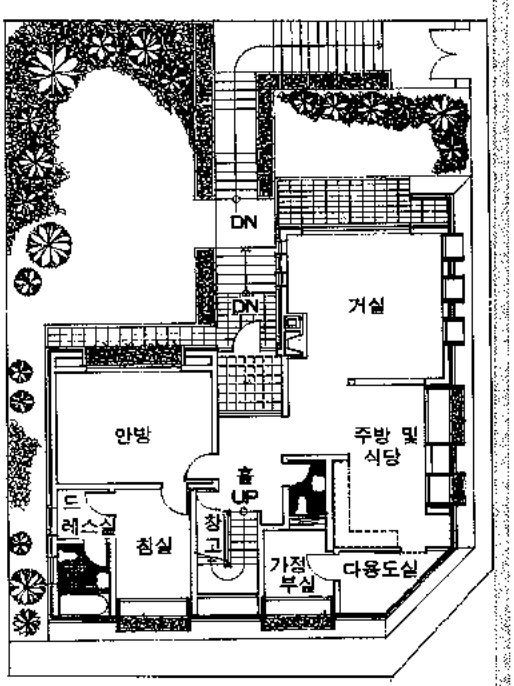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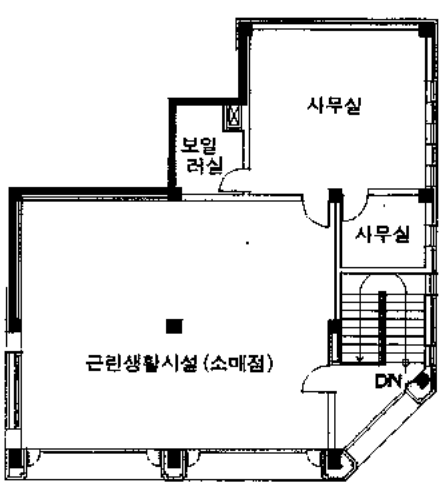

발코니
침실
발코니
침실
홀
DN
침실
물탱크실

4 층

계단


DN
DN
거실
안방
주방 및 식당
홀
UP
드레스실
침실
창고
가정부실
다용도실

3 층


사무실
보일러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DN

2 층

금오공대 학생회관및 도서관

KEUM OH COLLEGE STUDENT'S UNION & LIBRARY

魏 亨 復 / (주)연희건축연구소(서울)
Wi Hyung Bok / Youn Hee Architects & Engineers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건축면적 / 966㎡ ● 건축연면적 / 4090㎡ ●층수 / 지하 1 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주요외장재 / 변색화장 벽돌 치장쌓기.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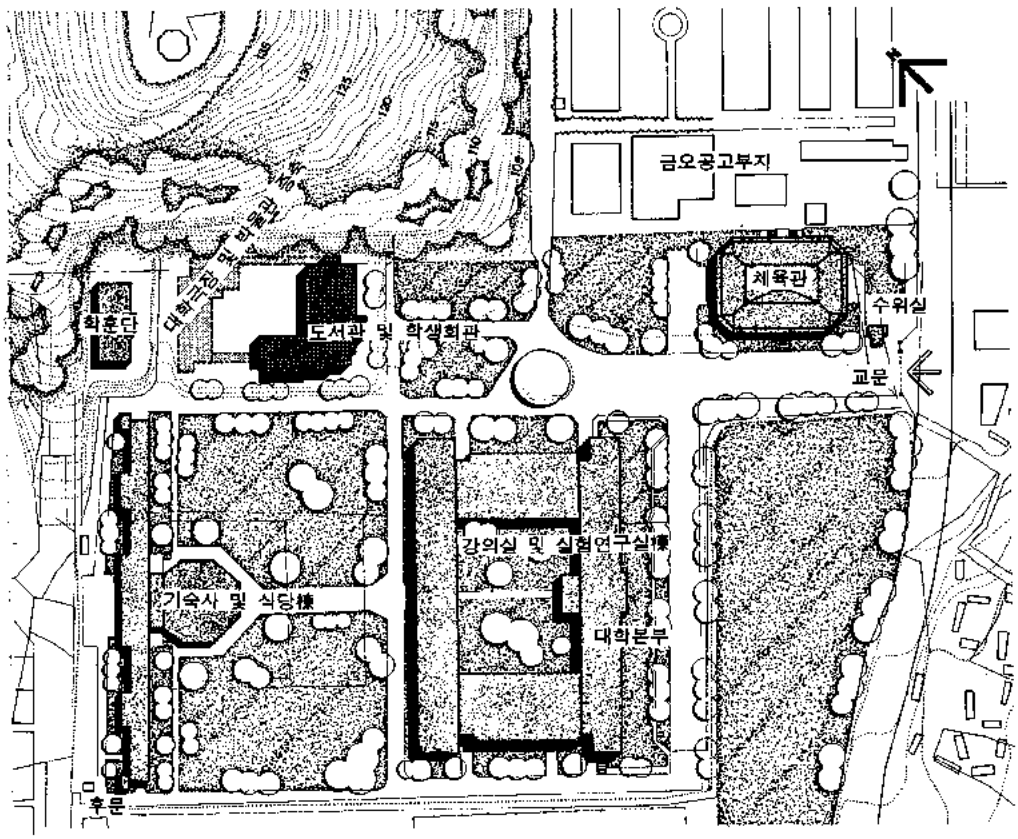
○도서관의 기능과 학생회관 용도를 직능적 배분에 의한 평면 구성.

○기능의 분할을 위하여 LEVEL 차를 이용한 명확한 용도의 구획.

○장방형의 대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장래 박물관의 증축을 고려하여 BRIDGE로의 연결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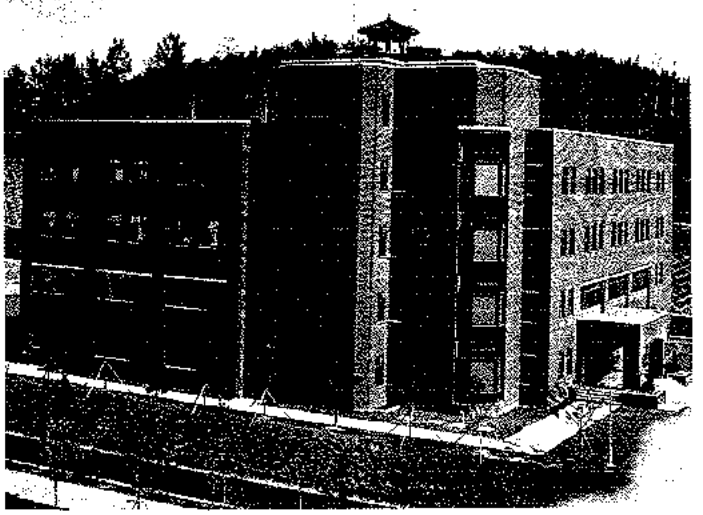
○대학의 표상적인 시설로서 DIGNTY를 위한 수직적 요소를 도입.

○캠퍼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 경관으로서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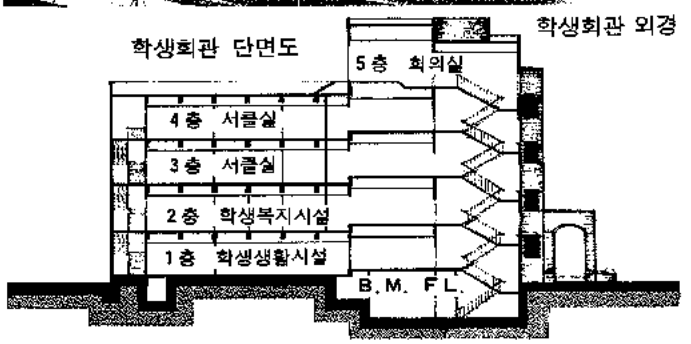
종합배치도

학생회관 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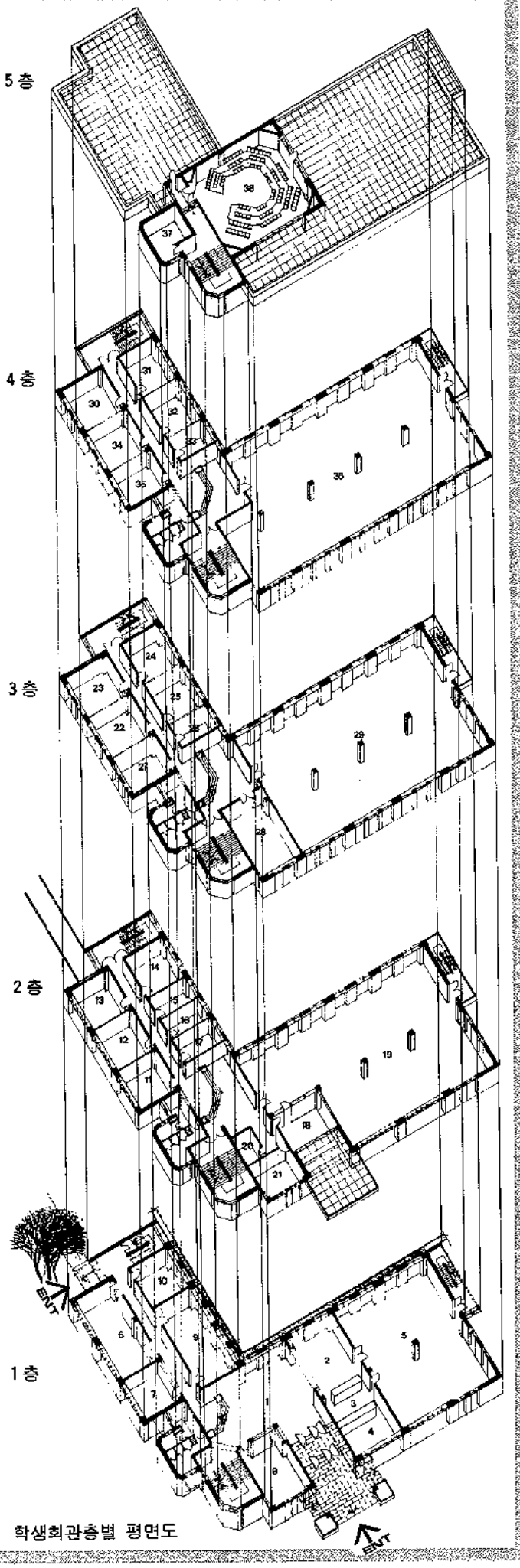


학생회관 외경

학생회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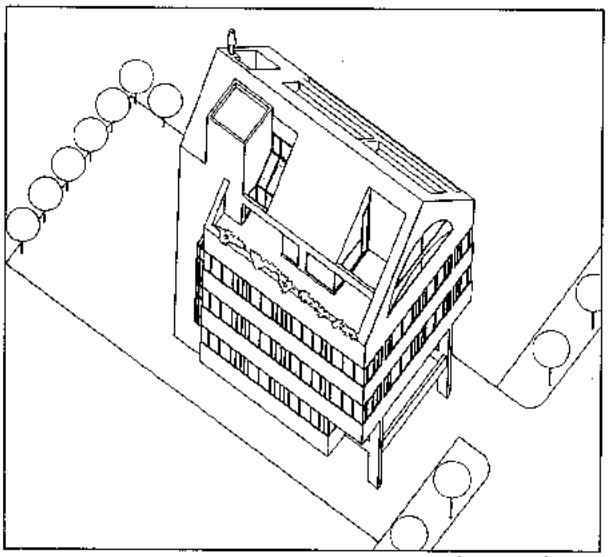
1. 홀. 2. 목록실 3. 대출실 4. 수서정리실 5. 폐가서고 6. 오락실 7. 서점 8. 가방보관실 안내실 9. 휴게실 10. 의무실 11. 호국단사무실 12. 호국단 단장실 13. 방송실 14. 학보사 15. 생활지도연구소 16. 동창회사무실 17. 직업보도실 18. 사무실 19. 개가서고 20. 창고 21. 관장실 22.~27. 서클실. 28. 교수열람실 29. 일반열람실 30~35. 서클실 36. 일반열람실 37. 물탱크실 38.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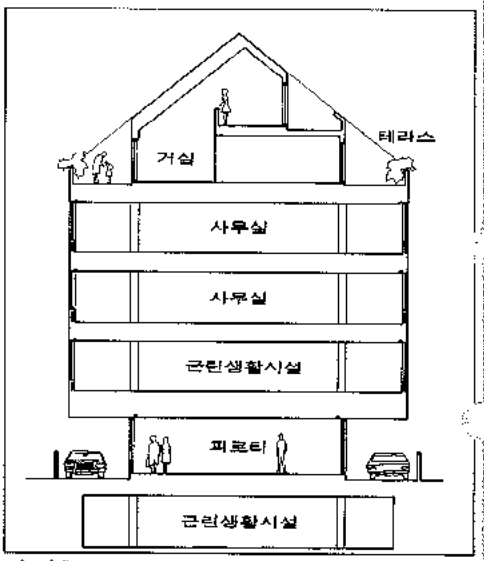
학생회관층별 평면도

한 빌딩 HAN BUILDING

俞 元 在 / 범건축(서울)
Buhm Architects Consultant
●소재지 / 강남구논현동●대지면적 / 720.8㎡●건축면적 / 360.35㎡●연면적 / 1993.31㎡●건폐율 / 49.9%●용적율 / 209.47%●층수 / 지하 1 층 지상 6 층●구조/절근콘크리트라멘조●마감재료 / 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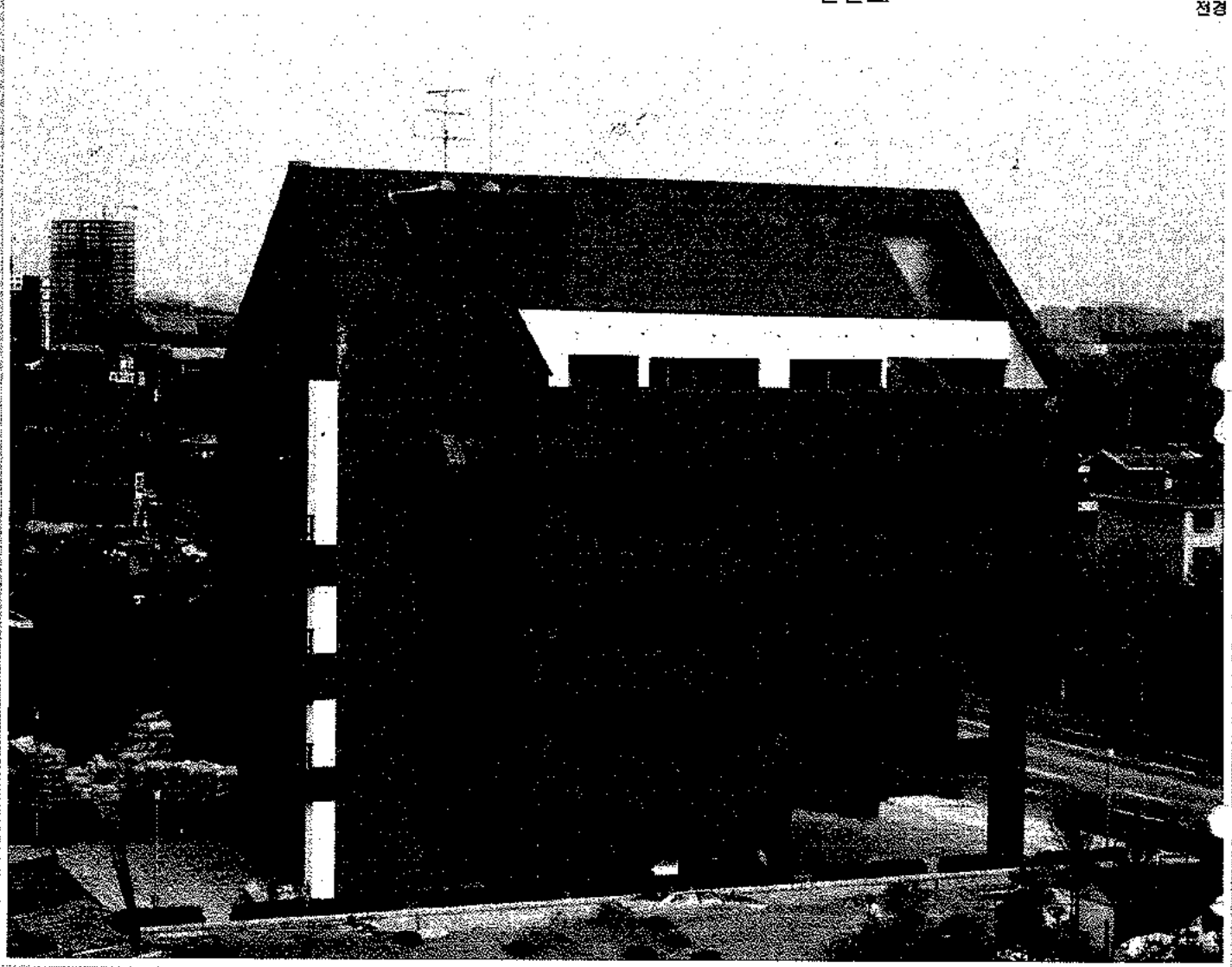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단면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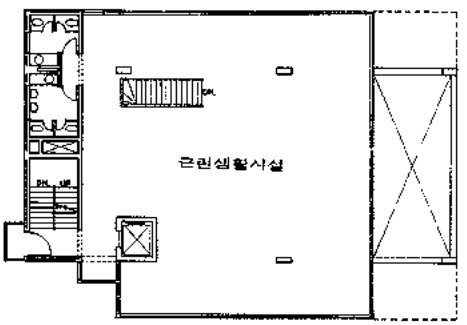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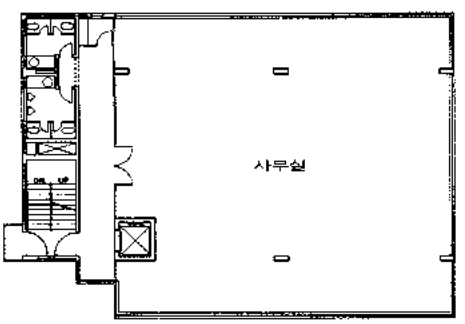
〔설계소묘〕

대지가 전면이 폭이 좁고 길이는 길다. 후면 옥외 주차장을 위해 터널을 뚫지 않으려고 양쪽을 내어 빌어 주차통로를 두었고, 앞부분에 피로티를 두어 건물의 일부를 도려냄으로 정면성을 과장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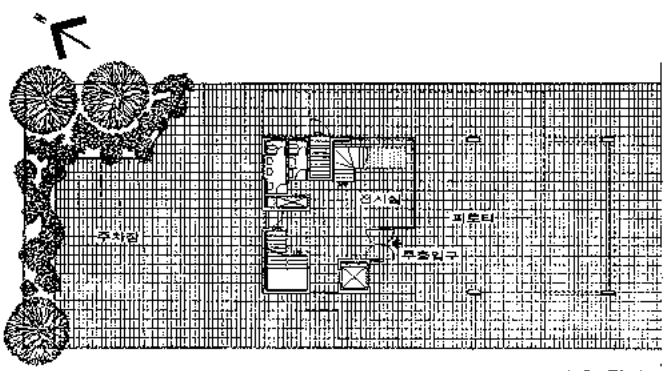
5.6층엔 PENT HOUSE가 올라 앉게 되어 내부기능의 변화를 입면에 연결시켜 박공면을 두었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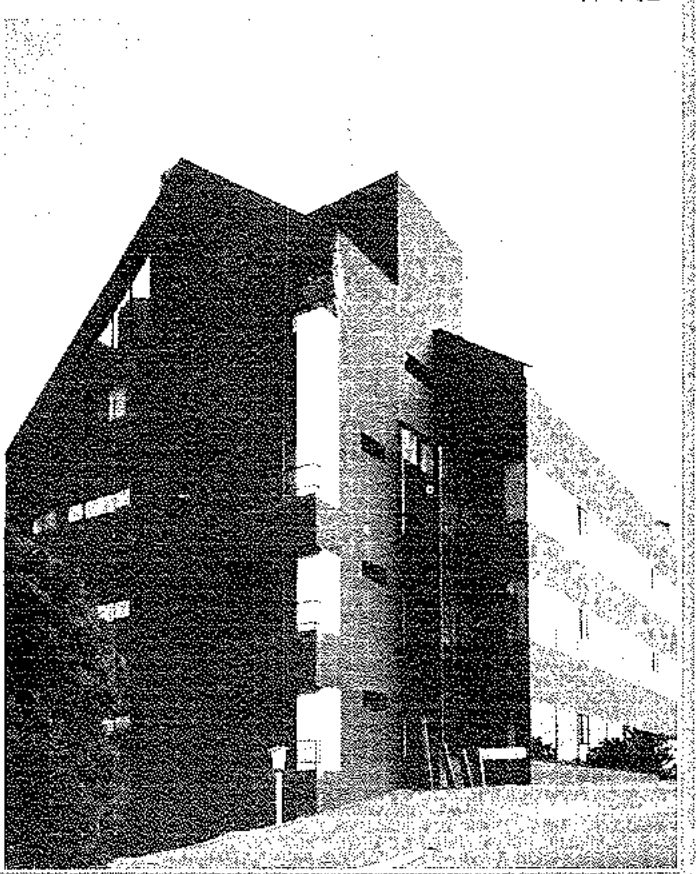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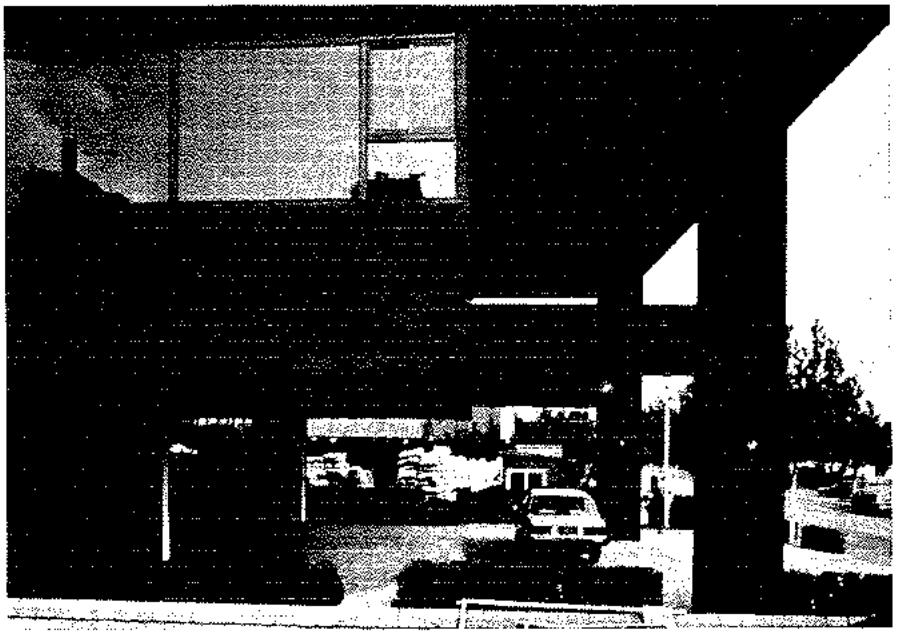
3,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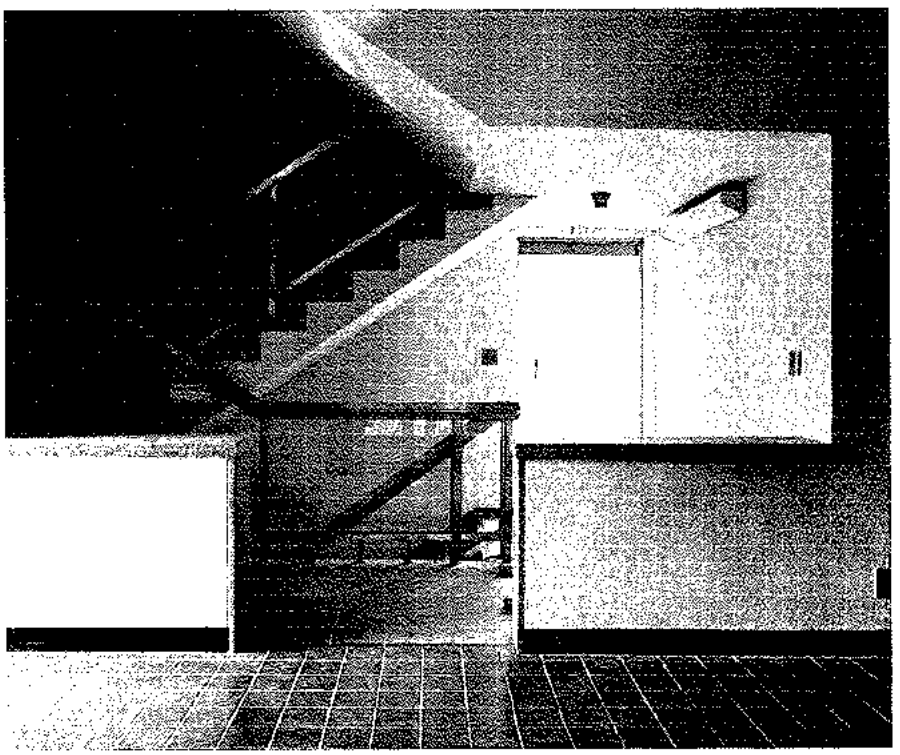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외부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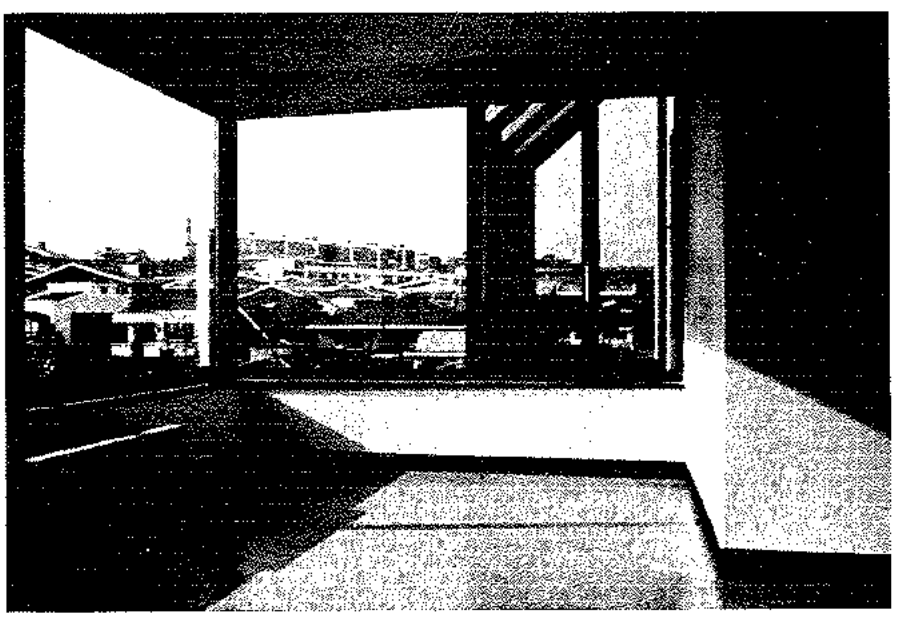




피로티부분



로비계단 홀



사무실내부 창호디테일

大韓建築士協会
第19回定期総会

建設部長官 致辞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오늘 大韓建築士協會 제19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본인이 致辞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협회가 창립된 이래 19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2천2백여 회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 규모나 활동범위가 크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을 위한 협회로서 회원의 권익증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은 물론, 건축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바 지대함을 본인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貴協會의 발전은 임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모인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건축사 여러분들의 단결된 힘과 노력의 결과라고 믿어 다시 한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建築士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은 그간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 함으로써 민주·복지·정의사회를 구현함과 아울러 문화의 창달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고 있읍니다.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건축사 여러분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꽃피웠던 찬연한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세계 先進建築技術과 겨루어 조금도 손색없이 앞서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읍니다.

建築物은 인간생활을 담는 그릇일 뿐 아니라 건축물이 그 내외 공간을 통하여 창출하는 아름다움은 그 사회와 그 시대 문화를 반영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많은 국가자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문화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작은 주택 한채를 설계할 때에도 이것이 곧 国家発展에 직결된다는 점과 傳統文化를 창조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建築士像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LA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개선함에 따라 온 국민은 차기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86, '88의 민족적 대행사를 보다 훌륭히 치루어야 겠다는 열의로 가득차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바램은 세계적 大祭典이 펼쳐질 蚕室綜合運動場이 완공 개장하는 결실을 보게 되었고 그외 각종 시설이 착실하게 건축되고 있읍니다.

세계의 이목은 이러한 일들을 치르는 우리 국민의 자세와 노력 그리고 기술수준에 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의 눈에 비친 훌륭한 시설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인상으로 남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尺度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건축사 여러분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며, 아울러 그만큼 사명감도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建築士 여러분!

귀협회 創立 19周年은 곧 성년의 길목에 선 우리나라 현대건축 문화가 새로운 좌표위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나라 建築史的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한 건축사 여러분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통감하고 소임에 정진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면서 致辞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1984년 10월 22일

建設部長官 金 聖 培

제19회 정기총회

開会辞

오늘 本協会 제19회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遠路에도 불구하시고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代議員여러분과 협회의 오늘과 내일을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政務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金聖培 건설부장관님께 2천여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학회 김진일 회장님과 건축가협회 나상기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 회원을 대표한 代議員여러분이 協会発展과 우리나라 建築文化発展의 길을 다듬기 위한 대화의 광장으로, 우리의 할일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회원권익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 개선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의견개진과 가탄없는 토론으로 알찬 결실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마지 않읍니다.

총회는 비단 협회의 장래를 여는 중요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값진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금년 총회는 협회설립 19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본 협회가 成年期에 들어서기 위한 뜻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중요한 자리라고 느껴지며 성년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5년 4월25일 10여명의 선배 회원님들에 의해 213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본협회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2천2백 여명이라는 많은 회원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처 기구 및 財政的인 면에서도 굳건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도모하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로 감개무량 하기만 합니다.

협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심신을 다해 수고해 주신 여러회원님들께 재삼 謝意를 표합니다.

이제 지나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미흡했던 사항에는 충실을 기하여 협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協會는 지난 1년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傾注 했읍니다.

협회기능의 활성화방안으로 연구검토해온 聯合会体制로의 전환문제는 정부의 지방자치제도와 그맥락이 연관됨으로 해서 다소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믿어지며, 회원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建築関係法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건축연구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회원업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협회성장과 함께 협회의 활동영역을 보다 넓히고 협회차원에서의 선진기술도입으로 회원업무는 물론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國際交流事業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2월 본인을 비롯한 본협회 대표단이 일본건축사회연합회를 방문하여 "한·일 건축기술협력촉진을 위한 합의각서(안)"에 양단체가 동의하였고 본협회 신축회관준공 행사에 참석하여 정식조인만을 남겨 놓고 있읍니다.

3일후인 10월25일부터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亜細亜建築士会議에 참석하기 위하여 18명으로 구성된 본협회 대표단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24일 장도에 오르게 되어 있읍니다.

협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아시아 각국과의 公式的인 유대강화는 물론 세계여러 나라와의 교류모색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 입니다.

이같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회원을 위한 회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회원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겨냥한 것이며 時宜에 부응하고 보다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안목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까지의 建築界 주변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갖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줄을 이었고 그 책임의 일부가 建築士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해서 많은 회원들이 관계당국으로 부터 받지않아도 될 각종 制裁를 받아 왔읍니다.

물론 이같은 사례의 발단이 전적으로 우리 회원들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직도 일부 건축사들이 눈앞의 작은 利益에 급급한 나머지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까닭에서 연유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체 건축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뿐만아니라 우리스스로 지키고자했던 权益과 地位를 스스로 실추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읍니다.

이렇게 실추된 우리의 权益과 地位를 회복하고 사회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닌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각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지금까지 고질적인 부조리로 지목되었던 業務受託을 위한 덤핑행위나 명의대여, 不実監理等은 결단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職業倫理觀涵養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대다수 회원들을 위해 일부 사이비 건축사를 과감하게 축출하는 자율정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건축계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꽃피웠던 찬연한 건축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건축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협회는 우리 모두의 숙원이던 새 會館마련에 힘써 드디어 준공을 보게 되었읍니다.

회원모두의 결속된 힘에의해 마련된 새 회관준공을 협회가 성년이 되는 길목에서 보게됨에 따라 협회는 분명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으며 한단계 더높은 도약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여러분께서도 造形創作芸術人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해 專門職能人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회원상호간에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협동단결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建築士像을 定立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협회가 성년이되는 해에 펼칠 많은 일들을 위한 설계가 대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훌륭하게 완성되어지길 빌며 항상 협회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새롭게 마련된 會館에서 협회가 성년이 됨을 자축하기위한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할것을 기약하면서, 부디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만 開会辞에 가름합니다.

1984년 10월22일

협회소식

제19회 定期總會 開催

金聖培건설부장관등 내빈다수참석
新任會長에 共樂社 會員被選

본협회 제19회 정기총회가 10월22일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자율정화추진결의대회를 겸한 이날 총회는 상오10시 金聖培 건설부장관을 비롯 정순호 주택국장과 관계관 및 1백13명의 전국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金枝泰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성원보고와 국민의례, 국민교육헌장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화결의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金枝泰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있는 부조리의 척결과 직업윤리의 함양을 통해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는 대다수 회원들을 위하여 일부 사이비 건축사를 과감하게 색출하는 자율정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건축사 풍토를 조성하는데 함께 힘쓰며, 숙원이었던 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成年協會의 새로운 전환기에서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형창작예술인으로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함은 물론 회원상호간의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협동단결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건축사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쓰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만료된 金회장은 협회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金聖培 건설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19년이란 세월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룬 협회의 성장을 축하하며 회원을 위한 협회로서 회원의 권익증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은 물론 건축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함을 치하했다.

특히 金장관은 건축물은 인간생활을 담는 그릇일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공간을 통하여 창출되는 아름다움은 그 사회와 그 시대 문화를 반영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많은 국가자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문화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니 작은 주택 한 채를 설계할 때에도 이것이 곧 국가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회로 부터 존경받는 건축사상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金聖培 장관의 치사에 이어 84회원작품공모전 대상을 받은 대호건축의 金寬旭회원에 대한 장관의 시상이 있었고 나상기 건축가협회장의 축사가 뒤를 이었다.

'84會員建築設計作品公募展入賞作施賞
模範職員 11명도 표창

이어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회원의 건축설계 기술향상을 도모하며 일반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히기 위해 본 협회가 마련했던 84년도 회원건축설계 작품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大賞은 전술한 것과 같이 金聖培 건설부장관에 의해 시상되었고 最優秀賞, 優秀賞 奬勵賞은 본협회 金枝泰 회장에 의해 시상되었다.

이날 수상한 입상자는, 본지 9월호에 발표된 바 있지만 大賞은 용평리조트컴플렉스를 출품했던 金寬旭씨(대호건축연구소)가 수상했고 最優秀賞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출품했던 權卓雄·崔泰容씨(주·정림건축)가 수상했으며 優秀賞은 갈현동소나무집을 출품했던 柳春秀씨(공간연구소), 계명대학교 학생회관을 출품했던 林八岩씨(동인건축) 도예가 원교수댁을 출품했던 崔勝元씨(태올건축) 등이 수상했다. 金仁錫씨(단국대학교 난파기념음악관 출품/건축연구소일건) 金重業씨(부산시 충혼탑출품/김종업건축연구소) 金泰燮씨(논산H씨 주택 출품/신화건축설계사무소) 柳然昌씨(목욕탕 및 주택/미도 & 류 건축연구소) 李起範씨(용인성당/주·도시건축) 李相憲씨(흥성상호신용금고사옥/대우건축연구소) 李仁守씨(호텔 낙산비치/목전종합건축사무소) 黃一仁씨(국립경상대학교학생 및 교수회관/건축연구소 일건) 등은 奬勵賞을 받았다.

이어서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본부직원과 지부직원 등 11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표창을 받은 11명은 회원의 업무 및 협회발전에 대한 공적이 인정되고 품행이 단정하고 직무에 근면하여 다른 직원에 모범이 된다고 평가됨으로써 84년도 모범직원상 수상자로 결정된 바 있다.

推戴會員名單

蔡龍雲	인천·금호건축연구소
金東淑	경기·화성건축연구소
元鎬昌	강원·종합건축설계
許 鏝	전북·호남합동건축사
虛承奇	전북·노승기건축설계
金成秋	전남·가야건축사무소
高在淑	전남·진남건축사무소
文仁相	경남·김해건축설계
朴光鎭	제주·수북건축설계사
玄錫洪	서울·경일종합건축
任亨宰	서울·우성건축·설계
李秉均	서울·(주)태양건축
李鍾億	서울·용일건축
李明春	서울·상건축연구소
徐鉉鎭	서울·서영건축설계
朴定秉	서울·동산합동건축
黃肅在	서울·협성건축설계
嚴德紋	서울·심원건축설계

추대회원 18명 추대

모범직원 표창을 끝낸 金枝泰 회장은 역대회장을 비롯한 18명의 고령 회원에게 추대회원증을 수여했다.

추대회원은 매년 해당회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하게 되며 역대회장과 회원중 만65세가 되는 회원이 대상자가 된다.

이날 추대회원으로 추대된 회원은 서울지부소속회원 9명, 전북, 전남 각 2명 인천, 경기, 강원, 경남, 제주지부소속회원 각 1명씩이다.

이어서 1984년도 임시총회 회의록이 이의없이 승인되고 그간의 주요업무가 보고되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 업무 가운데 주요업무만 요약하면 주택 및 건축분야 순회 교육실시, 도시환경과 가로조형 책자 제작 배부, 건축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간담회 개최, 주문주택 사업광고에 관한 조치,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회의 참석, 건축사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종합, 대정부 간담회 개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제정(안) 반대의견 건의, 회원작품순회 전시회, 건축연구분과위원회, 회관신축공사 등 27개항의 주요업무실적 및 추진사항이 보고되었다.

協會운영 전반 監査結果 報告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감사결과보고가 있었다. 지난 9월 3일 부터 10월 17일 까지 실시한 협회본부 및 산하 13개 시도지부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를 행정 및 회계부문으로 나누어 朴弘雨감사와 李春相감사가 각각 보고했다.

朴弘雨감사는 감사총평을 통해 지난 임시총회를 대비한 감사시에 지적되였던 업무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 지도하고 금번 정기총회를 대비하여 업무 전반적인 감사로서 협회 및 지부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분장별 책임의식 및 업무처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밝히고,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대체적으로 시정 되었으며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현저히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직원 퇴직에 따른 업무 인수 인계가 철저하지 못하여 후임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시정사항으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별로 현황을 철저히 기록비치, 회원카드정리 철저, 설계도서 신고대장의 비고란에 지층면적 표기방법강구, 사회정화운동 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상화 등을 들었다.

연구검토 사항으로는 분소설치 운영규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연구와 건축물의 조사감정 업무규정의 추천 기준의 보완·연구, 정관 제15조 및 34조의 임원 선출규정의 선거관리 내규의 제정을 건의했다.

한편 李春相감사는 회계부문감사결과 개선사항으로 각지부가 사무실 을 이전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 할 때 사전에 본부와 협의

任員名單

會　長	吳雄錫(新)	서울 · 新潮건축연구소
副會長	金基壽	大韓建築士協會
理　事	金圭泰(新)	부산 · 渚都건축설계사무소
理　事	金奉勳(新)	서울 · 新新건축연구소
理　事	金在佑(新)	대구 · 韓南건축설계사무소
理　事	金亨仁	서울 · 世韓건축종합사무소
理　事	申貞桓(新)	서울 · 세익종합건축연구소
理　事	俞景哲	서울 · 綜合건축설계
理　事	李永熙	서울 · 熙林건축설계사무소
理　事	林在植(新)	광주 · 金星종합설계공사
理　事	韓鍾彦	서울 · 金星건축연구소
監　事	柳根洌(新)	대전 · 류근열 건축연구소
監　事	李康植(新)	서울 · (주)완綜合建築

하여 예산배정 가능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할 것이며 각지부의 사무실 규모는 회원수와 지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무소 임대차보증금의 불균형을 시정토록할 것을 지적하였다고 밝혔으며 또 각종 경리서류 양식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시행할 것등 본부 및 지부별 시정사항을 세부적으로 지적했다.

定款 및 倫理委員會規定 개정승인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처리에 들어가서는 정관 및 윤리위원회규정개정(안)이 상정,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정관개정은, 제7조의 추대회원은 만65세 이상의 정회원이라도 정회원 자격 연수를 15년이상으로 개정한 것을 비롯하여 제10조, 12조, 15조, 16조, 34조, 36조를 수정보완했다. 또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은 제2조의 위원위촉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5조, 10조, 11조, 15조, 18조 등을 개정했다.

한편 두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금년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事業計劃 및 收支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된 85년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각시도지부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사업추진, 건축연구위원회의 연구활동의 활성화로 회원의 복리증진 및 업무개선, 건축실무 및 신공법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 전개, 건실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 계몽활동 강화, 회지의 내실화, 협회창립2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홍보지 발간으로 홍보활동 강화, 회원건축설계작품 공모 및 순회전시회, 국제교류실시, 건축계 부조리 척결, 회원및 협회 홍보활동 적극전개, 설계도서의 질적 향상 및 기술지도와 행정기관의 심의제도 개선책 강구등으로서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全國支部予算을 포함하여 18억원에 달한다.

예산 충당에 따른 세입으로는 월정회비를 비롯해서 실적회비와 사업수입, 잡수입,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로는 각종회의비, 관리비, 사업비, 인건비, 사무비, 판공비, 경조비, 자산취득비, 적립금, 복리후생비, 예비비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총규모 1억 4천 만원에 달하는 85년도 특별회계수지예산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특별예산은 회원 폐업환불금과 임대보증금 충당 적립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本協會 新任會長에 吳雄錫 會員 被選

오후 4시경 회장 및 일부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개선이 있었다.

장기인 초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하여 회장선거에 들어간 결과 재적 대의원 112명 중 64표를 득표한 吳雄錫 회원이 새 회장으로선출되었다.

이어 임기가 만료된 이사와 감사의 개선이 있었다.

이날의 임원개선은 임기가 만료된 金仁錫 이사, 李用夏 이사, 尹鳳源 이사, 金暎植 이사와 朴弘雨 감사 등 5명의 임원이 대상이었으나 잔여임기 1년을 남기고 있는 成熟変 이사와 李春相 감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여 총의에 따라 받아들여짐으로써 7명의 임원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理事에 金奉勳씨(서울 · 新新건축연구소), 金在佑씨(대구 · 韓真건축설계사무소), 申貞桓씨(서울 · 세익종합건축연구소), 林在植씨(광주 · 金星종합건설공사), 金圭泰씨(1년 임기. 부산 · 渚都건축설계사무소) 등 5명이고 감사는 柳根洌씨(대전 · 류근렬 · 정인협건축연구소), 李康植씨(1년임기 · 서울 · (주)완종합건축) 등 2명이다. (신임 임원 취임소감 참조)

임원개선후 「대한민국」과 「협회」와 「건축사」의 무궁한 번영발전을 기약하는 만세를 각각 3창씩, 힘찬 9창을 吳雄錫 신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한후 오후 4시5분, '84년도 제19회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의 막을 내렸다.

제1회 아시아건축사회의 참석

대한건축사협회 金枝泰 회장을 비롯, 金知德(惟新設計公團 建築設計代表), 朴泰永(오성합동건축연구소) 金昌瑞(협화건축설계사무소) 회원으로 구성된 4명의 한국건축사 대표단과 洪貞吉(미건사합동건축사무소)회원등 15명으로 구성된 업서버 등 일행 19명이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건축사회의에 업서버자격으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前任會長으로부터 協會旗를 傳受하는 吳雄錫 新任會長

吳雄錫會長就任
會長離就任式거행

본 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회의실에서 金枝泰전임회장과 吳雄錫신임회장의 이,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이임한 金枝泰 전회장은 지난 2년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큰 과오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의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고 이임인사를 했다.

이어 15대 회장에 취임한 吳雄錫회장은 "역대 회장과 선배회원들께서 이룩하여 주신 업적을 바탕으로 협회를 더욱 빛내고 발전시켜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기중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미흡점을 자율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과, 연합회제도에 대한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 10개 항에 걸친 업무방침을 피력했다.

이임하는 전임임원들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공로패와 기념품 증정이 있었으며 이·취임식이 끝난 뒤 오후 4시부터 신구임원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협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吳 雄 錫 會長 略歷

본 적 : 서울특별시 (1930年生)
1954년 9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1965년 7월 建築士 면허 취득
1969년 9월 技術士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965년 7월 新潮建築硏究所 개설
1966년 3월 – 1976년 2월
韓國建築家協會 理事, 製作分科委員長, 韓國建築三團體(士協, 家協, 학회) 設計競技運營委員長 U.I.A총회(1972년도)韓國代表
1972년10월 – 1974년10월 大韓建築士協會 理事, 編纂委員長
1976년 3월 – 1978년 2월, 大韓建築學會 理事
1982년10월 大韓民國 建築大展 運營委員 및 招待作家
1982년11월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支部長
1984년 7월 서울特別市 市政 諮問委員會 諮問委員(都市開發)
1984년10월 大韓建築士協會會長

受 賞
1982년12월 서울特別市 建築賞 授賞
1984년10월 韓國建築家協會賞 授賞
1984년10월 서울特別市 功勞表彰狀 授賞

研究分科委員會消息

建築硏究委員会
構造硏究分科委員会

제10회 구조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李用夏)가 지난 10월 19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조현장체크리스트의 각 공사별 점검사항중 지정공사, 철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철골공사의 세부항목을 최종검토 결정하여 체크리스트의 초안이 작성되어, 회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위원장, 주경재, 김창서위원이 수정; 보완하여 차기회의시 제출함으로써 금년도 연구사업을 종결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85년도에는 이제까지 연구·작성한 체크리스트에 상세한 설명을 붙여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행본으로 발간할 것을 결정했다.

建築硏究委員會
設備硏究分科委員会

제 8 회 설비분연구과위원회(위원장 朴容漢)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영위원이 연구한 반송설비 시방서와 조영민 위원의

알림

지난 10월호 p.17 협회소식의 대구지부 소식 중 지부장 金在佑는 黃鑑周의 오식이었기 바로 잡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85사업계획

1. 會員福利增進
   가. 건축관계 정보자료실 운영
   나. 예규집 발간
   다. 복리향상을 위한 연구
   라. 견학회실시
   마. 회원업무 개선추진
2. 會員相互親睦図謀
   가. 회원친목단합대회
   나. 회원명부발간
   다. 간담회
3. 創立20周年 紀念行事
   각종행사 개최
4. 建築士業務改善
   가. 건축관계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나. 건축연구위원회 운영
   다.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
   라. 설계도서검토에 관한 연구
5. 展示會開催
   가. 작품전시회
   나. 우수건축자재전시회
6. 會員品位向上
   가. 세미나 및 강연회
   나. 작품집 발간
7. 指導啓蒙
   회원사무소 및 업무에 관한 지도 계몽
8. 補助員資質向上
   ○건축사보 및 보조원 강습회
9. 出版事業
   ○ 회지"건축사"발간
10. 國際交流
    ○국제교류추진
11. 監査活動
    가. 정기감사 실시
    나. 특별감사활동전개
12. 社會淨化運動展開
    가. 의식개혁운동
    나. 거래질서확립
    다. 기타교육 캠페인
13. 새마을運動
    ○직장 새마을 운동활성화
14. 豫算 및 物資節約
    ○근검절약운동전개
15. 奉仕活動
    ○건축행정상담실 운영
16. 弘報活動
    홍보활동전개
17. 人力管理 및 業務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강구

건축법과 소방법상의 문제점 비교연구, 민만기위원과 손장열위원의 건축설비중 에너지 절약에 관계되는 설비부문연구, 김상욱위원이 연구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착안사항 등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여 회지에 낼 수 있도록 원고제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85년도 연구사업계획으로 ①병원 건물축의 위생, 공조, 전기설비 실태 조사. ②일본건축사협회가 발행한 "건축설비"를 번역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支 部 消 息

서울市支部
강습회, 친목회 개최

서울지부 (지부장 具雄錫)는 지난 10월 17일 (주)종근당 사옥에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정덕·주남철 교수를 초빙하여 회원의 업무능력 신장을 위한 현대 건축과 전통건축 강습회를 가졌다.

이어 10월 20일에는 경기도 고양군 장흥유원지에서 회원친목을 위한 야유회 및 친선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150여명의 회원과 지부직원들은 축구대회와 배구대회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大邱支部
제1회 회원종합작품전시회개최

大邱支部(지부장 黃鏞周)는 건축 및 회원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건축문화 창달과 회원의 창작의욕고취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대구 건축사회관에서 회원종합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대구 건축사 회원들은 1983년 5월 1일부터 서예 회화 수석 등산 골프 정구 바둑 낚시 등 8개분야에 걸쳐 매주 또는 매월 행사를 통한 여가선용 겸 취미활동으로 회원간 친목 단합을 꾀해 왔는데 이번에 전시된 건축 서예 사진 회화 수석 등 5개분야 131개 회원작품은 그간의 취미활동을 결산하는 전시회인 셈이다.

7일간 연인원 1천3백여명이 참관했던 이 전시회에는 본회 부회장을 비롯 대구직할시 부시장, 대한건설협회 전문회원 대구직할시지부 협의회 운영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지부장,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 경북지부사무국장,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부장, 한국건축가협회 대구·경북지부장,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대구직할시지부 사무국장, 중구청 건축과장·계장, 등 관계인사와 지역인사들이 개관식에 참석 축하해 주었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별 출품수는 다음과 같다.

- 건축 : 42작품 • 서예 : 29작품
- 사진 : 32작품 • 회화 : 8작품
- 수석 : 20작품
- 학생작품 : 영남대학교 3작품, 대구대학교 2작품, 계명대학교 1작품

대구지부(지부장 黃鏞周)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벼베기 작업을 지원했다.

해마다 농촌일손 돕기운동을 벌리고 있는 대구지부는 지난 10월18일에도 소속지부 회원과 직원등 119명이 대구시 동구 복무동 3,000여평의 논에서 벼베기 작업을 하여 농민들을 도왔다.

京畿支部
거리질서및자연보호캠페인

경기지부(지부장 林龍洙) 안양분소(崔在楠)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안양 시청앞 횡단보도에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계도캠페인에는 연 48명이 참가했다.

또 10월 18일에는 회원 81명이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전남 송광사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주변의 오물·쓰레기 수거등의 청소 작업등을 실시하였다.

仁川支部
84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

인천지부(지부장 高昌永)는 지난 10월19일 부터 24일까지 인천 문화회관 전시장에서 '84회원 건축설계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인천직할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본회 회장을 비롯 1천5백 여명의 관람인파가 참가하여 연일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10월 24일 성황리에 마쳤다.

全南支部
전남북회원 친선낚시대회

전남지부(支部長 林在植)는 지난 10월 12일, 전라남·북도 지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키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선낚시대회를 전남회원 39명, 전북회원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장성호에서 개최했다.

낚시대회가 끝나고서는 전남북회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각도 지부장 인사말씀에 이어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회원친목을 다졌는데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어상 전남 유연모(28.3cm)./ 대어 2위 전북 김사옥(28cm, 대어 3위 전남 선제규(27.8cm)./ 대어4위 전북 이정선(27.6cm) / 대어 5위 전남 이 수(27cm) / 행운상 전북 유용순(날치) / 잡어상 전북 최낙운(메기)

대구·전남지부
골프동호인 친선경기

全南支部(지부장 林在植)는 10월18일 광주 C.C.에서 대구·전남지부 골프동호인 친선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남지부 골프동호인회 회장 채규당(광일건축) 외 14명, 대구지부 골프동호인회 회장 김종규(대아기술공사) 외 7명, 게스트로 경남지부에서 이종태 지부장외 3명, 전북지부에서 전형직 지부장외 3명, 본협회에서 한종언, 이영희 이사 등 총 33명이 참석

(서울支部) 현대전통건축 세미나

(大邱支部) 제1회 회원종합작품전시회

(仁川支部) 84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

(全南支部) 전남북회원친선낚시대회

한 가운데 벌어진 이번 친선경기에서는 Net70을 기록한 김원(대구)회원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의 영광은 Gross 77의 정병문(전남) 회원이 차지하였다.

양 지역의 특산물인 대구사과와 담양 죽공예품이 참가회원 전원에게 선물로 증정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한층 높였으며 드높게 트인 푸른 초원에 는정을 두텁게 하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 아름다운 풍경화 한 폭을 그려내는 듯 했다.

藝 苑 通

회원동정

會友 尹太鉉씨 書畵展

本協會 會友인 尹太鉉씨가 11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 1전시실에서 민족통일촉진회 후원아래 〈민족 통일 반만호 목표 중 오천호 집필완료〉를 기념하는 靜石 尹太鉉 書畵展을 개최하였다.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은 書畵를 제작, 매년 정기적인 전시회를 마련해 오고 있는 尹太鉉씨는 이번에도 〈民族統一〉(2천號) 등 34작품의 서예작품과 산수화 〈絶塵〉 등 27작품으로 墨香질은 전시회를 차려 만추를 장식했던 것,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203－4 (TEL 83－1567, 4517)에 畵室을 차리고 있는 尹太鉉씨는 1930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7세부터 장충소학교 서예대표를 5번 연임하는 등 비범한 실력을 과시했다. 이래 서예와 묵화에 남다른 경지를 개척하며 꾸준히 정진하여 온 尹太鉉씨는 오늘날 書畵界와 건축미술계의 중진으로 후배 양성과 독자적 세계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李元均씨 本協會 來訪

한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漢陽工大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현재 미국 AIA회원으로 활약중인 李元均씨가 지난달 15일 本協會를 내방하였다.

李元均씨는 그간 美洲지역의 건축법책자, AIA의 제반규정 등 자료의 협조로 회원업무처리는 물론 建築士法, 建築法의 改正建議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本 協會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다.

本協會는 앞으로도 계속 외국에서 건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의 협조를 얻어 技術과 建築 전반에 걸친 情報의 취득·축적을 적극화 하기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거니와 이를 계기로 해외에서 활동중인 건축인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유대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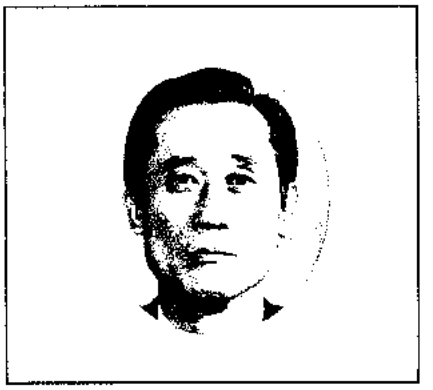
해외에서 수고하는 건축인들의 활기찬 연구활동이 좋은 성과 있기 기원하며 계속적인 협조를 本協會는 바라고 있다.

제주지부 康奇汀회원 제주전문대에 도서기증

본회 제주도 지부 창립 지부장과 제 2대, 제 5대 지부장직을 역임하면서 제주도 설계심사위원, 제주시 도시계획위원, 제주도 도정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하여 본협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康奇汀 회원(신일건축설계사무소)이 지난 10월 4일 古稀를 맞아 평소 숙원이던 후진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건축관계 저명서적 1백71권(시가 1백50만원 상당)을 구입, 제주전문대학에 기증하여 흐뭇한 미담을 피워냈다.

향토지인 제주신문도 10월 29일자 신문에서 〈제주시 소재 신일건축설계사무소 康奇汀씨는 27일 제주전문대학 도서관에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와 학습자료로 이용토록 도서 1백71권을 기증했다〉고 보도하면서 미담 사실을 전했다.

취임소감



理 事 金 圭 泰

이번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직을 맡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사로 선임해준 전국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협회도 이제 명년이면 20돌을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 임원들의 협회발전에 쌓아온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져진 그 기초위에서 회장님 이하 여러 이사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더욱 큰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천을 넘는 회원의 단합된 힘을 모아 제도상의 문제점을 타개하도록 연구함으로써 건축사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힘써 나갈 것이며,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협회의 사업이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의식이 발휘되지 않고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의 참여의식이 높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 건축사들은 사회에서의 활동영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읍니다. 비례하여 사회가 건축사에게 바라는 바 기대 또한 커지고 책임 또한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두가 정의롭고 아름다와 다른 모든 분야에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훌륭한 협회, 더욱 훌륭한 회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읍니다.

- 1933. 1. 26일생 경남 김해
- 한양대학교 공대건축공학과 졸
- 동아대 공과대학 강사
-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지부장
- 부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부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 한국 건축가협회 부산지부장(현)
- 부산시 건축위원회 위원(현)
-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理事 金奉勳

이번 제19회 정기총회에서 본협회 이사로 선임되어 협회운영에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건축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만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상태의 여건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전인바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건축의 각분야별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모름지기 전문건축인으로서의 긍지를 갖춘 보다 향상된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여야 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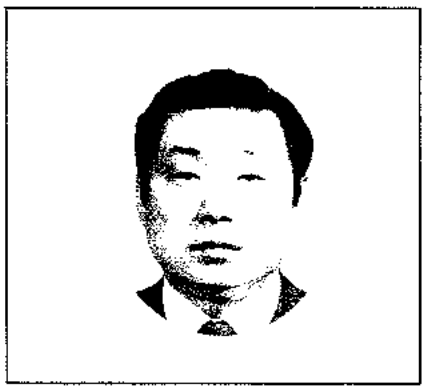
앞으론 우리 건축설계분야도 국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건설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외에도 눈을 돌려서 해외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소해야겠고 또한 우리 건축문화의 해외교류에도 힘써야겠읍니다.

아울러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속제되어 왔던 우리 건축분야에 관한 건축행정의 조직개선방안도 검토되어 보다 향상된 건축정책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겠읍니다.

건축계의 선배님들이 잘 다듬어 온 협회의 운영에 미력이나마 힘이 되어 협회운영이 보다 알찬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1940. 3. 1일생 대구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원 건설공학과
- 종합건축설계사무소
- 신신건축연구소 대표 (현)
- 연세대, 건국대 건축공학과 강사
-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



理事 金在佑

본인은 제19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직을 맡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력이나마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읍니다. 우리말 가운데 좌충우돌이란 말이 있읍니다. 이쪽으로 가도 쥐어 박히고 저쪽으로 가도 걷어차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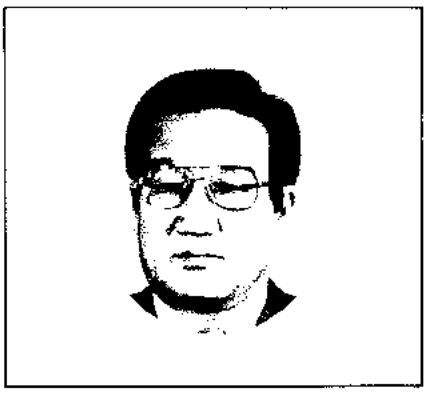
건축사(개업건축사)는 권한도 없고 신분의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무거운 의무만 짊어지고 있는것 같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고객은 절대다수가 시민대중 입니다. 성실한 업무와 훌륭한 창작활동을 하고싶은 마음이야말로 모든 건축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수탁시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경제능력 요구 등에 타협 하여야만 비로소 업무가 수탁 됩니다. 타협된 작품이 어디엔가 모자람이 있을 것이며 감리중 크고 작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어도 위반사항을 보고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한국인이 타고난 선심일진대 건축사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회원은 건축주 (주택업자)의 부당한 요구와 감사(행정처분)의 틈바구니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협회는 회원을 위해 제도상 많은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갑자년이 지나고 을축년이 되면 협회 창립 20주년 성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회장님을 정점으로 모든 임원과 2천 회원이 단합된 의지로서 협회 발전과 나의 발전을 기약 합시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1937. 5. 14일생 경북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한남건축설계사무소 대표 (현)
-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회원 (현)
- 경상북도지부 지부장 역임
- 대구직할시 지부 지부장 역임



理事 申貞桓

협회발전의 분기점을 이루는 중요한 때에 역부족한 저를, 우리 협회가 성년이 되던 날(협회 창립 19주년) 협회 이사로 선임해 주신 전국대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신임 오웅석 회장님의 취임사에서 밝힌 협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운영의 결실을 위하여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안정과 발전이 확보된 기반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참으로 건축예술의 참다운 구현과 협회의 융성을 위한다면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2,100여 회원이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친목과 협동의 기운을 더욱 높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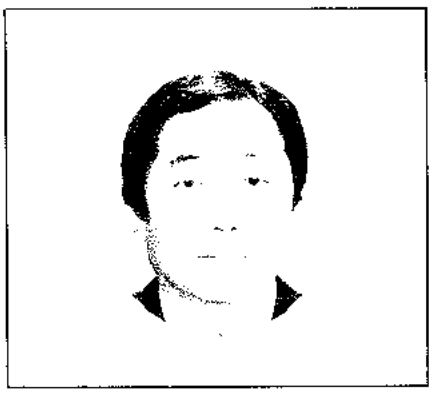
우리 회원은 저마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협회발전에 앞장서며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런 기풍이 확립될 때 정부로 부터 우리들의 업무신장과 권익신장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진행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의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공동체의식을 다같이 발휘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특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사업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하오며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1930. 12. 29일생(경남)
-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시공 기술사
- 이화여자 대학교 건설과 근무
- 수도공고 설계담당
- 정진엔지니어링 대표
- 세익종합건축 대표

취임소감



理事 林在植

이번 총회에서 부덕한 이 사람에게 이사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준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반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협회도 19년이라는 년윤이 쌓여 청년기를 맞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들도 고도산업사회로의 변혁에 발맞추어 建築文化暢達에 더욱 정진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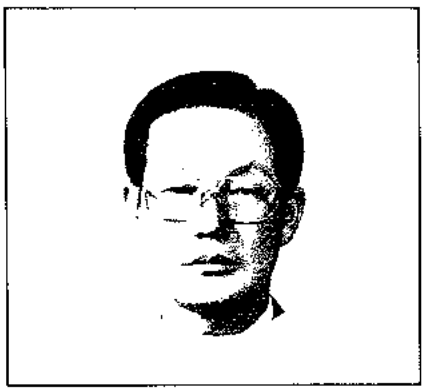
더욱이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적 대전을 앞두고 우리들 건축인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책무는 더욱 막중하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24여 회원 모두는그 어느 때 보다도 서로 이해와 협조로 굳건히 단합하여 우리가 현재 않고 있는 갖가지 난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은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에 회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조록 회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1937. 2. 20일생(全南)
-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 금성종합설계공사 대표
-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시정 자문위원회 위원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전라남도지역개발협의회 위원
- 대한한건축사협회 전남도지부장



監事 柳根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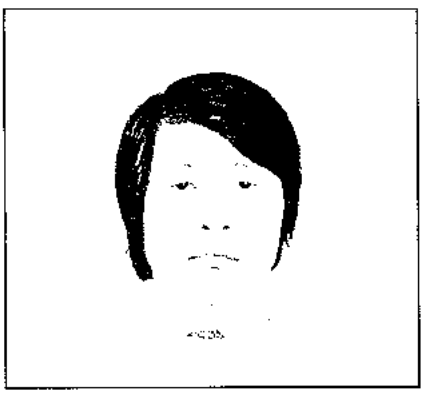
淺學非才한 사람이 監事의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짐을 금할길이 없읍니다. 우리 협회가 창립된지 벌써 성년 20년을 눈앞에 두고있읍니다.

그동안 선배회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보아왔고 또한 성장을 거듭해 온 사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아직도 우리 회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고 봅니다. 간혹 회원들 사이에 오고가는 말중에서 협회가 회원들로 부터 많은 회비만 받아갔지 회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느냐는 말을 듣는 일이 있읍니다.

물로 단편적으로 명쾌한 답을 주기는 어려웁지만 그동안 우리가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풍처살아 왔기에 오늘이 있고 또한 밝은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신임회장이 협회운영에 밝으신 분이고 해박함은 물론 뚜렷한 소신을 가지신 분이기에 나 또한 新執行部에 거는 기대 더더욱 큽니다.

본인은 그동안 지방에서 지부장을 한 경험이 있어 우리 회원이 협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비록 미력한 힘이 될지 모르나 회원의 입장에서서 충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바이며 회원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1936. 8. 8일생(대전)
- 대전공업고등학교 건축과졸업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졸업
- 대전시청 근무
- 유근열 건축연구소 개설
- 본협회 충남지부장역임



監事 李康植

1년전 졸업하는 기분으로 감사직을 퇴임하였었읍니다.

금번 총회에서 두분감사님들이 그만두시게 되어 보다 유능하신 분들이 계신데에도 미력한 제가 다시 한분의 잔여임기를 맡아보게 되어 송구하기 짝이없읍니다.

사무실 운영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사양하고 싶었읍니다만 개인보다 대의를 위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저 하오니 많은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회원은 같은 배를 타고가는 동료이고 우리 협회는 20년이라는세월이 걸려 건조된 배로 머나먼 목적지를 향하여 운항되는 배에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항하다 보면 폭풍우도 만나며 커다란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현시점은 커다란 파도를 타며 개조하여가는 배에탄 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파도에 밀려 떨어진 동료도 끌어올려야 하며 파도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여객선으로 만들기 위해 수선도 하여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 목적지는 커녕 난파의 우려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이상 목적지는 한곳 밖에 없으며 운명도 이 배와 함께일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젔는다면 더 많은 힘이 들 것이며 지쳐갈 것입니다.

자 침실도 안락하게 만들고 식당도 만들며 청소도 하고 해상수영장도 만들어 호화여객선으로 순풍에 돛을달고 희망의 나라로 향하는 보람을 찾도록 하지 않으시겠읍니까?

- 1938. 4. 28일생 경기도
- 한양대학교공대 건축공학과 졸
- 1급건축사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역임
- 주식회사 완종합건축 대표이사(현)

金枝泰會長 離任辞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본인이 2년전 제17회 定期總會에서 本協會 會長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그동안 협회발전에 이바지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제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 보았읍니다만 여의치 못한 주변여건 등으로 마무리짓지 못한 일들을 남겨 놓은채 이렇게 아쉬움 속에 離任人事를 드리게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명실공히 우리 협회를 우리나라 건축계를 주도해가는 단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들의 숙원사업이던 새 會館의 준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으며 建築硏究委員會의 활성화에 따른 연구결과의 보급으로 회원업무 개선을 꾀하였고 国際交流를 적극추진하여 해외선진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공식관계수립 및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며 특히, 회원 여러분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대의 관심사였던 建築士法改正(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차게 채택되어 국회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就任辞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하나로 밝힌바 있는 지역별 자율적체제인 聯合會制度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제와 그 맥락이 연관됨으로 해서 다소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됨에 따라 비록 그 실현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성취시키기 어렵다고 보며 전회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깊은 관심과 여건속에서만이 비로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을 회고해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重疊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고 심각하기조차 했던 시기였으며 그러한 속에서도 본인이 큰 과오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이해 속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新任會長을 정점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우애와 신의속에 공동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이 離任人事를 드리면서 이렇듯 마음 든든히 생각하는 것은 저를 이어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신 훌륭한 신임회장님을 모시게되어 본인이 재임기간중 다하지 못했던 일들을 훌륭히 마무리해 주실 것은 물론 우리를 위한 더많은 일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본인이 재임하는 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신임회장님께서도보다 많은 업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와 격려를 쏟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2년동안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선 紙面을 통하여 離任人事를 대신합니다.

1984. 11. 16.

개회식장에서 옵서버로 등록을 마치고 좌석에 앉아 개회선언을 경청하고 있는 김지태 대표단장. (좌에서 두번째. 좌측이필자)

特 輯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 참가

1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金 知 德

惟新設計公団建築設計代表

필자소개

한양공대 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대학원 1년수료.
미공군대학 건축공학과 대학원 1년수료.
미국통신설 공병단 설계실 건축기로 근무
국제 엔지니어링(주)·건축사로 근무.
(주)삼화설계공단 대표 건축사로 근무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 (1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가 열렸다. 20개국에서 5000여명의 아시아 건축사들로 성황을 이루었던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金枝泰 본회 회장을 대표단장으로 한 金知德(惟新設計公団 建築設計代表), 朴奎永(오성합동건축연구소), 金昌瑞(협화건축설계사무소) 회원등 총19명의 대표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우리나라 건축분야의 어느 기구도 아직 이 회의에 정식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정식가입의 길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등 그 성과는 실로 눈부셨다. 다음은 시종 金枝泰 회장을 보필하며 한국대표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던 金知德 대표의 제1회 아시아건축사회의 참가보고記이다.

ARCASIA와 그 設立目的

ARCASIA란 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의 약어로서 아시아 건축사 지역이사회라는 뜻이다. 그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지역 각 국가의 건축사협회를 통한 단합과 우의 증진, 기술증진, 예술문화의 발전, 건축교육 및 자연과학분야의 협조·유대관계를 키워나간다.

둘째, 각 회원국 협회를 통한 전문적인 관계유지, 상호 국가·협회간의 협력 및 협력증진을 도모한다.

세째, 국제간 국가적 차원에서 각국 회원국 협회의 건축사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하고 대표한다.

네째, 자기가 처해있는 자국의 사회적인 건축사 역할의 인식 증진에 전력을 다한다.

다섯째, 각국가 사회에서 활동중인 건축사의 자질개발 및 그 교육발전을 장려한다.

여섯째, 생활공간의 환경연구 및 건축기술 증진을

개회식 후 ARCASIA회의 주역들과 함께. 좌로부터 김창서 대표, 김지덕대표, U A P맨도사회장, 스리랑카 마티티아회장(ARCASIA회장)

도모한다.

설립목적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미 ARCASIA는 10여개 아시아 국가와 2개국 참관국가들의 건축사협회 결속단체로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ARCASIA의 구성국가들은 제각기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 회원국 건축사 대표들은 자기들의 전문적 기술을 통하여, 자기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문가적 관심사나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건축사의 정확한 문제들의 해답을 서로 교환하며 공동관심사에 대한 해답을 주고 받는다. 이들 회원국들은 또 연례적으로 매년 만나고 있으며 자기들 나라의 관심사들을 서로 질의하며 협의하고 있다.

ARCASIA의 창설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80년 타일랜드 방콕 회의에서의 결의에 따라 이미 정기적으로 연중회합을 가져 회수가 5회에 접어들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 속해있는 한국은 아직 이 회합에 정식으로 가입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ARCASIA가 주최한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식 대표단의 파견의사를 표명했으며, 정부로부터 정회원국으로의 가입재가가 나는대로 공식적으로 가입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이번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는 ARCASIA 본부와 필리핀 건축사협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UIA (The Union Internationaldes Architects) 제4지구 참관으로 더욱 그 빛을 냈다. 제2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는 1986년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풀 건축사협회 주최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년 理事會는 인디아 건축사협회에서 주관, 1985년 1월 첫 주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참관 경험으로 보아 제2회 아시아 건축사대회도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1회 아시아건축사회의 의의

각국 建築士들이 관계하고 활동하고 있는 地域들은 현대 과학기술과 건축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개척 학문분야의 확대와 그것으로 인해 잉태되는 여러 문제점들 사이에서 건축사들 또한 자기 분야에서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건축사들은 자국의 지역적 특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식민지 영향의 껍질을 벗고자 하는 와중에서 심각한 고민거리들로 궁지에 직면하여 있다. 뿐만 아니라 중복적으로 환경개발이나 그 진행의 필연성, 혹은 또 현대과학이나 기술도입의 필연성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아시아 지역 건축사들은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또 다른 연쇄적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기도하다. 즉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후진국이거나 개발도상 국가들로서, 그들은 세계적인 차관 단체나 공업선진국이 자기들 나라 취향에 따라 맞추는 초점과 규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요구항목들이나 개발국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우선 선진산업국의 경제정책 전략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방적 경제원조나 차관조건에 의존해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의 사이에서 대립을 빚어내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더욱이 아시아는 각양각색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와 사회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건축 전문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표준공식을 제정하기에는 무척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각국의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여기에는 아시아 국가간의 문화와 유산을 연결시키려는 공통열망의 이해를 통한 어떤 필연의 요구사항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건축사 이사회, UIA 제4지역 건축사협회 건축사 대표들, 그리고 UAP 연합 건축사 대표들에 의하여 결성되고 주관된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 회의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 건축사들이 아시아 지역의 공동문제와 요구사항들을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드문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생각된다.

이번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업자 아시아 건축사들의 지역적 문제들과 전략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론장을 제공한다.

2. 경제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재건에 노력을 기울이는 건축사 역할을 강화한다.

3. 지역 및 국가간의 합리적이고 협동적인 조직으로 다양한 활동상황을 통일시킨다.

4. 아시아 국가 전문 건축사끼리의 훌륭한 건축기술이나 훌륭한 설계안의 교환기회를 제공한다.

5. 아시아 건축사 모두에게 이미 연관된 상호 공동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화합의 정신과 협조의 마음과 단합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제의 제기의 기회를 마련한다.

6. 각국 지역내 동일직업인 건축사 끼리의 친숙한 우의증진을 도모한다.

論題요약

아시아 건축사 특성에 대한 ARCASIA 공개토론회 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론했다. 여기 그 사항을 요약해서 옮긴다.

첫째 논제

아시아 건축설계사 주체성에 대한 공개토론

일본 대표 나가시마 고이찌氏가 발표했다.

선진국으로부터 아시아 문화로 전달되는 부적합한 기술을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각 국가 건축기술에 어떻게 조화시키고, 외적인 문물의 조화를 고유문화와 어떻게 합치해야 하는가의 이해, 감상 및 그 특성에 대한 여러 문제해결점의 제시가 그 주요내용이었다. (앞으로 본지에 소개할 예정임)

둘째 논제

최신건축기술의 혁신 및 그 이용

싱가폴 건축사협회의 타이 켕 순氏가 발표했다.

선진국 문명이 아시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가 동양철학에 도전하는지? 동양 본연의 창조성과 잘 조화되는지? 새로운 선진기술의 자료와, 새로운 기술을 아시아에서 이용해야할 그 기술의 확산전략.

세째 논제

아시아국가들이 처해있는 상황하에서의 건축사 역할.

파키스탄의 야스민 라리씨가 발표했다.

건축사 역할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일반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전 프로젝트를 전문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의 건축사 역할은 어떤 것인가? 역사적으로 건축사는 어떤 역할로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미칠 것인가? (본지에 게제예정)

네째 논제

건축사 훈련 및 그 관련 교육과정

홍콩대표로 참석한 에릭 리 교수가 발표했다.

필리핀 여성 건축사들이 초대한 (우정의 밤 초대회식)에 참석하고 난 뒤의 기념촬영

현행 아시아 지역 건축사에 대한 교육 음미. 그 교육은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재지도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할 것인지? 사회경제와 문화의 변화에 이바지하는 급속한 기술진전에 부응해야 하는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교육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업무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지? 등의 교육문제가 다루어졌다.

다섯째 논제

정부와 건축가

파키스탄 건축사협회 회원 찰스 엠 코레아씨아 발표했다.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데 건축사를 인식해야 한다. 정부개발의 목표·정책을 조직화 하고 수행하는데 건축사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의 개발은 정부 혼자서는 안되고 반드시 건축사의 강력한 참여와 조언이 있어야하며 그 역할에 대한 필연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사는 국민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힘차게 해야한다. 국제적 차관으로 진행되는 정부 차관사업 등에도 건축사의 강력한 참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주제를 이루고 있는 논제.

여섯째 논제

국제용역설계단의 윤리규범 채택

필리핀 건축사협회 회장 만도사氏가 발표했다.

외국의 원조를 받아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절대로 필요한 건축사 규율의 적용에 대한 규정적용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선포가 주제를 이루고 있으며 ARCASIA가 이 선포와 같은 것을 채택하여야 할 그 절박한 필연적 내용이 부각되어 있었다.

제 1 회 아시아 건축사회의 참가의의

첫번 아시아 등록 建築士들의 모임으로서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협회들이 참석할 뿐 아니라 우리 建築士協會에도 참가요청을 해왔으므로 이를 수락, 金枝泰 大韓建築士協會 會長과 함께 회원 19명이 참석하였다.

필자는 이번 모임의 공식명칭이 제 1 회 아시아 건축사회의라는데 큰 매력을 느꼈으며 그 회의 論題가 또한 흥미로워 참석의의는 크다고 보았었다. 또한 필자는 ARCASIA라는 단체가, 아시아 국가 건축사협회가 주동이 되어 상당히 친밀한 건축활동토론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어 더욱 참가의의는 클 것으로 보았다.

참석결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建築士 활동의 제반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주위 아시아 국가 건축사협회의 활동탐지, 그들의 활동목표 認知, 건축기술의 상호교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 활동이 우물안 개구리 식이라기 보다는 보다 폭넓게, 대한민국의 건축설계분야, 즉 한국민족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찬란한 공간창조문화에 서구문명이 갖고 있는 새로운 현대건축기술을 도입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면과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필자가 얻은 결론은 설득력이 큰 것이라고 믿는다.

ARCASIA의 역사

ARCASIA의 역사를 따지자면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67년 환경설계전문지역중심회의(CAA :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가 뉴델리에서 열렸는데, 이 뉴델리會議기간에 아시아의 6개국 건축사협회 단체를 통합한 것이 ARCASIA의 胎動이었다. 즉 이 통합단체가 환경·기술증진센타(CETA) 및 ARCASIA 창설위원회의 設立母胎가 되었던 것이다.

1970년 9월 창설위원회는 CAA 아시아 지역 각국가 건축사협회 기관과 협의하에 ARCASIA의 장래 총회명칭을 공식적으로 ARCASIA로 호칭하기로 했다.

1970년 인도네시아의 IAI(IKATAN ARSITEK INDONESIA)가 싱가폴 ARCASIA 제2차 창설위원

우정의 밤 행사에 초청받아 필리핀의 향토음식점에 모인 각국대표들

회의에 참관국가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은 한편 1972년에는 필리핀 건축사협회 UAP(United Architects of the Philippines)와 태국 건축사협회가 똑같이 제3차 創設委員會에 참관국으로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오늘날 ARCASIA의 많은 회원국 단체들은, 국제건축사협회(UIA)와 건축사들의 합동모임(CAA)에 소속된 단체들이다. UIA는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단체로 UNESCO에 절대 필요한 기구이고 CAA는 일반 의미론적 법률적 교육적 배경을 갖춘 단체와의 전문적 유대관계 제공·유지를 위해 창설된 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광대한 인간의 생활과 전문적 건축사 활동조건에 대한 안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적극 열망하게 되었고 각국 회원단체와의 관계를 더욱 즉각적이고 더욱 친밀히 해야할 필요의 충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뭏든 1967년 창설위원회의 설립이 있은지 12년만인 1979년, 홍콩에서 ARCASIA의 규약과 ARCASIA의 건축교육위원회(ABAE)에 참석했던 홍콩건축사협회(HIA), 인도건축사협회(IIA), 말레이지아 건축사협회(PAM), 서아미스 건축사협회(ASA), 싱가폴 건축사협회(SIA) 필리핀 건축사협회(UAP)등이 자카르타에서 열릴 창립총회에 참석할 것을 협약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아시아를 위한 지역 건축사 위원회가 정식으로 창설되었으며 그 머리글자를 딴 ARCASIA가 새로운 이사회로 탄생하게 되었다.

사실 이 새 이사회는 아시아 각국에 있는 건축사 협회의 회장이거나 그 대리인들의 모임인 것이다.

1980년 아시아의 10여개 회원국 협회가 이 모임을 승인했고 그 해 8월에는 타일랜드 방콕에서 ARCASIA와 ABAE의 첫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 이래 매년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1981년에는 ARCASIA 연수회의가 마닐라에서 열렸다. 이 연수기간 중, 설계 용역 계약에 관한 국제윤리규정案이 UAP로부터 제안되었고 1983년에는 아시아 10개국 건축사협회 모두가 그 규정을 승인했다.(그러나 우리나라 건축사협회는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채 있었다)

이 윤리규정안은 1981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UIA 회의에서도 거론되었고 동년 CAA 나이로비 총회에서도 거론되었으며, 아시아 단체인 계획·주택에 관한 아세아 협회(Asian Association for Planning and Housing)가 이 규정안을 승인하는 동안 아세아 기술사 연합회와 기술용역 국제연합회에도 정식으로 제안되었다.

1982년에는 홍콩에서 제2차 연수회가 열렸다. 이 연수회에서는 설계자의 책임한계, 각 국가간의 연합설계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홍콩에서 제2차 ARCASIA 회의가 열리고있는 동안 Target 출판사와 홍콩투자 주식회사가 建築科 학생들의 여행장학재단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1천만 홍콩 달러를 헌납해왔고 필리핀 저명 건축가로부터도 5백만 홍콩달러가 헌납되었다. 이 장학기금은 ARCASIA-TARGET로 명명되었으며 오늘날 건축과 학생들이 아시아 내의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작업하는데드는 여행기금으로 활용되어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1981년 홍콩 제2차 ARCASIA 회의에는 처음으로 중공과 자유중국 건축사협회가 참석을 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고 참관협회로 등록해 줄 것을 제의 받게 됨으로써 ARCASIA를 구성하는 조직국가로서의 정식 등록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1982년 1월 콜롬보에서 제3차 ARCASIA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아시아적인 건축물 계획안의 토론이 시작되었으며 이 회의에 모였던 저명한 건축사들, 사색가들은 그 이래 매년 자리를 같이 하면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그 첫번 논제가 〈건축기술의 개혁〉 이었다.

이러는 동안 매년 회원국 협회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공개전시가 열렸고 아시아 건축사 기록책자 발행

이 계속되었다.

1983년 8월26일~28일의 3일간,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열린 제4차 ARCASIA회의에서는, UAP가 ARCASIA 후원하에 1984년 마닐라에서 건축사회의를 주재할 것을 제의받게 되었으며 이 제안은 각국 회원국가들로부터 토론끝에 승인을 얻게 되었다. ARCASIA 자문위원회는 마닐라에서 거행될 아시아 건축사회의의 준비를 적극 돕기로 조직을 강화했고, 제5차 ARCASIA 회의장소도 마닐라로 할 것을 합의했다.

ARCASIA는 또 중공과 자유중국 건축사협회의 입회를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한국의 건축사협회는 이번에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1회 건축사회의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참석을 계기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ARCASIA의 정식회원으로 입회할 뜻을 밝혔으나 참관국으로 등록할 것을 제의받는데 그쳤다. 회의결과 참관국으로서의 승인을 받았지만 그로써 정식회원국으로서의 입회는 자연히 유보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표단 일행은 1985년 봄베이에서 열릴 제6차 ARCASIA 회의를 겨냥, 그때 정식 회원국으로 입회될 수 있도록 각국대표단을 접촉하며 강력한 지지를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제 우리 협회는 건설부 등 관계기관의 최종심의가 끝나 승인받게 되는대로 공식문서로 회원국들에게 지지요청의 문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있다.

제일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에서 토론된 7개의 논제 발표 내용은 후일 본지에 전문을 번역 발표할 예정이며 우선 금번 제1회 건축사 회의의 참석국가 대표단들이 결의하여, 참석 300명 각국 건축사들이 결정, 채택한 결의문 전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건축을 전공하고, 실제 활약중인 전문 아시아 건축사들의 결정 사항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의 전략 최종 결의문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
아시아 건축사들을 위한 전략
1984년10월25일~10월28일
필리핀 마닐라
총사무처의 보고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는 〈아시아 건축가들을 위한 전략〉이란 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 보고된 7種의 論題는, 아시아 지역내에서의 다양한 건축창작표현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 진행되는 모든 분야에, 아시아 건축사들이 필히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금번 회의에, 참석한 건축사 모두는 건축사 활동을 하나의 광대한 우주속의 한 단체의 통합적이고 조화있는 건축활동으로 보았다는 점에 이해를 같이 했다. 따라서 토의는 건축사들의 철학적인 작업에 의한 방식에 초점을 맞췄고 건축사는 구성공간의 창조자로서 작업해야 하며, 그 맡은 바 임무에 알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아시아 독창성에 대한 탐구는 외국 건축형식이나 그 영향, 그리고 선진기술을 자기가 처한 지역의 조건이나 독특한 문화나 생활방식에 적합하도록 창작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건축과 관련하는 선진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기술의 사용과 그 기술개발을 통한 선진기술의 총합요소의 이용을 거쳐서 우리 환경 안에 기능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반적인 구성 안에서, 지역의 다양성, 국가와 지방의 표현의 다양성은 반드시 새로웁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 회의의 결과는 다음의 결의문으로 요약되며 우리는 지금 세계 각 기관에도 이 결의문의 적용을 제안한다.

제1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
필리핀, 마닐라
1984년 10월25일~10월28일
종결의문

1. 본회의는 아시아 지역내의 다양상, 지역특색, 국가특색적인 건축표현에 충분히 인식을 새롭게 했음을 확인한다.

본회의는 아시아 특정 창작공간 구성을 재확인한다.

2. 아시아 건축물 특성의 기본은, 하나의 광대한 단체적 활동아래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부분으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내에 존재함을 확인 한다.

3. 본회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론 등이 아시아 건축 개발의 진행과정에 하나의 도구로 개발·이용되어야 함에 적극 동의한다.

이런 진행과정은 문화창작과 지역특성의 생태학적 사실성의 인식에 의해야만 한다. 이런 진행과정은

4. 건축사는 아시아 사회개발에 투철한 역군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며, 건축사는 그 창작하는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것은 영원한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5. 우리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활동무대의 확장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위한 새 방식의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6. 본회의는 아시아 건축사 지역이사회(ARCAS-IA)에 의해서 가결된 용역단의 국제윤리규약을 정식 채택한다.

7. 건축사가 사회 내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위해 금번 회의시 채택된 기술용역단의 국제윤리규약의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본회의는 UIA와 모든 세계적 제개발국가에게 차관을 공여하는 기관과 각국의 정부에게 이 윤리규정의 적용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것이다. (범례참조)

제1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
필리핀 마닐라.
1984년 10월 25일~10월28일
결의문 1

14개의 아시아 전문 기관을 대표한 제1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가 1984년 10월 25일에서 28일까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렸다. 특히, 개발 도상 국가를 위시한 모든 국가들의 사회, 경제,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건축사들의 역할을 토의하고, 1981년 아시아 지역 건축사 협회에서 제정, 채택한 바 있는 이러한 강령은 윤리 규범의 최고의 기준과 탁월한 전문 활동에 이르러 필요한 과학적·기술적인 협조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국가나 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건축사들에게 적용하도록 필수적인 도구로 마련된 콘설팅 써비스에 대한 국제 윤리 강령을 검토한 후 우리는 콘설팅 서비스에 대한 국제 윤리 강령을 정식으로 채택하였음을 결의한다. 그리고, 그들 자국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회의를 대표한 다른 협회의 비준을 위해 본 콘설팅 써비스에 대한 국제 윤리 강령을 제출하며 1985년 1월 에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릴 국제 건축사 연합회에 최종적으로 채택되도록 본 강령을 제출함을 결의한다.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 의장
마뉴엘 티 마노사 2세
사무국장
페립 엠 멘도사
결의문 2

1984年 10月 24日에서 28일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14개 전문 협회를 대

폐회식에 참석하여 女姓 건축사들과 함께 회장단의 연설을 듣고있는 대표.

표한 제1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는 아래 사항을 승인한다.

1.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유엔 헌장.

a. 제1조

각 국가는 외부 간섭이나 어떠한 형태에서의 강압 또는 위협이 없이, 그들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체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경제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주권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b. 제7조

각 국가는 그들 국민들의 경제·사회 문화 개발을 장려할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 결과로, 각국은 그들의 자원 및 능력을 충분히 동원하고 사용하며, 발전적인 경제·사회개혁을 반영시키고, 개발의 과정과 이익에 그들 모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발의 방법과 목표를 선택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동원과 사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인적·집단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c. 제13조

1) 각국가는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가속화를 위해서 과학과 기술의 향상과 발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국가들은 특히 기술의 소유자, 공급자 그리고 수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이익의 존중과 더불어 국제 과학 및 기술의 협력과 기술의 이전을 장려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국가는 그들의 경제와 필요에 알맞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한 현대 과학과 기술의 달성을 위해 개발 도상국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제의 확장과 변혁을 돕도록 그들의 과학·기술의 기구와 과학연구, 기술 활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 강화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들과 협조해야 한다.

4) 모든 국가들은 개발 도상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술의 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지침과 규정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탐구에 협조해야 한다.

2. 1978년 9월 12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개발도상국들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된 브에노스 아이레스 활동 계획으로 부터 〈추천 31〉은 개발 도상국의 역량의 극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설계, 공식화 및 실시하는데 있어 국제 개발 노력의 지원과 관련된 정부와 개발도상국의 요구로 정부간 그리고 다른 기구들은 지역 기술과 콘설팅 회사들을 포함한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최대로 사용해야 한다.

3. 정부의 의무는 그들 과학자와 기술자를 위한 자극과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자립국가의 과학·기술·건축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나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4. 자국의 국가 개발과 환경 창출에 있어서의 건축사의 책임은 문화적 욕구와 국민 가치의 시스템, 자국 경제 관련으로 표현된다.

5. 돈을 빌려주는 세계 기관들과 개발 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선진국가들의 숭고한 목적은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그들의 차관들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며 재정지원된 프로젝트들이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의 관심을 증대시키도록 개발 도상국들을 돕는데 있다.

a). 본 회의는 그들의 경제 구조와 개발 목표, 국가적·지역적 기술과 콘설팅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자립의 노력을 선택하기 위한 주권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b) 만약 외국 차관으로 재정 지원된 프로젝트를 취급할 자격있는 국가나 지역 건축사나 직업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콘설턴트로서 우선권을 주도록 협정서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역 건축사나 직업인의 권리를 인

폐회식때 김자태 대표단장이 단상에 앉았다(옆은 일본건축사 나까지마씨)

정하기 위하여,

c) 주 직업인은 차관을 받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고, 랜딩 인스티투션이나 차관제공국가는 차관이 적절히 취급되며 그 프로젝트가 협정서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나 지역 전문인들의 일을 감독하고 검토하는 기술고문만을 제공하는 것을 명기하도록,

국제 통화기금, 아시아 개발은행, 차관을 제공하는 국가들의 원수, 차관을 받는 국가들의 원수에게 차관의 협정과 조건들을 재검토하도록 호소할 것을 결의한다.

본 회의는 이 결의문의 사본을 돈을 빌려 주는 모든 세계 기관과 차관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들의 원수, 차관을 받는 국가들의 원수들에게 보낼 것을 결의한다.

한국대표단

대표단장
金枝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수석대표
金知德 유신설계공단 건축설계대표
朴奎永 오성합동건축연구소
金昌瑞 협화건축설계사무소

옵서버
洪貞吉 미건사합동건축사무소
洪永培 관동건축설계사무소
金希洙 현신건축
金正治 부영종합건축설계
金宗根 범아건축
李榮一 삼송·상지건축연구소
李泳萬 동승건축연구소
李泰洙 수명사건축
吳洙福 수복건축설계사무소
吳文煥 오진건축연구소
羅殷澤 세원건축연구소
禹達亨 강서건축
柳根洌 류근열·정인협건축연구소
윤명재 부천건축
尹榮在 종합건축설계사무소

제 1 회 아시아 건축사회의 참가국

참가국수 : 20개국
참가건축가 수 : 500명 아시아 등록 건축사

참가국 명 :
1. 싱가폴 건축가협회
2. 말레이시아 건축가협회
3. 필리핀 연합 건축사협회
4. 인디아 연합건축사협회
5. 스리랑카 연합건축사협회
6. 방글라데시 연합건축사 협회
7. 파키스탄 건축사협회
8. 일본 건축사협회
9. 홍콩 건축가협회
10. 타일랜드 건축사협회
11. 대한민국 등록 건축사협회
12. 호주 건축사협회
13. 에집트 건축사협회
14.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15. 중화인민 공화국(중국) 건축사협회
16. 피지 건축사협회
17. 베트남 건축사협회
18. 대만 건축사협회
19. 통골리아 건축사협회
20. 브르네이 건축사협회

회 의 일 정 표

회 의 기 간 : 1984년 10월 25일(목) – 1984년 10월 29일(월)
회 의 장 소 : 필리핀 마닐라 국제회의장

첫째날행사 : 1984년 10월 25일(목)

AM : 08 : 00~PM : 12 : 00	참가대표단 등록
PM : 13 : 00~PM : 16 : 00	ARCASIA 총회및 ABAE회의
PM : 12 : 00~PM : 14 : 00	건축법규 제정위원회 회의
	제 1 회 아시아 건축사회의 개막식 및 축제

둘째날행사 : 1984년 10월 26일(금)

AM : 09 : 00~AM : 11 : 00	제목 : 아시아건축가 주체성에 대한 ARCASIA공개토론 회의
AM : 11 : 40~PM : 12 : 30	그룹토론
PM : 12 : 30~PM : 1 : 00	본회의 첫째 주제결론 채택회의
PM : 3 : 00~5 : 00	둘째 주제 본회의
	제목 : 최신건축 기술의 혁신 및 그 이용과 건축사 훈련및 관련 교육 과정회의
PM : 5 : 30~6 : 30	그룹 토론회의
PM : 6 : 30~7 : 00	둘째 주제토론 결론 채택회의
PM : 8 : 30~11 : 00	필리핀 건축사협회 초청 우정 및 친목의 밤
	장소 : 피에스타섬 피에스타 광장

세째날행사 : 1984년 10월 27일(토)

AM : 09 : 00~11 : 00	세째주제 본회의
	제목 : 아시아국가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건축가 역할(정부와 건축가와의 관계)
AM : 11 : 45~12 : 00	그룹 토의및 세째토론에 대한 결론 채택
	넷째 본회의 제목 : 컨설턴트 용역에 대한 국제적인 윤리규정
PM : 4 : 00~6 : 30	그룹토의 및 넷째 본회의 논제에 대한 최종결론 채택
PM : 6 : 30~7 : 40	위원회의 종합결론 채택협회
PM : 8 : 30~11 : 30	필리핀지역 건축사 합동초청 우정의 밤 행사 초대

넷 째 날 : 1984년 10월 28일(일)

AM : 8 : 00~12 : 00	필리핀 건축물 관광 및 ARCASIA회의 UIA 제 4 지역회의
AM : 12 : 00~2 : 00	위원회 최종 정책채택 논의
PM : 2 : 00~5 : 00	ARCASIA회의 및 UIA 제 4 지역 회의
	본 회의 전략 정책 최종 협의대안 작성 제 1 회 아시아 건축가 회의 폐막식 거행
	장소 : MANILA HOTEL BAR ROOM

다 섯 째 날 : 1984년 10월 29일(월)

○ 각국파견 건축사 대표단 LEYTE섬 관광 초청
○ 이멜다 여사 출생지 및 LEYTE섬 관광지 관광 여행
○ (초청자 : 주지사 및 지방 지역 건축사 협회)

제1회 아시아建築士會議에 다녀와서

일 시 : 1984년11월15일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자 : 김지태 (본협회 전임회장)
김정철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김지덕 ((주)유신설계공단)
김창서 (협화건축설계사무소)
박규영 (오성건축연구소)
홍정길 (미건사합동)
오문환 (오진건축연구소)
나은택 (세원건축연구소)
사 회 : 김 린 (가전건축연구소)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1회 아시아건축사회의에 다녀온 한국 대표들은, 격동하는 세계의 맥을 타고 아시아지역 건축사들이 활동영역을 세계로 넓히며 권익신장을 꾀하는 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이구 동성으로 자문한다. 國際化時代의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딛는 감회에 앞서 터져나오는 自責과 反省,—— 그것은 어쩌면 세계로 향하는 창을 열고 감격과 흥분으로 심호흡하는 미지의 大氣처럼 신선하다.

사 회 : 지난 10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제1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신 여러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였읍니다만 참가 의의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먼저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셨던 김지태 회장님께서 본대회의 참가 배경과 이와 같은 국제행사에 어떻게 대처하여야할지 그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 먼저 배경설명을 하자면 82년도 2월에 구윤회 前회장님하고 동남아를 순방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 협회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읍니다만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세계에 국위선양을 할 방도는 없을까, 또 아울러 우리도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서 커야 할때인데 우리와 손잡을만한 세계적인 유관기구는 없을까,이런 뜻에서 동남아 순방을 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돌아오는 길에 일본 건축사연합회를 방문했는데 느낀 것은 아니할 말로 '우리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구나'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네들의 국제적인 활약범위라든지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라든지 격동하는 세계의 맥을 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번 아카시아(ARCASIA)가 UIA 제4지구 회의 참석국가들과 UAP회원국 등등을 묶어서 동남아 건축사들의 단결을 시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읍니다.

이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lst Congress of Architects)에 관해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아시아 건축사회의〉는 〈아시아 건축사지역 이사회〉 즉 ARCASIA(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의 협의체로서 격년제로 회원국의 윤번주최에 의하여 열립니다.

아카시아는 1967년 환경설계전문지역 중심회의(CAA :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가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동안 그 회의에서 아시아 6개국 건축사협회 단체를 통합함으로써 태동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이 통합체가 아카시아 창설위원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1970년 9월, 창설위원회는 CAA의 아시아지역 건축사협회 기관과 협의하여 장래 기관의 공식명칭을 아카시아라고 호칭하기로 결정했읍니다. 1970년에 창설위원회는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IAI를 창설위원회 참관국으로 가입시켰고 1972년에는 필리핀 건축사협회와 타일랜드 건축사협회를 창설위원회 참관국으로 가입시켰읍니다. 1979년, 아카시아의 창설위원회가 설립된지 12년만에, 홍콩에서 열렸던 아카시아 규약제정작업과 아카시아의 건축교육위원회(ABAE)에 참여했던 홍콩건축사협회, 인도건축사협회, 말레이지아건축

"그네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 에서 어깨를 겨루고 나가기가 힘들지 않을까하는 반성을…"

사협회, 타일랜드건축사협회, 싱가폴건축사협회, 필리핀건축사협회 등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참여하였읍니다. 이같은 경로를 통해서 아시아를 위한 건축사 지역 이사회가 정식으로 창설되었으며 그 머리 글자를 딴 ARCASIA가 새로운 이사회로 탄생하게 되었읍니다.

1980년, 아시아의 10여개국 협회가 이 모임을 승인했고 그해 8월 방콕에서 아카시아 첫 회의가 열렸읍니다. 아카시아 제2차 회의는 홍콩에서 열렸으며 이 때 중공의 건축사협회와 자유중국의 건축사협회가 참관국협회로 등록했읍니다. 제3차 아카시아 회의는 1982년 1월 콜롬보에서 열렸고, 1983년 8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열린 제4차 아카시아 회의에서는, 필리핀 건축사협회가 아카시아 후원아래 1984년 마닐라에서 제1회 건축사회의를 주최하도록 제의받아 각 회원국 협회로부터 승인을 얻었읍니다. 이 회의에서 제5차 아카시아 회의장소가 마닐라로 합의됐고 중공건축사협회와 자유중국 건축사협회의 입회가 정식으로 승인되었읍니다.

이번 아카시아의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는 건설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 22명(건축사협회 19명 건축가협회 3명)이라는 인원이 대거 참여했었읍니다.

이번 회의에는 UIA 제4지구 회원국으로 북한이 가입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력을 과시할겸 실리추구도 할겸 준비를 단단히 했었지만 참석은 하지 않았읍니다.

이번 회의 참석은, 우리가 앞으로 회원국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처하여야할 문제도 있겠고 해서 서베이를 겸해 갔었다는 면으로 의의를 찾아야 할 것 같읍니다.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사협회는 물론 가협회도 마찬가지겠읍니다만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네들하고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겨루고 나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해 보았읍니다.

우리 사협회는 내년 11월에 열리는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회원국 단체로 승인이 되도록 상당히 얘기가 깊이 들어가 있어 정식 회원국 자격을 가지게 될것이 낙관되고 있읍니다. 85년11월에는 아카시아 이사회에 우리 측이 참가해야 될 것입니다.

사 회 :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공 필리핀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건축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이런 국제행사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젠 우리 협회에도 내년부터 국제협력위원회가 발족되고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 되어 있어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동안 로비활동을 제일 많이 해주신 김지덕 소장께서 회의 참석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덕 : 처음에는 참 따분했읍니다. 우리 대표단이 옵서버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갔었읍니다만 우리 대표가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고 발언도 할 수 없는 처지였읍니다. 이런 분위기는 얼마 안가서 해소 되었지만 처음엔 정말 곤욕스러웠읍니다. 거기 모인 14개 회원국 대표들은 서로 퍽 친밀하게 지내는 듯이 보였읍니다. 자기나라 경제개발상의 문제점들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으며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가 하면 건축사라는 입장으로 서로 감싸주고 두둔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읍니다. 그 분위기가 무척 따뜻하고 정다웁더군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회의 마지막에 작성된 결의문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꼭 참석하여야 되겠구나 하는것을 느꼈읍니다. 아시아지역의 각국 건축사협회의 단합문제, 기술증진문제, 또 건축문화 예술에 대한 발전과 건축을 하고자하는 건축가들의 평생교육문제, 건축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증진문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 등등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도출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로 회의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읍니다.

사 회 : 이번 회의에서 참석하신 김정철 건축가협회 부회장 께서는 UIA 산하에 있는 한국건축가협회 대표자격으로 아세아 제4지역 회의에도 참석하셨다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필리핀처럼 건축가협회가 있고 건축사협회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가들의 조직이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입하려고 할때 국내 건축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4지역회의를 겸하셨으니까 그쪽 분위기도 느끼신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철 : 이번에 저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는 건축가협회 UIA 4지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협회 회원으로 아카시아 회의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파악코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정확한 정보,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태회장님과 김지덕소장께서 말씀해주셨으므로 생략합니다만 사실 저는 아카시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는 어떤 시점에 와있으며 배경이 어떤지 그런정도의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대로 입수하지 못한채 갔었읍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등을 돌리고 있었던것 같읍니다. 우리 국내문제나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만 해결하다보니 그러한 시점에 서지 않을 수 없었던게 아닌가 반성이 되더군요.

국제적으로 건축가들의 기구라고 할 것같으면 세계적인 기구로 UIA란 기구가 있읍니다. 거기에는 지역마다 그룹이 있어 지역회의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세

"국제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士협회나 家협회나를 염두에 두지말고 우리 나라 건축계를 대표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계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과연 우리가 국제적인 큰 테두리가 있고 그안에 또 다른 지역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았읍니다.

다른 나라는 1원화된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일본, 한국, 필리핀 등 극소수의 나라들은 그나라의 제도에 의해 서로 다른 건축가의 입장에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3단체가 유기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활동을 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루며 일을하고 있읍니다만 필리핀에서는 UAP가 막강한 힘과 조직력을 가지고 건축계를 대표하는데 사실은 UIA의 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지금까지 PIA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4지역 회의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85년 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카이로 UIA총회에 대비한 우리의 4지역 회의의 목적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협조사항을 토의하는 것이 그 첫째였고 그다음은 ACA차원에서 이야기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읍니다.

거기서 질문이 있었는데 PIA가 회원 단체로서 등록 되었는데 왜 UAP가 이회의를 주관하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UIA가 UAP를 인정하는거냐 하지 않는거냐 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읍니다.

결국은 UIA로 볼때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런것을 극복하면서 일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것은 필리핀의 국내문제다. 우리 노타치 합시다. 하는 식으로 분위기는 흐르고 말았읍니다. 마치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때 국제적인 모임에 우리 士협회와 家협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우리에게는 국제행사시 우리를 깎아 내리려하는 북한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의 건축계를 대표한다는 입장으로 상호 협력하여 전력을 가다듬고 단결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필리핀의 PIA와 UAP는 서로 자기단체가 필리핀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만 우리는 어떤 협회단위를 부각시키려고 부심하기 보다는 한국의 건축계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국제사회에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 회 : 필리핀이 영어생활권이기 때문에 행사분위기도 무척 화려했고 우리로서는 미처 예측 못했던 아주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는데 전반적인 회의장 분위기는 어떠했읍니까?

김창서 : 아카시아 회의에는 이렇다할 사전준비없이 갔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인데 가보고서 많은 것을 느꼈읍니다. 제가 영어도 잘 모르다보니 소극적이었읍니다만 영어생활권에 있는 국가들의 회의진행은 우리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다고 느꼈읍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회의를 주최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사 회 : 현재 입회된 나라는 아시아권에서는 14개나라 밖에는 안된다면서요? 이번에 총회는 처음했고 그이전에 이사회를 했다지만 어떻게보면 이 회의가 초창기라고 봐지지요?

김지태 : 아카시아 이사국회의는 5차고 이번 건축사회의는 제1회 입니다. 각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읍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는 각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가지게됨으로써 우리를 알리게 되었고 또 우리 대표단이 제일 많다보니 눈에 띄어 회원국들이 Korea를 찾는 등 (코리아 붐)을 일으키다시피 했었는데 다음대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읍니다.

사 회 : 이번 회의 참여를 계기로 이사국으로서의 가입 까지 논의하고 온 것은 큰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식적으로는 다른 나라 이사국 추천을 받아야 하지는 않습니까?

김지태 : 입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사국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 회 : 북한도 입회가 되어 있읍니까?

김지덕 : 북한은 UIA에 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김지태 : 이번에 북한은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중공과 자유중국은 참석했읍니다.

사 회 : 회의장 밖의 분위기는 어땠읍니까?

박규영 : 건축사협회를 통한 국제적인 행사에는 처음 참가했읍니다. 저는 원래 계획이 그곳에 갔다가 일본에가서 조립주택에 대해 뭘 좀 보고 올까하는 계획을 세웠었읍니다만 일본에 갈생각을 버리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찌나 분위기가 가족같고 따뜻한지 말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士협회가 20년을 맞이하는데 아직도 국제교류에 눈이 어두운것 같습니다. 일본계획도 포기한채 끝까지 참석하여 많은 점을 느끼고 돌아온 것이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 회 :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을 위해 필리핀의 건축계와 그밖에 회의의 목적이 아닌 기타 다른 분위기 같은 것을 말씀해주시죠.

홍정길 : 국제회의에는 이번에 처음참가 했읍니다. 우선 필리핀이란 나라에서 느낀 점은 거리에 도로의 중앙선이나 차선이 쳐져있지 않고 차도 멋대로 다니고 사람도 아

"정식 이사국으로 가입된다면 한국에서의 회의개최는 필연적이므로 국제협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무데서나 자유롭게 타고 내리고 하고 있었는데도 경적소리 한번 소란하게 안들렸고 제가 가있는 동안 교통사고 났다는 소리도 못들었읍니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았는데 무질서중의 질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 거리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읍니다. 또 더운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생활방식이 틀리겠지만 그곳 사람들은 무척 여유가있어 보이는것도 인상적이었읍니다.

사 회 : 만일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보면 회의 진행과 새련된 회의장 분위기조성 같은 것이 필요할텐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철 : 그곳의 사람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순서나 회의내용 등 국제적인 감각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색한점이 전혀 없었읍니다. 또 그곳에는 여성건축가협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그 수는 정확히 알지 못했읍니다만 상당수의 여성건축가들이 활약하고 있어 회의장 분위기 또한 부드러웠읍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대회에 참가해서 많이 익히고 배워서 우리가 개최해야 할 때에는 건축계의 단위로 서로 협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우리대표단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정도 였읍니까?

김지태 : 미국화된것처럼 아주 부드러웠고 만찬회에서도 정식회원국이 아닌데에도 단상에 참석을 권했고 만찬회때 아리랑 음악이 나와서 매우 흐뭇했읍니다.

오문환 : 아리랑 음악도 나왔고 국위선양이 잘 된것 같았읍니다.

옵서버로서 그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은택 : 회의장에 참석하고 나오는 도중 필리핀 어느 건축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한국의 팜플렛을보며 건물의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한국의 건축사에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 정보교환을 하자는 회원국도 있었읍니다.

김정철 : 필리핀이나 기타 그곳 회원국들을 보니까 작품을 하는 사람과, 건축가로서 사교성이 능해 국제행사에만 참석하는 전문인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것 같았읍니다.

우리 건축사협회도 그런점을 감안하여 우리가 가지고있는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분석하면서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읍니다.

사 회 : 회의참석시 통역도 겸하시고 섭외활동도 제일 활발히 해주신 김지덕소장께서 느끼시는 점, 앞으로의 방향제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김지덕 : UIA의 4지역 아카시아회의 성격으로봐서 아카시아단체 만큼은 우리 건축사협회

가 가입됐으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회의 목적부터가 우리 건축사들과 호흡이 맞는다는 점과 이분들이 논제로 다루고 있는 것 하나 하나가 전부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해결해야될 근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었다는 점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루고 있는 논제를 보면 새로운 건축세대의 문제점, 아시아건축가의방향, 건축가의 평생교육문제, 세계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용역기술단과의 상관관계에서 야기되는 윤리문제 등등 이분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도 꼭 문제시되어야할 것들이었읍니다.

박규영 : 거기에 부연한다면 그곳의 건축사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도달해 있는 것이 역력했고 또 매우 의젓한 느낌이 들었읍니다.

우리도 협회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되 총회꾼처럼 능란하게 회의에 대처할 수 있고 영어를 훌륭히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결성하여 전적으로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국위선양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엄선해야 되겠다는 점을 절감했읍니다.

김지태 : 86아시안 게임이나 88올림픽에 대해 그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정식 이사국으로 가입이 된다면 한국에서의 개최문제는 필연적이므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박규영회원의 말씀은 일리가 있읍니다. 영어실력고사라도 치뤄 어느 회원이 영어를 잘한다는 자료라도 마련해 두어야 할 것 같읍니다.

사 회 : 그쪽에서의 건축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했읍니까?

오문환 :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가라면 조금 낮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외국에서의 건축가의 대우라든지 모든 인식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건축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건축사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여는 어떤 것인지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들 스스로가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사 회 :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석하시고 느끼신점, 또 앞으로의 방향모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김지태회장님께서 정리해주시지요.

김지태 : 국제교류를 통한 국위선양은 여러분야에서 가능합니다만 우리 건축사들도 국제대회에 적극 참석하여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홍보용 책자도 교환함으로써 우리 건축사가 대외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에 국제담당부서가 설치되고 또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空間, 큰 線의, 東南亞建築과의 만남

필자는 제1회 아시아건축사회의에 참석하게 된 기회를 이용, 마닐라를 비롯, 싱가폴과 호주까지 다녀왔다. 동남아 건축을 보는 그의 視角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문환 회원은 동남아 건축과의 만남에서 주운 놀라움과 부러움을 생생하고 차분하게 기록하여 기고해 주었다.

필리핀

나자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업을 영위하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바쁜 복잡다난한 업무 속에서 시달림을 받다보면 업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없나하고 찾게된다. 새로운 것을 보고, 자신을 더욱더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을….

〈국제화〉라는 것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시점에, 좀더 넓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나를 포함한 우리 일행, 김지태 회장님을 비롯한 19명이 10월 24일 18시20분에 N.W.A비행기 편으로 필리핀의 마닐라로 향한다.

비행기에 타고나서 우리일행 명단의 신상을 보니 내가 끝에서 두번째 막내다.

나와 종씨인 한 회원이 제일 막내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내가 제일 막내로 통한다. 출발전에도, 비행기를 타고서도 항상 내 귓가에 들리는 이야기, 이번 아시아 건축가 회의에는 북괴의 건축가도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집에서 부터 걱정이, 북괴 대표를 맞대면 했을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내 나름대로 서울 거리의 풍경과, 우리 가족의 사진 등을 준비했는데 끈질기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2시간 이상을 비행해서 비 내리는 마닐라 공항에 내린다.

간단한 입국수속 후에 공항 밖으로 나오니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아, 잠시 시간이 지났는데도 팔이 끈적끈적하다. 대기했던 버스편으로 리젠트호텔의 투윈룸에 서울에서 짝지어진 동숙자와 함께 투숙한다.

우리말로 하여서 동숙자가 코나 안고는 사람이기를 바라며 이국에서의 첫밤을 맞이한다.

10월25일부터 회의 개시이니 아침식사후 마닐라 인터내쇼날 컨벤숀 센터에 도착, 회의 등록을 하러가서 회비 지불하고 회의 일정표와 자료를 받았다.

컨벤숀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을 보니 나자신은 첫 마디가 탄성이다.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 저렇게 여유가 있게 WIDE PLAN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국토면적이 우리 나라와는 비교가 안되게 크니, 감각이 크게 작용 했는지 몰라도 아뭏든 널찍널찍한 공간에

吳文煥
오건건축연구소 대표

필리핀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앞에서

마음대로 계획을 한것 같다.

우리야 국토가 적으니 좁은 토지에 제반 법규를 적용하다보면 건축가의 생각을 100% 불어 넣을 수 없는데…. 회의장 까지 오면서도 차창에 스치는 건물도 풍경은 비슷하다. 회의 등록 후 필리핀의 독립 운동가인 리잘이 묻힌 동상이 있는 공원을 보니 말 이 공원이자 굉장히 크다. 공원 끝까지 가려면 우리의 소집 시간에 늦을것 같다. 리잘의 유품 박물관에 가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이 나라도 스페인에게서 3백년을 넘게 통치를 받고, 또 미국의 통치를 받았었던 나라다.

민족 정신이 투철하고 선구자가 있으면, 민족은 말살할 수 없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오후 5시30분에 개회식에 참석키로 하고 시내의 한국 대사관을 방문, 젊은 영사로 부터 필리핀과 우리 나라의 관계 등에 관한 현황 청취와 따끈한 차 대접을 받는다.

5시 30분을 목표로 회의장에 도착하니 시간이 지나도 시작을 하지 않는다. 미국식으로 모든 것이 된 이나라에서도 시간을 안 지킨다. 1시간여가 지나서 개회가 이루어 졌으리라고 본다. 팡파르가 울리고 시작이다. 주최측에서 제공한 유인물 권두에는 이번 건축가 대회에 마르코스(MARCOS) 대통령과 영부인 이멜다(IMELDA) 여사의 메시지가 눈에 띄고 개회식의 귀빈소개란에는 이멜다 여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정문 출입구에서는 몸 검사들도 했으나 결국 회의종료가 되어도 참가를 하지 않는다. 료

그런데도 건축가 회의에 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회의 진행도 서구 제국의 통치를 받은 나라 이어서 그런지, 여유가 많고 유모어가 풍부한 부드러운 분위기 이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소위 총회꾼들도 참가한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알고 본즉 우리일행은 회원국이 아닌 업서버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참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히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리셉숀이다.

각국 대표단을 회장이 일일이 소개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가 소개 되었다. 소개와 동시에 각국 대표로 부터 열열한 환영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북괴 대표는 우리가 참가를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불참이다.

식사후, 필리핀의 전통 민속무용이 참가자들을 위하여 펼쳐지고, 끝에는 전 단원이 나와 각국의 전통 노래를 불러주고, 우리들을 위하여는 아리랑을 불러준다.

우리도 기립하여 같이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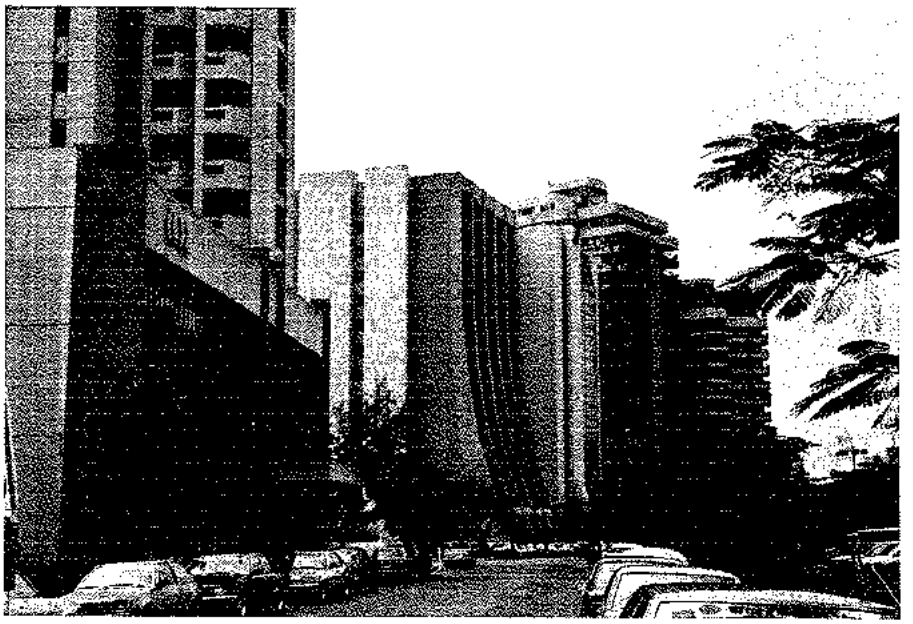
리셉숀이 열리는 곳은 외자만 놓고 않는다면 5천명 정도를 수용한다는 컨벤숀 센터였는데 그 넓은 대 연회장에 아리랑이 메아리쳤다.

해외에 나와 공식적인 슴슴에서 우리의 전통 노래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다. 바로 이런것이 민간외교 이고 국위선양이라고 재삼 확인한다.

그네들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고 상당히 호의적이다.

내가 이곳에 온 보람을 나스스로 만끽하며 이 사람들이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쓴 것이 역력히 들어나며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고난 후 차기에 이 회의를 연다면 우리도 이정도 이상할 수 있을까에 의문표가 내 가슴에 찍힌다.

회의 이야기를 계속 쓰자면 굉장히



필리핀 한국대사관 옆 빌딩가

길어지겠기에 이 정도로 적어보고 나 자신의 직업의식인 건축물 등에 관하여 관심을 다시 또 가져본다.

대규모의 건물이 많은데 그중 에는 화재 등으로 비어있는 건물이 많이 눈에 뜨인다. 우리 같으면 다시 수리하여서 사용할텐데, 아까운 생각이 든다.

건축물 하나 하나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역연하다. 하지만, 거리질서나 거리의 청결, 또는 국민생활 수준을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앞섰다.

대 도로변에 있는 판자집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지도 못한 형편없는 판자집, 아니 비만 피할 수 있도록 해놓은 집과 새로운 건물이 공존한다. 잘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도 못 사는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이 이 나라의 현실로 보인다.

일차 산업품인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하고, 벼 농사를 보더라도, 한 쪽에서는 모내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추수를 하는 3모작 까지도 가능한데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상하다. 게을러서 인지,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었다면 우리도 게을러졌을 런지….

아뭏든 이 나라에 와서는 서울에서 먹기 힘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성 과일을 먹기 싫도록 먹었고, 우리나라가 이 나라 필리핀 보다는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서의 일정을 끝낸 뒤 시끌 시끌하고, 시장바닥같은 군중들을 헤집고 10월27일 5시20분 필리핀 공항편에 몸을 싣는다. 육중한 비행기는 싱가폴을 향해 이륙한다.

싱가포르

저녁 6시40분 싱가폴의 창기 국제공항에 내린다.

여기는 찬란한 불빛이 필리핀 이상이다.

여기도 덥기는 필리핀이나 같다. 우선 공항의 규모가 놀랄정도로 크다. 나 자신이 알기로는 말레이지아에서부터 떨어져서 생긴 우리나라의 150분지 1에 불과한 6백m^2의 조그만 섬나라인데 탑승 출입구만 하더라도 어림잡아 20개는 되는것 같다.

우선 현대식으로 건축되고, 청결하고 정돈됨이 놀랍다.

내려서 입국 수속을 끝내자마자 우리 일행 한 분의 첫 마디가 귀를 자극한다.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면 벌금이 5백 싱가폴달러, 선 내에서 버리면 5천 싱가폴달러(싱가폴 환율은 1미국달러=2.15 싱가폴달러)라고 한다.

나 자신은 담배를 안피우니 해당없는 사항이나 애연가들은 꽁초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할 형편이다.

오늘도 밤에 도착하니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식으로 식사하고 호텔행이다. 해외에서 한식으로 식사하고, 우리 교포를 보고 대화를 하는 것도 국내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다.

호텔에 도착 후 방을 배정받고 종이카드로 된 열쇠를 받았다.

호텔에 투숙하면 열쇠뭉치가 커서 불편한데 휴대하기 편해고 구멍에 밀어 넣으면 열린다.

한국에서도 보았지만 서도 일일이 보관시키고 관리하는 인원을 최소한 한사람쯤은 줄일 수 있는 배려다. 현재까지만 보아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과거로 갔다가 다시 또 10년 앞의 나라를 방문한 것 같다.

말레지아의 조호바르에서 (대안쪽은 싱가포르)

유리를 때리는 빗 소리에 잠을 깨니 부옇게 밝아오는 새벽에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마 밤새 계속 내렸나 보다. 아침이 완전히 되니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개였다.

맑고 깨끗한 새날이다. 다음날 밤에도 똑 같은 날씨다.

숙소 앞에서 출발하는 전용버스 편으로 식물원으로 향한다.

도착하고 보니, 또 느끼는 감정은 조그만 섬나라가 이렇게 큰 공간을 확대해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이 앞선다.

식물원 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거대한 휴식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 같다. 인간의 손길이 많이들어간 공원이라고… 가는 도중에 보이는 거리는 그렇게 깨끗할수가 없다.

식물원 내부도 그렇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나가지 않은 텅비어 있는 거리같이 깨끗하다.

휴지하나, 꽁초하나 볼 수 없는, 오히려 삭막하게 느껴질 정도다. 또,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건너 센토사 섬을 본다.

바다 한 가운데에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도 한개의 개체로 보면 예술성을 가미한 디자인 이다. EXPOSED CONCRETE의 COLUMN 형식이나, 한개의 COLUMN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술성이 있는 조각품으로 보인다.

푸르름이 충만한 동산이며, 해양박물관 전적지로서 보존되어 있는 섬이다. 섬을 돌아 볼 수 있도록 모노레일 시설도 훌륭하며 위락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이 섬에 들어오면, 누적된 스트레스를 완전히 소멸하고, 새로운 기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날에는 양쪽 국가, 말레이지아·싱가폴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 말레이지아의 조호바르라는 국경도시를 갔었다.

오전중에 보는 짧은 시간이라, 출입국 수속에 시간만 버렸지만, 그곳의 건축물의 특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비가 내리면 물에 잠기기 때문에 별것이 없다.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오후 일정에 있는 새 공원 관람도 포기하고, 또 건축을 한다는 직업 의식에서 점심후 일행에서 이탈하여 이곳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로 카메라만 들고 내렸다. 전날에 지나가면서 본 거리의 건물들이 하나 하나가 특색이 있기에 옷도 못 갈아입고 삼복 중 같은 날씨 속을 양복 정장차림으로 거리를 걷는다.

조금 걸어보니 푹푹쪄서 등줄기와 가랭이 사이로 줄줄 땀이 흐른다. 복잡한 거리의 차량의 열기, 건물의 복사열이 합해져 더 더우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더 못참겠다.

그래도, 하나 하나의 건물들, 버티고 서 있는 건물들은 도로를 압도하고, 사람들 까지도 깔아 뭉갤 자세다.

건물은 같은 것은 찾아 볼래야 볼수가 없다. 각기마다 자기 자신뿐이라고 자랑하듯 서 있다. 각개의 개성을 가지고, 산만한 것 같으면서도…듣기로는 행정 당국에서도 같은 형태나 외장의 건물은 심사과정 및 허가과정에서도 인정치를 않는다고 한다.

변화가의 건물은 용도가 대개 숙박시설과 쇼핑센타이다.

우리나라의 미관지구 도로변의 건물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대조적이다.

창기 국제공항만 하더라도 그렇다.

시드니오페라하우스와 빌딩군

조그만 섬에서 아무리 국제 교역의 중심이라고 해도 규모가 대규모다.

이디에다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비근한 예로 바닥 마감재는 자기질 타일의 굉장히 넓은 내부 PLAZA인데 이구석, 저구석에서 보아도 전혀 굴곡 없이 붙여 있어도착시나 출발때도 찬사를 보낼 정도이다.

호 주

캥거루 마크가 선명한 QANTAS항공기 편으로 시드니로 향한다.

나 자신의 지식으로는 입국하기가 힘들다는 곳에 입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밤 동안을 날아 기창으로 대륙이 동트는 것을 바라보며 역시 나라가 큰 나라라고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옆에 동석한 호주의 남측 타스마니아 섬에 산다는 주름진 할머니와 이야기를 해보니 국토 면적은 우리의 남북을 합쳐서 36배, 남한의 국토만 따지면 70배도 넘는 하나의 대륙인데 인구는 고작 1천4백만 정도라니 인구는 우리의 절반도 안된다.

자원도 무진장하다고 한다. 자기가 사는 타스마니아 섬은 본토 남쪽에 붙은 섬으로서 우리나라 보다도 크다.

무지 무지하게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며 왜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는 좀더 선견지명이 없었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후일 국내선인 ANSETT 항공 안내서를 보니 동서길이 3천5백km 남북 3천km 정도의 넓은 토지. 대륙 중앙에 못쓰는 사막도 있지만, 이 넓은 곳, 자원많고 기후 좋은 곳에 우리나라를 만드시지 않았나 하는 꿈을 꾸는 가운데 시드니 공항에 착륙하였다.

자기 네들 방식인지는 몰라도 이번 여행이나 전번에 했던 여행을 포함, 여러번 비행기를 타보는 경험 중에, 착륙후 비행기의 문도 안열고 정지상태에서 원주민의 후손인듯 한 승무원이 좌석의 통로 뒤에서 부터 앞으로 나오며 뿜어대는 소독약을 맡는 경험을 한다.

약이 완전히 가내에 퍼질때까지 기다린 후에 내리기 시작한다.

우리와 전 승객들을 못된 병원균의 매개체로 간주하는 것인지 기분이 과히 좋지 않았다.

입국 수속도 타 공항 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사람씩 확인하고 까다롭다. 수속후 공항 밖으로 나오니 날씨는 찬 바람이 분다. 불과 하루 저녁 날라오니 기후는 급변해서 쌀쌀한 봄날씨이다. 공항으로 부터 2박을 할 숙소에 이르는 거리를 보니 역시 국토가 넓다. 서부 영화에서나 보는것 같은, 개척 단계에 있는 개발의 여지가 많은 땅이라고 느껴진다. 호 텔에 여장을 풀고 시내를 본다. 시드니의 중심가,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피트街를 통과한다.

처음 제임스 쿡 선장이 발견하여 죄수들을 유배시켜 이룩한 나라라는것을 실감하게 하는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다.

시드니 항구 다리 양단의 교대옆 벽에는 사암을 파내고 깎아내 다리를 건설하고 면을 처리하지 않고 요철 상태로 그대로 둔것과, 담장의 조적재인 사암의 표면에 당시 건축에 동원된 죄수들의 싸인도 선명하게 나타나서 무언의 절규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시드니에서 특히 압권인것은 오페라 하우스이다.

우리들은 오페라 하우스를 보기 위하여 이 나라에 온것 같다. 국제선 우

켄버라 "국회의사당"앞

리가 탄 비행기도 오페라 하우스를 옆으로 보며 내렸다.

호주인들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가까이서 보기전 원거리에서 보니 항구 다리와 쉘 구조의 흰색지붕은 유명한 화가나 한장의 명화로 만들어 놓은 그림과 같다.

마침내 가까이에서 보고 CROSS BOAT를 타고 보니 또 다른 색다른 맛이 있다.

지붕도 보니 백색이 아니라 이 건물을 위하여 특별 주문제작된 수입 타일로 마감 처리한 약간 노랑 계통의 색깔이다. 쉘 하나 하나의 곡선과 전체적인 조화의 아름다움을 어휘 구사력이 부족한 내 자신으로서는 표현할 길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말로만 들고 그림에서만 보던 것을 눈 앞에 접해본다.

우리 일행중의 어느분의 이야기인 즉 착상의 힌트는 유럽의 중세기 무사의 투구에서 얻은 것이라는데 수긍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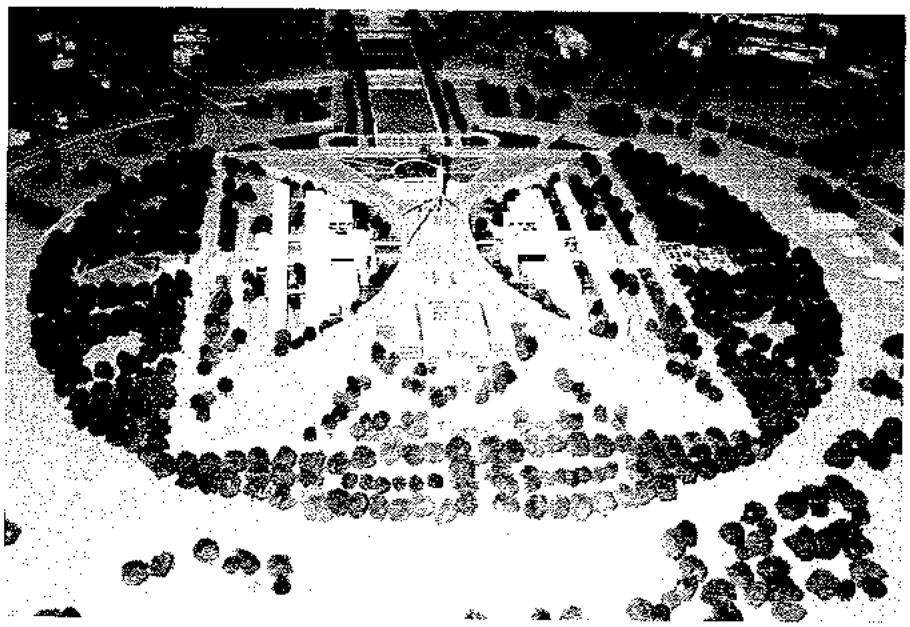
시드니 항구의 푸른물이 있는 연안 바다 사암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1957년 국제 현상설계에 당선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JION의 작품으로서 설계에서 완공까지 19년이 걸렸으며 건축 공사비가 모자라서 지금도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하며, 건축가가 자기의 설계도대로 진행하려는 본연의 자세와, 건축주의 의도를 반영하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맞부딪쳐 국제 건축가 연맹에 제소까지하여 결국은 건축가가 승리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내장은 다른 건축가가 완성한 것으로서 결국 JOHN UTJION은 준공식에는 참석도 하지 않은채 개관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온 설계사라고하니 우리들을 특별히 인솔하여 내부를 보여준다.

내부의 마감에 대해서도 나로서는 그저 계속적인 찬탄일 뿐이다. 대규모 콘크리트 라멘조 쉘 구조인 이 건물내부는 EXPOSED 콘크리트로 처리했고 7천평 대지에 연면적 천5백평으로 건물 길이 183m, 폭 118m이고 건물 높이는 해면에서 67m라고 한다.

인테리어의 주 재료는 자국산 목재이다. 각실과 휴게실, 복도의 벽, 천정도 목재로서 부드러운 목질이 그대로 살려졌고 특히 유리 벽체에도 EXPENSONE JOINT를 넣었으며 계단 핸드 레일과 내부 신주 난간의 각 연결부분 JOINT에도 고무를 충전한 마감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배워야할 점으로 생각되었다.

냉방장치의 냉각수는 바닥에서 끌어 쓰도록 되어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 건물은 특히 석양이 질때 보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긴채 익일 아침 나는 칸베라로 향하는 버스의 승객이되어 광활한 초원을 통과하여 3백km 목적지로 간다. 가도 가도 넓게 펼쳐있는 초원, 얕으막한 산,—— 산이라고 해도 나무만 베어 버리면 바로 목초지나, 건축용지로 쓸 수 있는 평지이다. 가는 도중 노천 석탄 광산이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땅 속으로 몇 백m를 들어가야하는 탄광이 아니라 그저 노천에 두껍게 깔려 있는 석탄을 퍼 담아서 바퀴가 22개나 달린 대형트럭으로 실어 나르면 고만인 노천 탄광이다. 도로 건설 하는데, 노반 조성하는데 까는 돌도 석탄 광산에서 나온 폐석을 사용한다. 우리의 광산실정하고는 천지 차이이다.

역시 축복 받은 나라라는것을 새삼 느낀다. 그런데 가도 가도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경 뿐이고 단편적인 것만 보았는지는 몰라도 작물이나 채소 심은 것을 볼 수가 없는것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국회의사당모형(켄버라)

도 의문이다. 타 지방에서 생산되는지 몰라도 목축과, 광물 생산만으로 국가 재정이 꾸려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칸베라로 향하는 도중 COVLBURN의 한 양목장 패리간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통나무로 지은 넓직한 곳으로 들어서니 홀 가운데 동판으로된 원형 난로에서 장작이 빨깡빛을 내고 탄다.

양몰이 개는 주인의 휘파람 소리로 일사 분란하게 양을 몰아준다. 양털깎은 시범도 보았다. 한 마리에서 털을 깎으면 호주달러로 35달러~40달러가 나온다고 하니 식량도 하고, 수입도 생기고 신선놀음이라는 것을 느끼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행정 수도로서 시드니 보다는 더 조용하고, 더 푸르고 더 깨끗하다. 도착 다음날 오전 일정에 도시계획과 건축물을 보고 오후에는 브리스베인으로 가야하는 꽉찬 스케줄 속에, 마침 그곳 개발성에 근무하는 인도인의 안내로 도시계획과 건축물을 본다.

이곳 도시 중앙엔 대규모의 인공 호수가 있었고,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가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도 계속 개발중이고 건설중이라고 한다.

MUGGA 산정에서 시가지를 내려다 보니 첫 눈에 시원스러운 계획이다. 토지가 넓으니 마음대로 선이 가는대로 칠수 있다고 보여진다. 주변 곳곳에는 개발 유보지를 만들어 인구가 늘어 도시가 팽창할 때에 대비하고 있었다. 팽창인구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형 도시였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조화를 시키고 도시 전체가 푸르름에 쌓여 있다. 주택들은 SYDNEY나 여기나 거의가 단층인데 가끔 이층도 섞여있다. 언뜻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 못 쓰는 땅에 우리 나라 인구 절반, 아니 몇십만명만이라도 이민 온다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지런한 우리 손으로 개발, 낙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사막이라도 좋으니 받아만 준다면 좋겠다.

역시 토지가 넓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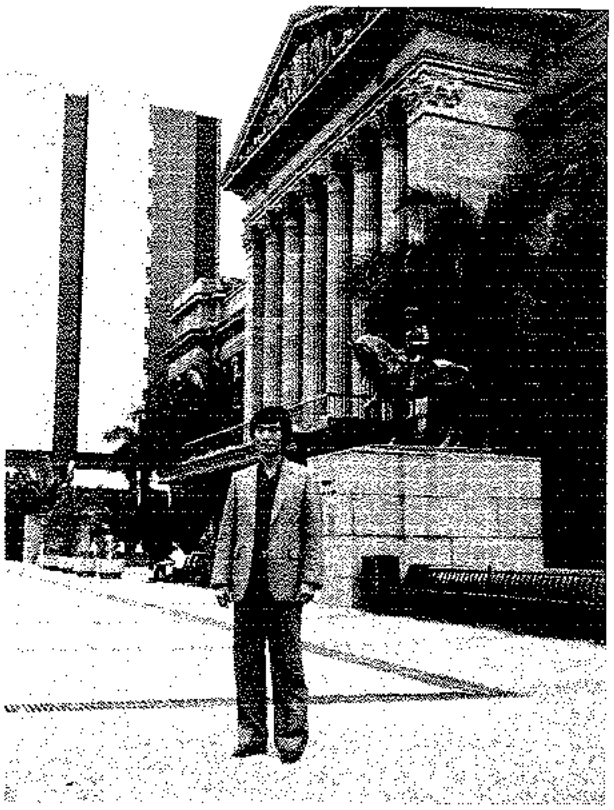
여기 건물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외장도 잘 되었지만 내장이 더 잘 되었다. 우리가 본 인공호수 옆의 고등법원, 미술관만 하더라도 그렇다. 풍부한 목재를 많이 사용했다. 국회 의사당은 지금 한창 건설중에 있다. 여기 호주 스타일 바탕으로 내 외국에 널리 현상공모한 설계도로 짓고 있는 이 국회의 사당은 미국 뉴욕의 건축가의 PLAN인데 설명과 현장을 보던 중 내 가슴을 치는 것이 있다.

우리의 건축가들도 이제는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자질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이런 현상설계에 응모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아직 해외정보에 어두운 것 같다. 설사 당선이 안된다 하더라도 참여를 해서 견문과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픈마음을 누르며 브리스베인으로 가기위하여 시드니로 향한다. 향하는도중 보니 현재 총 인구는 1천4백만명이 살지만 장래를 위하여 지금의 고속도로 옆에다 또 하나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고속도로 풍경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차량끼리 스치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웃어준다.

우리에게는 생활화 되어지지 않아서 인지 좀 어색한 기분이다. 사실은 어색한 것이 비정상인데…….

시드니에 오후에 도착하여 국내선 비행기로 이륙하여 북쪽으로 1시간, 750m를 날아서 위도상 27도 정도인 우리들의 마지막 경유지인, 브리스베

브리스베인 시청앞



인에 도착했다.

이곳은 시드니 보다 더웁다. 우리의 초여름 날씨같으며 시간차도 시드니와 1시간이나 있다. 브리스베인의 공항이 설계가 독특하다. 도착한 사람이 화물을 찾는 곳이 그렇다.

우리와 같은 공항구조가 아니라, 기후가 더운탓도 있겠으나 출입문도 없이 벽을 노출 마감하여 출입문 폭 만큼만, 여러군데를 따서 사람이 출입하는데, 짐만 찾아서 나오면 바로 승차장이다. 짐을 들고 가는 동선이 굉장히 짧은 계획으로 손수레 밀차도 필요없는 구조이다.

금년에는 여름을 몇번 맞이한다. 전용 버스편으로 호텔에 투숙한다. 다음날 아침 식사후 골드코스트로 향한다. 브리스베인은 호주의 6개 주중 퀸스랜드 주의 수도이다.

여기는 저녁에 도착하여 1박하고 식사후 전용버스편으로 골드코스트 로 간다. 바쁜 일정이다. 차창에 비치는 거리를 보며 지나간다. 여기도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중간에 우리의 고적 보존식으로 구식건물이 있다. 특히 우리가 묵은 호텔 앞의 공원과 옆 시청앞 광장의 휴식공간은 우리나라로 몽땅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다. 이름모를 다년생 나무에 만발한 보라색꽃이 인상적이다. 아름다운 도시로 보인다.

가는 도중 동물원의 캥가루 방사장에서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고, 축소판 디즈니랜드를 거쳐 골드코스트의 골든게이트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골드코스트는 브리스베인에서 버스편으로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해변 휴양지로서 백사장 길이가 80m나 된다고 한다. 해변가에 즐비한 고층리조트 호텔과 콘도는 각기 자기가 더 높고, 더 멋있다고 뽐내듯이 서 있다. 그중 우리가 묵은 골든게이트 호텔은 콘도로서 지어진 것으로서는 외장이 제일 평범한 건물이다. 다른 것은 하나 까지도 디자인에 신경을 쓴것이 보인다.

오늘날 가는날 빼면,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니지만 긴장을 풀고 바다물속에 몸을 던지고 검둥이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밤새 천둥 번개가 바다쪽에는 하얗게 밀려와서 모래 사장에 부서지는 파도가 보인다. 남자들 끼리만 지내는 밤에 비까지 내리고 집떠난지 10여일이 넘으니 이생각 저 생각에 잠도 잘 오지않고 선잠속에 아침이 온다.

오늘의 일정은 시·월드에가서 돌고래와 바다 코끼리 새끼가 하는 쇼 등을 보고 오후는 자유시간으로서 해수욕과 일광욕이다.

오후의 따가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래 모처럼 스케줄에서 해방된 자유행동이다.

저녁에는 별로 갈곳도 없고 동숙자가 싱가폴 공항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 잔을 마주앉아 기울이고 잠자리에 든다. 해수욕장의 풍경과 환경도 우리와는 전혀 틀린다. 말로만 듣던 여자들의 노브라 차림도 드문 드문 보이고, 백사장은 이상할 정도로 휴지하나, 병조각, 오물 하나 없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사용자들의 질서와 의식수준이 가히 짐작이 가고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풍경이 눈에 떠오른다.

오후에는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슬리퍼를 신고 거리로 나가본다. 좀 더 색다른 건축물을 찾아 다닌다. 도시 자체가, 여기도 매 한가지로 정돈되고, 깨끗하고, 또 한쪽에서는 건물들이 올라가고 한다. 이곳에서 좀 더 묵었으면 하는 아쉬움속에 11월 6일 오후 브리베스인

GOLD COAST 해변 백사장

에서 시드니행 비행기를 탄다.

시드니에서 저녁 10시20분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브리스베인에서 오후 5시15분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는데, 노인들의 단체 관광객들이 늦게 탑승을 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이륙하지를 않는다. 5시55분이나 되어서 이륙을 한다.

6시10분 경이면 시드니에 도착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6시30분이 지나도 착륙하지 않는다. LANDING GEAR 소리만 요란하게 몇번난다. 착륙용 바퀴만 넣었다, 뺐다 하는 소리다. 기내 방송은 활주로 사정으로 지연 착륙이라고 하지만, 비행기 고장이 발생했어도 이와같은 요령으로 승객들의 동요를 막기위한 방송을 한다는데 그런 방송은 아닐런지…. 그 순간에도 비행기는 공항 상공을 선회 비행이다. 지연 방송은 반복되고, 8시가 되어서 도내리지 않는다. 동경으로 향하는 비행기 시간도 걱정되고, 하늘을 빙빙 돌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땅으로 추락할 것 같은 불안감이 충만한다. 승객들은 모두 조용하게 모두 침묵이다. 뒤편의 노인부부는 눈을 꼭 감고 서로 팔을 끼고 꼭 잡고 있다. 그런 장면을 보니 나 자신도 죽었다는 마음만이 앞선다. 내 나라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당하여 보지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르리라! 오만가지 생각중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착륙하자 우리 일행은 침묵인데 거의가 호주인 들인 승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에 휘파람을 분다. 그들도 말은 안하고 침묵을 지켰어도 우리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내려서 보니 브리스베인에서는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씨였는데 여기 시드니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있다. 전일 골드코스트에서 저녁 TV뉴스때 시드니가 폭우로 홍수가 난 것을 본 것이 기억이 난다. 기상 이변으로 비행기가 그런 것으로 알고, 부지런히 버스편으로 국제선 공항으로 간다. 우리 일행의 가방은 국내선 ANSETT 항공사에서 우리가 토쿄까지 타고갈 JAL비행기에 바로 실어준다고 하였지만 가방이 제대로 실어질지가 걱정이 되어 부지런히 탑승 수속하고, 아마 세계에 유례가 없는 20호주달러 (미국달러로 환산하면 17달러)나 되는 비싼 공항세를 내고 일일이 한 사람씩 컴퓨터로 확인한 후 출국인을 찍어준다. 불법적으로 남는 사람이 있어서 인지….

비행기를 타려고 부지런히 출구로 가니 이 비행기도 40분 정도 늦게 이륙한다. 비행기에 올라타니 안심되고 살았다는 마음과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이륙을 하니 기상이 나빠서 인지 그렇게 큰 점보기도 흔들 흔들, 오르락 내리락 한다. 낙엽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 밤새 날아 적도를 통과, 7일 아침 6시15분 成田공항에 우리 일행은 전원 무사히 안착해서 시내로 향했다.

나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으나 하늘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가는 길에 신주꾸에 들러서 일본이 가장 자랑한다는 신도심의 새로 지어진 고층건물을 목이 아프게 올려다 본다. 토쿄타워 등을 본후 긴자 다이오오 호텔에 도착했다. 전에 일본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질서도 있고 깨끗하다고 보았는데 두 가지 중 청결도는 다시 보아야 겠다. 상가 풀과 호주보다는 지저분 한것 같다. 이곳에 오니 어서 빨리 나의 나라에 돌아 가고 싶다. 우리 어른들의 옛 말씀대로 우리집이 최고라는 말씀 그대로

GOLD COAST 시가지

다. 이곳에서는 두시간이면 돌아갈수 있으니 집에 온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느낌이다.

긴자를 보고, 인파를 보고,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불고기 집에서 김치와 된장국과 불고기를 정말로 오래 간만에 포식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전날 저녁식사때 그동안의 여행기간 동안 집합시간, 약속시간에 지각한 사람들로부터 벌금 2유에스달러씩 받은 것, 도합 45유에스달러로 한국에서 수입된 두꺼비 진로 소주를 사서(2홉 한병에 3,400원 짜리) 식사를 곁들여 마시고 해단식 겸 회식을 했다.

맺으며

이번 여행을 하여보니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신장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호의적이고 관심이 많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88년에 치루어야 할 서울 올림픽에 대하여 묻는 것이 많고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들 있다.

나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런 기회를 가져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접촉할 수 있고 배울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우리 건축계도 건축에 관한 해외 정보를 빨리,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일행중 두번째 막내로서 선배님들에게 지각벌금을 악을 쓰고 받아낸 것에 대하여, 벌금을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겨울철이라, 나무들의 나무잎도 떨어져서 그런지 우리의 김포 국제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기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스산하고 온통 붉은 황토색이 더한 느낌이다. 나무가 없어서일까? 푸르게 보이는 방법이 없을까? 공항의 국제선 청사라고 해도 규모가 외국의 어느 조그만 시골 공항에 내리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다. 쓸쓸함, 적막감에 휩싸인듯 적게 보인다. 활기차고 크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음이 착잡하다.

● 建築相談案內 ●

본회에서는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無料建築相談室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건축행정
설계 및 시공
관계법규 등
건축과 관계되는 사항 중
의문나시는 일 있으시면

본회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457～3
전화 : 584－0348 / 1098 / 4248
9448 / 9498

協會의 發展進路, 그 方向을 얘기한다

일 시 : 1984년 11월16일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사 회 : 오용석 · 회 장
참석자 : 김지태 · 前회장
김기수 · 부회장
윤봉원 · 前이사
이용하 · 前이사
김인석 · 前이사
박홍우 · 前감사
이춘상 · 前감사
유경설 · 이 사
이영희 · 이 사
한종언 · 이 사
임재식 · 이 사
신정환 · 이 사
김재우 · 이 사
김봉훈 · 이 사
이강삭 · 감 사
류근열 · 감 사
임인혁 · 사무처장

지난 11월16일 本協會 회의실에서 會長 離就任式 거행후 약 2시간에 걸쳐 新·旧任員 連席下에 協會의 運營發展을 위한 懇談會를 가졌다. 協會의 實態를 診脈하며 앞으로의 運營像을 浮彫해 낸 이날의 허심탄회한 懇談會議錄을 정리,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會 長 : 그동안 협회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전임 임원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임원들께서 인계해 주시는 사업에 대한 지도편달과 또 이런점은 이런 방향으로 끌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점, 기타 협회발전을 위한 신임임원에 대한 요망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먼저 전임 김지태회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계속해서 완성해 주있으면 좋겠다 하는 점 또는 국제교류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셨는데 이번 마닐라 아카시아 대회에 다녀오신 여러가지 성과, 내용 등 앞으로의 생각이 많으시리라 믿는데 그러한 점들을 말씀해 주시죠.

會 長 : 전임 임원들께서 인계해 주시는 사업에 대한 지도편달과, 또 앞으로 협회를 이런 방향으로 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김지태 :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동안 이었읍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또 국제교류문제 등 제가 씨는 뿌려 놓은 것 같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거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2년동안 저와 함께 수고 해주신 임원님들도 그런 점에서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은 앞으로의 협회발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부드릴 것이 있다면 첫째 단결이 형성되어 단합된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서는 어떤일이나 결실을 보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협회를 끌고 나가는 임원들께서는 회원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들께 봉사하는 입장이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1회 건축사회의에 대하여 먼저 배경설명을 하자면 82년 2월 구윤회 회장 재임시 구회장님과 함께 우리도 좀 커보자. 우리도 국내에서만 이럴게 아니라 밖의 사정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도 이젠 밖의 사정에 머리를 돌려야 될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되어 동남아를 중심으로 5개국을 순방한적이 있읍니다. 그것이 마닐라대회 참석의 계기가 되었다 하겠읍니다.

동남아에는 건축과 관련한 기구가 UIA 제4지구 말고 아카시아회의 즉 동남아건축사 회의라는 것이 있읍니다. 회원국 수는 82년까지는 10개국이었고 이번에 중공 대만이 가입해서 12개국이 되었읍니다. 또 옵서버로 참석한 4개국이 있었읍니다. 이번에 UIA 제4지구 총회가 필리핀에서 열렸는데 필리핀에는 UAP라는 것이 또 있읍니다. 그것이 건축사 연합회인데 필리핀 자체에 단체가 3개 있었읍니다. 2,3개 단체가 10년에 걸쳐 통합, 78년에 단일체가 된것인데 그 통합단체가 UAP 이고 UAP가 주관하여 아카시아 회의를 주관한 것입니다. 아카시아 회원국들은 영어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읍니다. 홍콩,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카폴 말레이지아, 거기에 영어생활권이 아닌 중공과 대만이 최근에 가입이 됐읍니다.

우리도 회의의 성격이라든지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악코져 서베이좀 해보자 해서 가보니까 12개국이 참가한 중에 우리인원이 제일 많았읍니다. 家협회 3명 士협회 19명, 총 22명이 참석하다보니 주목의 대상이 되어 KOREA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읍니다. 김지덕회원께서 주제발표회 등 연구위원회에 끝까지 참석했읍니다.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니 한국에서 간 분들은 회의에 참석해달라, 회의가 어떤 것인가 대강은 파악했으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나가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우리 회원들이 회의에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의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김지태 :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국제 교류문제 등 씨는 뿌려진 것 같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거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런 점에서도 앞으로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가져야 되겠다고 느꼈고, 따라서 협회로서는 〈아카시아〉에는 가입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읍니다. 내년 11월에 이사국회의가 있는데 吳회장께서 가셔야 될줄로 알고있읍니다. 일본사람들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탓인지 가입은 하지 않지만 정보는 모두 입수해 가더군요.

會 長 : 이번에 같이 참석해주신 류근열감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류근열 : 어학실력도 없고해서 분과위원회에는 참석을 못했읍니다만 총론적으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국민소득이 8백불로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가 아닌데도 그나라 건축사의 사회적인 지위는 대단히 높았다는 것을 느꼈고 회의장 자체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통령과 대통령부인의 멧세지도 있었읍니다. 또 그분들의 짜임새 있는 회의진행을 보고 과연 우리 건축사들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도 밖으로 눈을 돌려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또 느낀점은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는 어학실력이 앞으로는 고려되어야 하겠다는 점이었읍니다.

會 長 : 앞으로 계속 국제회의는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동남아 주최의 모임이라든가 중공, 일본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른 나라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회의개최지를 우리나라로 유치해 온다든가 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의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김지태 : 家협회, 士협회를 구분하여 의식하면 안되겠읍니다. 해외에 나가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읍니다. 家협회 김정철 부회장께서도, 아시아건축사대회 좌담회에 참석하시어 家협회 士협회 구분하지말고 국가적 대외 행사에서는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듯이 단합해서 한국을 대표해야 되겠읍니다.

會 長 : 법 보완개선 문제는 우리협회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점이 보완 개선되어야 할것인가가 우리 협회의 중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김기수 부회장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과제를 말씀해 주시죠.

김기수 : 士法개정에 대해서는 다아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진행상태를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김기수 : …물론 이제까지 전진해온 바톤을 받는 것이지만, 보다 전진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우리 협회 운영이 회원을 위한 길이고 ……

많은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방향, 그 통로로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생각해보면 현시점에서 약 15일 전까지도 법안처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읍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상정될 안건은 당정 협의가 끝나 9월20일 이전에 국회에 접수되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에서 예상못했던 변수들이 자꾸나타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애쓴 결과 한 20일 동안에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했읍니다. 이렇게 그 여러 경로를 신속하게 통과한 것에 대해 다른 분들은 관계관들도 그 예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저는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손짓해 주었고 미소를 던져 주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조직력, 우리 협회의 운영방식, 우리 임원님들의 활동, 우리 회원의 관심, 이런 것들이 총 집약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협회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부 국장께서 직접 일선에 나서고 계십니다. 법제처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뛰고 있읍니다.

앞으로 청와대의 최종 재가를 받아 하루빨리 국회에 접수시켜 건설위원회의 법안심의 일정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11대 국회 마무리로서 이 열매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부족한것은 우리의 힘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야되고 또 개선해 나가야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통과시켜 한발 한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길로 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물론 이제까지 전진해온 바톤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보다 전진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우리협회 운영이 회원을 위한 길이고, 회원이 협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원들께서 늘 협회는 무엇을 하느냐 하지만 회원들의 활동 그 자체가 협회활동이고 협회활동이 회원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건축사법 뿐만아니라 건축법에 대한 것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지금 행정부 내에서 일고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주택국장께서 외국의 건축법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건축법과 대조, 비교 연구를 해 달라는 의뢰를 제가 받았읍니다. 이런거야 우리들이 해야되지요. 빠른 시일내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이나 제도개선안은 우리협회가 주동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하여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하겠읍니다. 이렇게 무슨일이든 우리가 주인의식으로 해나가면 어려운 것 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윤봉원 : 새 임원들과 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士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령·규칙마련까지 필요한 정답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해결한 여러 일들, 표준설계도서문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문제, 기타 조그만 일들이 눈에 크게 띄지는 않는 일이지만, 만약 그것을 해결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엄청나게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행히 선의의 협조에 의해서 잘 해결되어 왔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士法은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되겠고 그 통과된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 저희들 자세도 또한번 가다듬어야 되겠읍니다. 각 임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되고 조직적으로, 지성적으로,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읍니다.

會 長 : 법 개정에 가장 수고가 많으셨던 법 분과위원회 윤봉원이사께서 소감과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윤봉원 :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만 부연한다면 부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셨읍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때때로 적은것 같지만 실제 실무자들은 굉장한 노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린다면 협회가 총력사업으로 선정한 일이라면 예산 범위내에서만 뛸려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정책적이고 집약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기 위한 시스템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法이 그정도까지 간 것은 어느 한사람의 힘이 아니고 협회의 집약적인 힘이 작용한 결과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특히 부회장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며 연결을 짓느라고 노고가 크셨지만 그 외에도 사무처장께서는 실무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심부름을 했읍니다.
이제 새 임원들과 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士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령 규칙마련까지 필요한 정답을 우리가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案이 통과됐다고 해도 만족할 案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보따리를 늦추지말고 정확히 만들어 주어야 우리에게 유익한 법이되는 것이지 국회에 통과됐다고해서 그것만을 믿고 있다가는 우리의 목적달성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법에 관해서 뿐만아니라, 우리협회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입안하여 그 기초위에서 맥락이 통하는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2년을 마치고 저희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면, 전임 임원들이 추진하고 계획했던 것은 전부 백지화하고 새로 출발하곤 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러다보니 협회는 큰 발전이 없는 것을 보았읍니다. 분과위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협회가 할일의 예산규모를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예산만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집약사업계획이 별도로 작

이용하 : 협회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그 업무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성되어 예산의 뒷받침하에 이를 밀고나가야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會 長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있는것 같읍니다. 앞으로도 보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특히 점점 규제화 되어가는 방향을 자율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제가 신임 회장으로 여러가지 방침을 공표했읍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크게 두드러진 문제는 연합회 제도를 연구해 나가고 절충안으로 지방예산 병행문제를 검토하여 실시해 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시해서 여러가지 제가 말씀드린 방침에 대한 비판, 분석,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시고 특히 과거에 재임기간 중에 느끼셨던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 : 회장님께서 의욕에찬 여러가지 정책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키로 합니다. 다만 2년동안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면 협회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그 업무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읍니다. 협회로 봐서 사무처일로 봐서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인석 : 그동안 협회 이사로서 협회를 위해 도운일도 없고 도움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협회를 잘 몰랐지만 이제 2년을 끝내며 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것 같읍니다. 그러나 사실 그전의 저와 같은 경우처럼 일부 회원은 협회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읍니다. (협회는 임직원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회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협회존재라든가 건축사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할 때인데 회원이 협회 자체를 모른다니 문제입니다. 이런점에서 협회에서 하는 일 자체를 회원에게 인식시켜 주는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도 협회를 잘못알면 오해도 생기겠고…이러니 협회에서는 앞으로 회원에게 협회에서 하는일과 협회 운영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께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것을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전달을 하는 등 상호간의 흐름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회원은 또한 협회를 아끼고 위하며 협회도 회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건축사 지위도 높아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떠나는 마당에

김인석 : 일부 회원은 협회 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협회에서 하는 일 자체를 회원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도 큰 과제라고……

여러가지로 저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읍니다.

박홍우 :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 직접 느낀 것은 감사직을 통해 보고드린바 있고 빠진 것이 있다면, 지방을 4회 순회하면서 느낀점인데 복지회 관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문제와 협회와의 문제는 계속 연구하고 정비해나가야 옳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또 한가지는 분소문제입니다. 지금 수십개의 분소가 있는데 과감히 통폐합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원의 편의를 위해서 분소를 둔다면 무진장 두어도 되겠지만 위계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폐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리라고 보입니다. 또 한가지 후임 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감사는 사무정리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1년에 두번의 감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어 어려운점이 많읍니다.

실지로 감사하는 시간은 20~25일 밖에 되지는 않지만 왔다갔다 하는 기일까지 총 45일을 써야합니다. 감사 두번에 또 이사회까지 합하면 일년에 꼬박 3개월은 협회에 바쳐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다보면, 예를 들어 10월말에 감사가 끝나면 신년초 2월쯤에 또 감사를 나가게 되는데 어떤 지부는 3,4개월만에 감사를 또 받게 되는곳도 있읍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사로서의 감사는 일년에 한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한번은 사무처 기획실에서 했으면 합니다. 감사도 결국은 건축사인데 자기일 제쳐두고 1년에 3개월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會 長 :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읍니다. 그 다음 이춘상 감사께서 말씀해주시죠.

이춘상 : 저는 협회 임원을 두번 했읍니다. 그 때에도 건축사법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읍니다.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士法 개정을 볼 때 여러 임원과 회원께서 힘을 합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도 이사님과 회장님께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 회원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말씀하신 사무처인사 문제, 그것은 제가 우연치 않게 회원 여러분의 의사를 들은적이 있는데 회원 여러분들 께서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회장님께서는 회원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會 長 : 누군가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음 유경철

박홍우 : 감사는 사무정리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건축사로서의 감사는 1년에 한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한번은 사무처 기획실에서 했으면…

이사께서 말씀해주시죠.

유경철 : 임기가 끝난 이사님들 중 세분께서 임기가 짧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윤봉원이사께서는 사업을 한창 벌였는데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고 김인석이사께서는 이제 좀 알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 저도 1년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저는 협회창설이래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던 시대가 또 있었느냐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가시는분 들어오시는분 서로가 출신학교도 다른데 신·구회장님간에 인수인계가 이렇게 깨끗이 된적도 없을것 같읍니다. 욕심같아서는, 새회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새로운 상임 위원회 발족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전임김지태 회장님께서는 회장 3년 하는 기분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사 數가 모자랍니다. 저도 건축위원장을 하다보니 그렇고 또 다른 이사들도 각 분과위원장을 맡아보니 그렇고한데 이사님들께서는 이사 3년하는 기분으로 1년 더 봉사하고 건축위원회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모처럼 원숙해져가는 士협회 무드를 계속적인 봉사로 고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도 내년에 임기 끝나고 1년 더 봉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會 長 : 이영희 이사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또 지나온 1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영희 : 신임 오회장께서는 의욕에찬 많은 공약을 했읍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100% 성취에 노력을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만 모든 임원이 일체가 되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겠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영향력있는 분들을 초빙하여야 됩니다. 역대 회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문위원이 아니라 협회 현안 문제를 능률적으로 타결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종언 : 전임, 후임 이사님들께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것은 없지만 그동안 저는 서울지부에서 감사 1년했고 본회 이사 1년을 했읍니다. 이제는 뭔가 좀 알 것 같읍니다. 앞으로 신임회장님 모시고 강도있게 일을 해보겠읍니다. 이제 좀 알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보니까 협회가 일처리하는 방식이 사후약방문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어도 협회와 관련부서는 정기적인 간담회 내지는 한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두달에 한번정도라도 간담회나 아니면 막말로 소주라도 마시며 실질적으로 관계를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뛰어가야 얼굴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이야기가 안된다. 이런 사태

이춘상 : 사무처 인사문제—— 그것은 제가 우연치않게 회원 여러분의 의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회원 여러분께서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가 생겨서는 안되겠기에 그렇습니다. 대외관계는 거의 부회장께서 혼자하고 계신데 이래서는 안되겠고 모든일은 임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들도 뛰어야 됩니다. 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또 협회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은 이사들 주머니에서 염출하여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때, 바쁘면 전화라도해서 이런문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준주택설계관계——그것도 정보가 너무 늦었읍니다. 과거에 관계되는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협회와 관련있는 부서간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會 長 : 다음 임재식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임재식 : 선배 이사님 회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읍니다.

會 長 : 말씀하시는데 부담가지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환 : 건축사회원의 평균 연령을 47세로 알고있는데 65세 이상이 됐을때 회원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부총회에서 어떤 회원이, 회장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임기가 끝나면 오리발을 내민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하겠읍니다.

會 長 : 저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김지태 : 복지문제 만큼은 협회차원에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됩니다.

會 長 : 김재우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재우 : 오늘 저는 신입생이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말씀만 올리겠읍니다.
지난 총회를 보면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늘어놓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연말 분석이라든지 평가는 내놓지 않는다고 회원들이 아쉬워 합니다.
또 제가 참석해봐도 그런것 같읍니다. 신임 회장께서는 새로운 전통을 살려서 취임시 공표했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총회시 평가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질적으로 협회는 협회대로이고 회원은 회원대로 입니다. 제가 대구

유경철 : 이사님들 께서는 이사 3년 하는 기분으로 1년 더 봉사하시고, 건축위원회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모처럼 원숙해져가는 士협회 분위기를…

지부장을 지낼때 회원과 협회와의 간격을 좁히려고, 또 회원에게 협회돌아가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등산이나 낚시같은 취미크럽을 만들어 전회원이 한달에 두번 이상은 모이게 하였더니 상호간에 융화단결도 되고 해서 효과를 보았읍니다. 다른 지부에서도 여건조성을 위해 취미크럽을 조직했으면 합니다.

김봉훈 : 저는 士협본부에 대의원 과정도 밟지 않고 바로 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벼락부자가된 느낌이 들어서 아직도 기분이 얼떨떨 합니다.
여러 선배님 이사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신임 오회장님 모시고 사협회를 위해 열심히 뛰겠읍니다.

會 長 : 이강식 감사님 말씀해주시죠.

이강식 : 제가 느낀점은, 법을 연구한다 하면서 전담이사들이 애를 쓰지만 그것이 정리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점인데 자기일도 바쁜데 전담이사가 할 수도 없는것이고, 오회장님께서 발표했듯이 과감하게 기구를 정리하여 법을 연구한다면 현 직원을 이용 꼭 그것만 취급하는 전문직이 있었으면 합니다.

會 長 : 류근열 감사께서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또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류근열 : 감사직은 너무 생소합니다만 선배 박홍우 감사에게 지부장직도 인계받고 감사직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아는것은 없지만 선배 감사가 가까이 있기때문에 배워가며 열심히 하겠읍니다. 제스스로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이되고 열심히 해 볼려고 합니다.
신임 회장님께서는 당선인사시 10여가지 공약을 하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2년동안의 짧은 임기동안 회원이 갈망하고 있는 어려운 여러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완수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나름대로 가져보았지만 저야 감사직에서 얼마나 회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할지 지켜 보겠읍니다. 감사 입장에서 지켜보고 감사직에서 회장님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협조는 아끼지 않겠읍니다.

회 장 : 각분과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말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 마닐라 회의에서 보니까 건축사들이 커다란 메달을 목에걸고 나왔는데 퍽 보기가 좋았읍니다. 색깔도 서로 다르고, 그곳 건축사들이 마크를 달고 건축사의 긍지를

이영희 : 앞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겠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빙하여 협회 현안을 능률적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껏 과시하는것 같았읍니다. 우리도 그런것 한번 발전적으로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읍니다.

會 長 : 지금 말씀중에 마크 말씀이 있어 생각이 났는데 우리 배지라든가 건축사협회 심볼마크가 공무원 마크와 유사해서 도안을 공모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 동 : 좋읍니다.

김재우 : 土法개정과 함께 바꾸면 좋겠읍니다.

會 長 : 임인혁차장께서도 의견이나 개선하고 싶은 내용, 업무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임인혁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읍니다만 저희 직원의 뒷받침은 회장님이하 임원님들이 되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저희 직원들은 낮이나 밤이나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읍니다만 그후에 뒷바침에 대한 책임을 전임원이 져주시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은 회장님의 의도와 이사회 결정 두가지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때로는 대외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것 같읍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그 대화내용에 협회 방침이 담겨지는 경우가 있는것 같읍니다. 그래서 말조심도 해야되고 협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고 답을 해야되는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저희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용히 타일러주시고 외부에 내부 사항을 전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전에는 그런일이 간혹 있었읍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이사회가 끝난 다음날 밖으로 소문이나 알려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원님들께 부탁올리는데 이사회내용에, 협회 기밀사항이 없더라도 술자리를 같이한다든지 친분 관계에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 화제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결국에는 나중에는 잘못되면 직원들 잘못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런문제는 임원님들이 자진해서 〈대외秘〉라는 룰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절대로 새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중요한 기밀은 아닙니다만 평범한 기밀이라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종언 : 그동안 보니까 협회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 사후약방문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어도 협회는 관련부서와 실질적으로 관계를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會 長 :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말씀해 주시죠.

이춘상 : 협회 감사업무를 보면서 느낀것인데, 이제는 서울회원만도 천여명에 가까워졌고, 제가 접촉한 회원도 몇 백 명은 될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머리는 큰데 회원으로서 마땅히 협회에 대해 알아야할 사항이 저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읍니다. 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지도 제대로 보지 않는 회원도 많읍니다. 저희 회지에 협회기사도 많이 나가는데 내용을 읽지를 않으니 협회사정에 어두워 그저 다른내용의 말씀이나 불평불만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일반사회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회원들에대한 홍보관계도 신경좀 써야할 것 같읍니다.
또 정화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사무실문제도 정리하여야 할것은 정리하여야 될 것 같읍니다. 회원의 善은 보호해주고 잘못된점은 제거해야 될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저〈좋은건 좋은거다〉 생각하지말고, 저희는 다못한것이 많지만은 신임회장 및 임원들께서 그런점들을 많이 참작 해주시고 일할때에는 과감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읍니다.

會 長 : 임재식이사께서는 말씀을 조금 밖에 안하셨는데 느끼시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임재식 : 제 생각은 그렇읍니다. 본회가 크기는 큰데 하는일이 없읍니다. 예를 들자면 명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적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하게 되면 차기 국회의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그런정도로 파워가 있어야 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법개정 하나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중에 저희 회원이 한분도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은 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장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것 같읍니다.
제가 2년동안 지부장을 하면서 느낀것은 官하고 아주 밀착되어서 우리 의도대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성장을 하기위해서는 정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임원들이 단합을 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단합을 하기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한종언 : 신구 임원 말씀중에 사무처에 너무 업무가 많다, 고생을 한다, 따라서 정말 협회에서 꼭 할일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실무진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그런얘기를 들어야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도서신고업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서신고제도문제는 분소통폐합문

신정환 : 건축사 회원의 평균연령을 47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회원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제, 지부운영문제, 등과 더불어 협회 능률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번에 회장 임기동안에 도서신고에 소모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협회사무처에서 너무 지나치게 도서신고에 매달리지 않도록 선처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감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소 도서신고 업무처리의 문제점이 많았다.이런 문제가 큰 불신의 원인이지 않나 하는데 그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진짜 협회에서 해야할 큰일에 쓸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會 長 : 제도개선은 이번에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도서신고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명분을 찾아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총회장을 만나서 그러한 의논을 했는데 예총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 임기중 설계도서신고는 저작권 보호라는 맥락에서 무언가 형체를 지어나가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도서신고을 하기위해서는 그 무거운것을 가지고와서 도장을 찍어가야 하는데 그 도장찍어주는데에 인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간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유경철 : 회장 이하 임원들이 구호만 내세우고 용두사미가되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연합체제로서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몇개의 분과위원회를 부활시켜야되겠다는 점을 건의하고 싶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부에있는 8개분과위원회가 실제로는 서울사람들 것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두사람의 지방 위원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서울 위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라든가 대구나 또 다른 시도지부 단위로 볼때 그정도의 위원회는 지방에도 키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부 밑에 그런 각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본부가 일집행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지부회원들이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미팅도하고 세미나도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읍니까. 이런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발전 해나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회장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會 長 : 좋은 말씀해주셨읍니다. 각 지방의 지역사업을 활성화 해나가기 위해서 지방예산을 검토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지방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이것이 전국적인 하나의 협회원칙, 즉 통제라든가 절감원칙 등과 같은 제동에 걸려서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재 지부의 실정입니다만 분과위원회 활동 또한 좋

김재우 : 지난 총회를 보면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내놓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年末分析이라든지 평가는 내놓지 않는다고 회원들이 아쉬워 합니다.

은 말씀이셨읍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테마로 채택하여 연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윤봉원 : 우리 건축사협회도 내년이면 창립20년을 맞는데 사실상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건축사의 발전은 이렇게 늦어지고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자면 방송가에서 〈건축사〉라는 직책을 잘 모릅니다. 〈건축설계사〉 그렇게 얘기하죠. 또 작품을 발표할때면 분명히 건축사가 했고 그 아이디어가 건축사한테서 나와서 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건축사는 누구다라는 사실이 표가조차 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전국민에게 건축사가 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매체는 TV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신문, 잡지, 유관단체 잡지 순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적극 홍보를 전개하려면 예산에 규정된 홍보비 정도가지고는 안되고 무리할만큼 투자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會 長 : 홍보는 적극적인 태도로 해야될줄로 알고 있읍니다. 사무처에서 대외 홍보문제를 연구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봐서 우리 협회가 TV드라마를 현상공모할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김기수 : 얼마전 제주지부 총회에 참석했었는데 회원이 24명 밖에 안되는 조그만한 도인데도 건축사에대한 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한탄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지부장이나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조그만한 지역에서도 건축사가 무엇을 하고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가나 건축사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가 보다 더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 강력히 반성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처해있는 현 상황을 보면 건축사지가 각회원에게 돌아 가는데도 건축사지를 읽는 회원이 많지가 않읍니다. 건축사지에 회원에게 필요한 협회소식이 다 나가는데도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읍니다. 또 〈국토와 건설〉이란 잡지가 건설부 협조로 나가고 있읍니다만 그 잡지가 우리 협회를 통해 7월부터 2000부씩 나가는데도 구독을 원해 신청한 사람은 10%도 안됩니다. 오히려 항의 전화하고 이런책 왜 보내느냐,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된다, 이럽니다. 건축사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실제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관심한 편입니다. 여지껏 장시간 회장을 비롯 임원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찌 말씀이 있으셨읍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고칠것은 고치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외적인, 사회적인 평가나 지위, 명예, 권위를 얻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TV에 우리소식 실리는게 그렇게 쉬운 일인줄 아십니

이강식 : 과감하게 기구를 정리하여 법을 연구한다면 현 직원을 이용, 꼭 그것만 취급하는 전문직이 있었으면 바쁜 이사들의 손도 덜 수 있고…

까? 결코 마음먹은대로 쉽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난 투자가 밑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사무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 문제입니다.
매스컴을 탄다는게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한이사께서, 어떤일이 일어나면 쫓아가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미리 터를 닦아 수로를 만들어 놓았다가 물을 넣어야 물이 흘러갈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홍보는 사무처에서는 물론 회원 스스로도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대로 협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홍보를 전개 함으로써 이 두가 지 홍보활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손질할 때는 홍보에 관련된 항목만큼은 손질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제주도 총회에는 관광개발국장이나왔는데 자기는 총회에서 깨달은 것이 많았다. 건축사 총회에서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됐다. 그전에는 몰랐다, 이럽니다.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것은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 작년에 대구 전시회에 갔을때 대구 부시장인가요, 국장하고 얘기하기를 건축사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폐쇄 처분이니 자격 정지니 해오면 이제는 함부로 싸인 안해요, 국장 잘 좀 알아서 하시요, 이런말까지 나왔지 않았읍니까? 금년에도 대구 부시장께서 전시회를 참관하고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찬사를 주었고 부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회와 더불어 다양하게 다변적으로 홍보를 전개하는 가운데 홍보의 힘은 형성되리라고 믿습니다. TV는 확실히 효과가 큽니다. T·V드라마의 사랑과 진실에 나오는 건축사는 사실 건축사로서의 품위나 권위는 없고 낭만의 주인공으로 상징되어 나오고 있더군요. 그러나 우리에게 홍보의 힘이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그런것에도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사무처에 기구, 인력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것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부장하나 과장하나 그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해야 여러분 임원이나 회원들께서 만족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어렵읍니다. 너무 사무처만 두둔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상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會 長 :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할 수 있는 기구가 충분히 보충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하 : 며칠전 TV를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과장 1명과 임인혁처장, 건축사 2명이 나온것 같았읍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임재식 : 적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하게 되면 차기 국회의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TV 좌담에 나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보니까 건축사들의 발언이 너무나 건축사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또 답변하는 내용이 협회에서 생각하고 있는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받았읍니다. 이런 내용이 메스콤을 통해 무책임하게 사회에 전파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 협회가 어떤 규제를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도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고가 있으면 별안간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회피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TV출연시는 협회를 대표하는 내용 등은 발언하지 말아야 되겠읍니다. 감리와 설계를 분류를 해야 된다는 등의 개인만의 생각을 마치 대표의견인양 발언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읍니다.

임인혁 :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읍니다. 그 방송이 오늘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어제 녹화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당초는 건설부 건축과로 출입기자가 갔던 모양입니다. 가서 감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된다는데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려고 계획했던 모양인데 가보니까 건축사법개정 때문에 자리에 아무도 없었읍니다. 그날따라 저희 협회도 시간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소개를 받고 왔다고 느닷없이 카메라를 들고 협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회장님과 회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논한 결과 건축법의 개정 문제는 건설부에서 답변할 일이지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그런 내용의 좌담에 나갈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그러면은 건축사가 하는 일이 뭐며 건축주가 위반을 하는 내용이 대체로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냐 그것만 말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만 말했을 뿐입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은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주의 과다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건축물이 되려면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공사기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속칭 집장사 되시는 분들이 적게 돈을 들여서 집을 짓고 빨리 집을 팔겠다는 과다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골자로 이야기 했읍니다. 그다음 건축사로서는 조형창작예술 즉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건축사가 참여해야 되는 분야의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읍니다. 저도 프로그램을 나중에 보았읍니다만 1시간 계획인 모양인데 서울시 건축과장하고 전임 건축과장 하고 대담하는 것을 집에서까지 촬영한 것인데 감리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거기서 나왔읍니다. 그 내용은 녹화가 되었읍니다. 대담프로 다음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

임인혁 : 저희 직원들은 낮이나 밤이나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읍니다만 그 후에 뒷바침에 대한 책임을 전 임원이 져주시는 것으로 해주셔야…

서는 각지방 시민까지 동원되었는데 질문을 받은 시민들 즉, 건축주에게 왜 이 집은 준공이 안됐느냐고 물으니까, 건축사 또는 설계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나니 집을 허물라고 그런다. 그래서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것 같았읍니다. 이 얘기 나음에 감리와 설계를 일부 구분하니까 많은 위법사항발생이 억제되는 것 같다. 100%는 아니지만 많이 억제되어서 앞으로는 감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얘기가 나왔읍니다. 끝에 마무리 짓는 아나운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인용되었읍니다. 부조리는 어디까지나 건물주의 과다한 욕심때문이고 또 충분한 비용과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욕심때문에 건축의 부조리가 야기되고 있다, 또 허가내는데에도 번잡하다는 것으로 끝이 났읍니다.

이용하 : 건축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회원의 발언인것 같읍니다.

會 長 : 그날 나왔던 분들의 인선은 우리 협회가 한것이 아닙니다. 아마 임인혁처장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간것 같읍니다. 앞으로 이런문제가 있으면 사전 테마를 받아서 그 내용방침을 우리협회에서 의논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이용하 : 협회에서 그 회원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윤봉원 : 그러나 그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다시 재론해서 이미 방영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외발언은 공식적으로 단일창구화해야 되겠읍니다. 계통을 통해서 언론기관으로부터 질의를 받거나 출연자교섭을 받아야 하겠고 그런 요청을 우리협회에서 받게되면 홍보담당부서라든가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답변을 하든지 출연을 하든지 해야되겠읍니다.

이춘상 : 집행부에서 많이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會 長 :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는 그곳에서 방침을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것은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신임회장이 의욕적으로 여러가지 방침을 발표했다,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지만 제가 의욕적으로 발표했다기 보다는 그렇게 해라, 하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뛰어 보겠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회, 홍보위원회 이러한 것을 구성해서 실천에 옮겨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는

류근열 : 신임 회장님께서 10여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2년 동안에 그 어려운 여러가지 사항을 완수하실 수 있을 것인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협조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2월말이면 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허가상의 준공, 건물 외관상의 준공은 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지 환경정리라든가 사실상 우리가 준공테이프를 끊고 대외인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봄이 될것 같읍니다. 될 수 있으면 눈오는 겨울에 할 필요없이 내년 3월 하순경 날씨도 좀 풀리고 화창한 때를 택해서 환경정리를 한다음 테이프를 끊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도 있읍겠니다만 이런 행사는 성대하게 해서 이기회에 대외적인 홍보도하고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 해보고도 싶읍니다. 또 회관을 이용한 여러가지 사업도 생각해서 실천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은 사무적인 이취임식은 신구임원님 모시고 간략하게 하고 저녁은 물론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대외적인 것, 즉 전임회장 전임임원을 모시고 건설부라든가 국회건설위원회라든가 건설3단체 간부되시는분이나 기타 관계부서에 관계되시는 분과 사회인사 이러한 분들은 12월 초에 호텔의 볼룸 같은 곳을 빌려 따로모셔서 성대한 자축연겸 망년회를 열어 볼까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릴 기회가 또한번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앞으로는 정계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말씀을 여러번 들었읍니다. 부산에 가서도 들었고 서울지부에서의 모임가운데에서도 많이 들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로서는 이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대열에 뛰어 들 수 있는 기회가 혹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월 자축연에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해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개개인을 만나서 우리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러한 일을 거론할 수 있는 무드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항상 뒤따라가는 협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임 회장과 전임 이사께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견인역할을 하는,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협회의 운영은 회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임원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太陽에너지利用시스템에 관한 研究

(4)

尹 榮 在
清州綜合建築設計事務所
大韓建築士協会에너지分科委員

④ 追尾通風式 集光集熱 System

集光集熱 System이 다용도 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월호에 揭記한 내용을 종합해 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이와 같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실인데 그 이유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 보면 集光集熱板面이 항시 태양의 방위 고도에 수직하게 面해 있어야 集熱板面에서의 반대광선이 초점부위에 위치한 受熱器를 가열케 되는 것이므로 집열판이 필연적으로 태양의 방위 고도에 수직하게 태양 이동에 따라서 Tracking (追跡)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Tracking 동작을 할 수 있으면서 태풍시와 같은 강풍압에 안전 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는 막대한 시설비를 요하게 한다.

따라서 非집광집열 System에 비해서 훨씬 고가의 시설비를 요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보급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한 것이 바로 본호에서 설명코자 하는 通風式(耐風式) 集光集熱 Syste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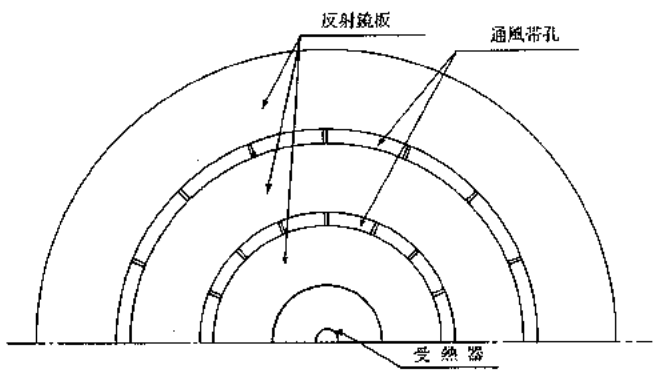


FIG. 1 集熱板 正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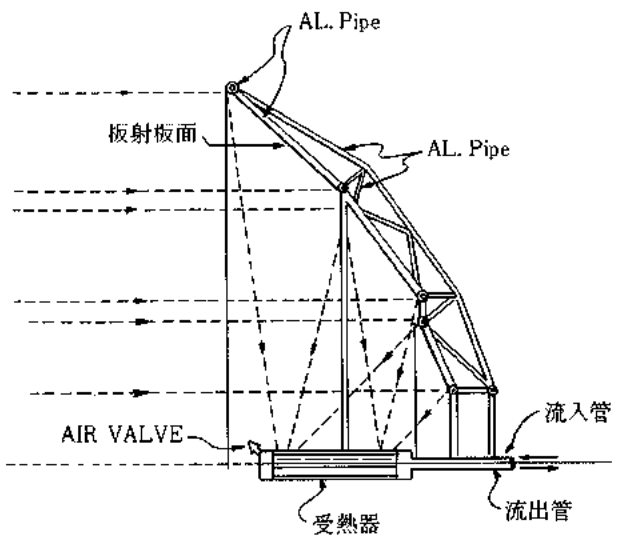


FIG. 2 集熱板 断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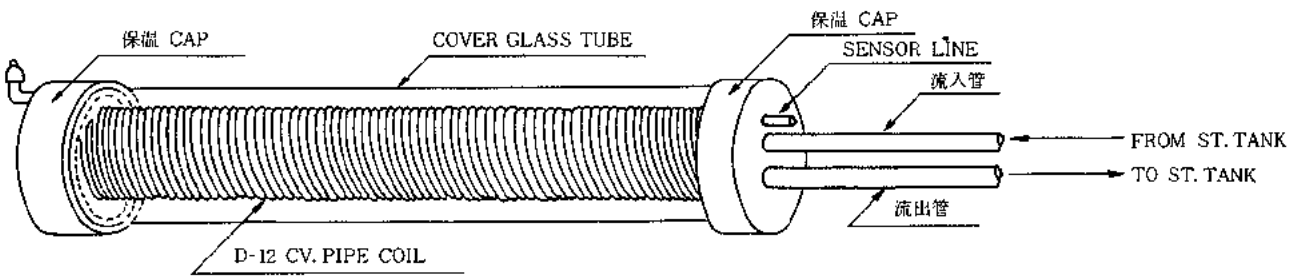


FIG. 3 受熱器 外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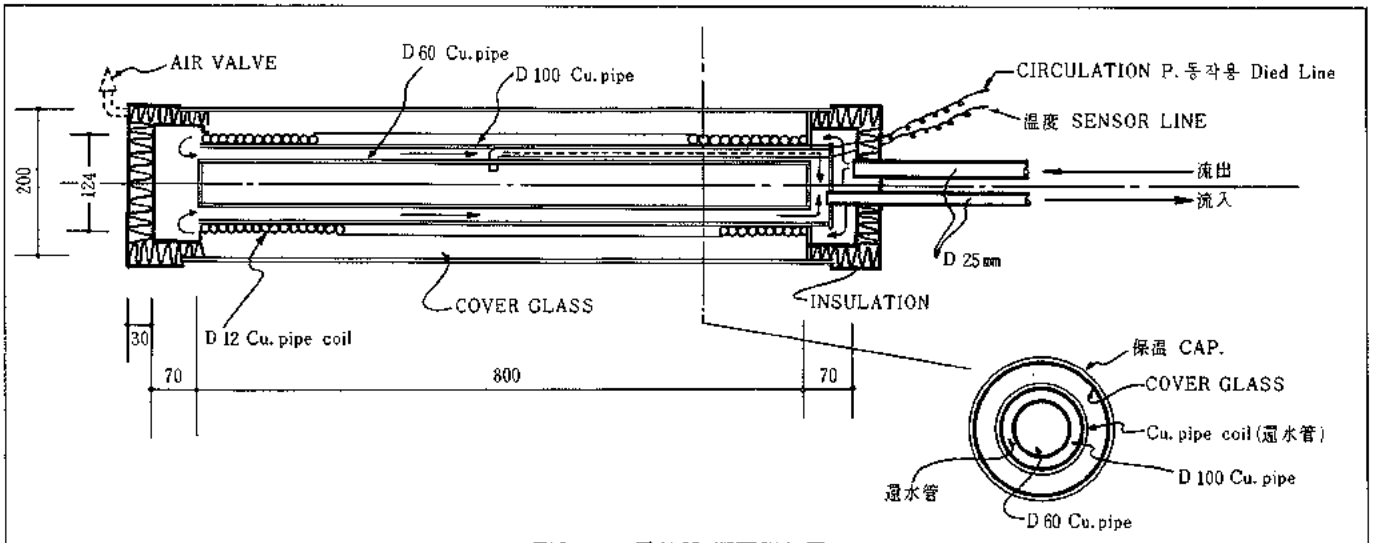


FIG. 4 受熱器 断面詳細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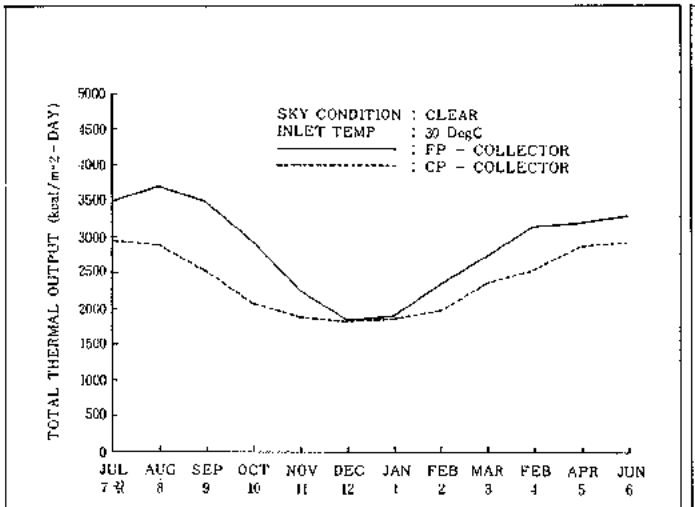


FIG. 5-1 所要 温水温度 30℃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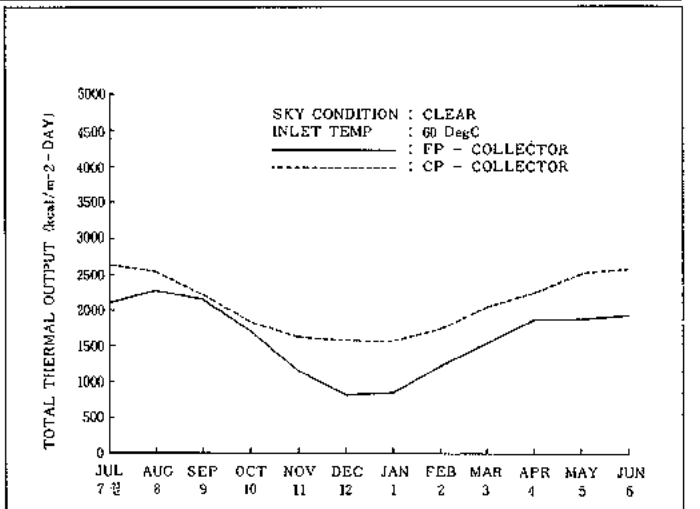


FIG. 5-2 所要温水温度 60℃일 때

본System은 Point focus Collector에 속하는 拋物面鏡形 집열판을 통풍이 가능한 구조형태로 변경 개량한 것으로 그 요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집열판의 구조

FIG1, FIG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집열판면을 段形으로 형성하여 環形의 通風帶孔을 설치함으로써 風圧을 흡수통과시켜 집열판 지지구조 부분에 작용하는 風荷重을 격감시켰고 또 집열반사판면을 일방향곡면으로 형성하여 제작상의 난점을 해소시켰다.

이와 같이 구조형태를 변경개량 함으로써 보급상의 저해요소인 고가의 시설비를 격감시킬 수 있게 되여 非집광집열System 보다도 훨씬 저렴한 시설비로 보급가능케 한 것이다.

b. 受熱器의 구조

受熱器는 집열반사판의 초점위치에 着設되여있어 반사판으로 부터 반사한 태양광에 의해서 집열되는 열을 흡수하여 Heat Storage Tank (蓄熱槽)로 유입하는 循環水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능한한 집열된 열을 신속히 내부 순환수에 전달하여 수열기표면으로 부터의 열손실을 최소한으로 적게 하는 것이 집열효율을 높이는 최선의 방향이다.

본 System의 受熱器는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외부를 Glasstube로 Cover 하였으며 循環水管은 열전도율이 높은 銅 Pipe를 Coil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FIG3, FIG4参照)

c. 본 System과 平板形 집열판과의 효능비교

FIG5의 도표(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태양열연구실검사치)는 청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순환온수온도 30℃의 경우와 60℃의 경우에 대해서 본 집광집열 System과 평판형집열판의 월별일간 집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도표를 보면 순환온수 온도가 30℃의 경우에는 평판형 집열판이 집열량이 많으며 60℃의 경우에는 본 System이 집열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집열 System의 용도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집열판의 효능에 대하여 한마디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低温水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평판집열판이 절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절난방, 하절냉방, 산업용 고온수등 비교적 高温水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본 System과 같은 집광집열 System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양열이용 System을 시설코저 할 때는 용도에 따라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집열 System을 선택 하여야 할 것이다.

高層建物에 대한 防火計劃의 着眼方向研究 1

金 相 旭
本会 設備研究分科委員会 委員
東方電子産業株式会社 常務理事

1. 머릿말

5·16혁명후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건축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추세와 더불어 1970년대초에 일어났던 대연각 빌딩 및 대왕코너화재의 참사이래 대형건축물의 防火安全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으로써 이제는 대형건축물의 방화안전조치는 당연한 사회적 요망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가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소방법 역시 지난 60년대와 70년대초에 비하여 크게 발전되어, 건축물의 방화안전 조치에 消防法과 消防當局이 주도적 역할과 기여를 해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방화안전은 소방법에서 정한 바의 조치만으로 제몫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구조계획에서 부터 건축설비, 건축물의 내장, 건축물의 운용방식, 방화관리, 그리고 소방설비등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방향의 조치가 상호 적절히 조화될 수 있을 때 방화안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을 볼 때, 건축물의 방화안전계획이라고 하면 단지 建築法上의 방화에 관한 규정과 消防法上의 소방설비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경향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건축법과 소방법의 획일적 적용은 율법적 차원에서는 무리없는 일임에는 틀림없으며, 또한 법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계법규만이 소방안전의 모두를 망라하는 해결방안의 전부는 아닐 것이며, 천차만별의 구조와 특성을 가진 온갖 건축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주어진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항상 보다 합리적인 방화계획의 구상과 노력, 그리고 관심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화계획의 구상방향들은 소방학적 차원에서 볼 때 전혀 체계성과 상호유기성이 없이 임의적이거나 산발적인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의 목적과 착안방향, 수단 및 Philosophy가 뚜렷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건축물의 방화계획구상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着眼方向에 대해 론해보고자 한다. 다만, 종합적인 방화안전계획은 건축물의 설계초기에서부터 준공이후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점을 망라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고층 건축물의 설계계획시 착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방화계획에 일단 국한하기로 한다.

2. 防火計劃의 着眼方向

건물의 방화안전은 그 본질적인 목적이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 (Life Safety) 과 재산의 보호 (Property Protection)에 있다. 그러나 화재이후라도 건물의 계속적인 운용 (Continuity of Building Operation)에 대한 가능성의 추구 또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이 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소방계획은 기본적으로 불이라는 敵의 공격에 대처하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부응될 수 있도록 건물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소방수단이 상호 효과적으로 조화되게 하는 조치가 중요하다. 특히 건물의 높이가 소방대장비의 한계를 초월하게되는 고층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착안전략의 합리적인 설정과 판단이 방화계획의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층건물의 방화계획을 불이라는 적에 대처하는 전략측면에서 살펴보자.

하나의 국가에 있어서도 국가간에 전쟁을 유발시킬런지도 모를 가능적 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노력한다던가, 실제로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도 대비하여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언제나 안정된 국방력을 강화하고, 일단 유사시 온갖 측면에서 치밀한 전략을 강구하듯이, 방화의 경우도 화재라는 적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항상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것, 즉 화재를 초래케할 발화의 사전예방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방화협회 (NFPA)의 잘 알려진 표어인 「Learn not to burn」은 이의 중요성과 비중을 잘 나타낸 하나의 예라고 할 것이다. 발화의 미연방지야말로 방화안전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간에 있어서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다. 그러나 일단 발생한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을 추구하는 일 역시 현실적으로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현실과 직결되는 방화의 촛점은 오히려 이 경우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한 防火計劃의 성격은 국가간의 전쟁과 유관되는 국방전략과 유사한 점이 많다. 국가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 첩보활동, 주민의 소개 및 전상자의 후송, 그리고 필요시 동맹국들의 지원 등이 중요한 국방전략의 방향이 되듯이, 화재에 있어서도 공격과 방어, 화재발생과 상황에 대한 정보, 피난구급, 그리고 소방대와의 협력 등이 상호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착안되어야 할 것이다.

① 火災에 대한 攻擊(Fire Attack)

화재에 대한 공격은 곧 불을 소멸시키는 데에 있다. 이는 곧 적정한 소화수단을 계획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소화수단으로서는 소방대의 장비 및 조직에 의존할 수도 있고 건축물내의 설비물로 갖추어둘 수도 있다. 그러나 소방대가 가진 장비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고층건물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자력적인 소화설비의 도입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소화설비는 위험처소(Hazardous Occupancy)에서 예상되는 가연물의 연소특성과 건축설비 등의 특성에 적합한 것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며, 각 소화시스템이 갖는 방호개념과 원리 및 특성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소방대의 지원도 가능한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소화설비로는 일상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가 대종을 이룬다. 건물내의 대부분의 用處는 화재발생시 그 양상이 A급에 속하는 것들이다. 연소하는 가연물의 류형과 소화설비의 적응성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편의상 화재는 보통 A, B, C, D 급으로 분류된다. A급화재란 목재, 섬유, 종이 등과 같은 가연물의 연소를 수반하는 가장 일상적인 화재의 양상을 뜻하며, 이와 같은 화재는 물을 사용하는 냉각원리에 의한 소화가 가능한 화재이다. B급화재는 가연성의 기체 및 액체(때로는 고체가연물로서 불꽃연소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의 연소를 동반하는 화재로서 저유탱크의 화재는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하는 바, 이러한 화재는 물로서의 소화가 극히 어렵다. C급의 화재는 연소하는 가연물의 류형보다 화재시 사용하고자 하는 소화약제와 당해설비와의 관계에서 볼 때 전기의 전도성이 설비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격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뜻하는 것으로서, 단지 가연물 자체의 연소특성만으로 보면 A급의 성격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고압전류가 常存하는 전기공작물이 설치된 장소는 대개 이와 같은 예에 속한다. 물론 전기공작물중에서도 고압용의 습식변압기와 같은 것은 내부의 絶緣油가 B급의 성격에 속할 수도 있다. C급화재를 보여주는 用處는 전기전도성문제에 입각해서 볼 때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쿨러설비와 같은 일상적인 물소화설비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물 분무(Water fog)는 그 특이한 성질 때문에 C급대상처 또는 장치에 대해서도 방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C급화재에는 電氣傳導性이 없는 소화약제, 예컨대 이산화탄소(CO_2), 할로겐화물 또는 분말소화약제(Dry Chemical)를 사용하는 설비를 적용하거나 불분무설비를 이용하게 된다. D급화재란 칼륨(K), 나트륨(Na), 마그네슘(Mg), 지르코늄(Zr), 티타늄(Ti) 등과 같은 활성금속(Active Metal)이 강력한 발열산화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나는 화재이다. 이러한 활성금속은 물(H_2O)과 맹열히 반응하여 막대한 열을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금속의 화재에는 당연히 물소화는 불가능하지만, 이산화탄소, 할로겐화물, 또는 분말약제로도 소화가 극히 어렵다.

고층건물에서는 화재의 양상이 대부분 A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장 경제적인 물소화가 대종을 이룰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용도에 따라 B급 또는 C급특성을 보여주는 특수한 用處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D급의 화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활성금속에 의한 D급화재는 특수한 산업시설(공장)에서 드물게 볼 수 있을 뿐이다. 고층건물내에 소화설비를 계획함에 있어 소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더라도 물소화설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물소화설비는 A급화재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가연물의 연소에 잘 적응된다. 이러한 가연물의 연소형태를 보면 보통 불꽃연소(Flaming Combustion)와 配熱燃燒(Glowing Comustion)의 두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가연물의 표면에서 불꽃도 나타나고 내부에 속불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비록 연소의 형태는 그러하더라도 물은 주로 냉각원리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이므로 소화에 필요한 所要注水量이 대상用處마다 일율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所要水量의 판단은 주로 火災荷重(Fire Load)과 火災強度(Fire Intensity)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화재하중은 대상장소에 존재하는 가연물량과의 함수관계에서 발생되는 개념으로서 보통 정량적으로는 대상장소의 단위면적당 가연물의 존재량으로 나타내는 일이 많다. 화재가능대상장소에 존재하는 가연물은 실제로 그 장소에 양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것은 아니므로 火災荷重의 값은 평균치에 해당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연물이 많은 장소의 화재는 적은 장소에 비해 소화용수의 소요량이 더 커질 여지가 있을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사무실용도의 장소보다는 상품이 많은 상가의 화재에 보다 많은 소화용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가연물의 종류와 火災荷重이 비슷한 장소들 끼리라도 가연물의 구성형태와 분포상태 등에 따라 연소율(Burning Rate)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같은 질량의 나무덩어리와, 동일재질의 대패밥의 연소를 비교할 때 대패밥의 Burning Rate가 훨씬 클 것이며, 이에 따라 동일 시간에서의 발열량도 매우 클 것이므로 소화를 위한 注水率 즉 단위시간당 소요注量도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화용수의 소요량과 주수율은 예측되는 화재하중과 화재강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소방법에서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간격을 대상장소에 따라 2.3m, 2.1m, 1.7m, 등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참고로 소

	輕 級	中 級			特 級
		Group1	Group2	Group3	
대상장소	교회, 학교, 병원, 호텔, 도서관 (서고제외) 박물관, 사무실, 아파트 음식점 (주방, 창고제외) 극장 (무대부 및 도구실 제외)	주차장, 세탁소, 음식점의 주방 및 창고, 전자공장	상가, 백화점, 도서관의 서고, 직조공장	제지공장, 페인트, 종이류 등의 창고, 타이어공장, 목제가공공장	합판공장, 인쇄공장, 섬유제조공장, Spray Booth
소화용수의 소요공급률	500~750 gpm	700~1000 gpm	850~1500 gpm	관계기관 (반드시 관계가 아니어도 가함) 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소요공급시간	30~60분	60~90분	60~ 90분	60-120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개하면 美國防火協會(NFPA)의 기술기준(National Fire Code)에서는 화재하중과 강도를 감안하여 대상장소를 경급, 중급, 특급의 危險級所로 분류하여 화재시 소요될런지 모를 소화용수의 예상공급율과 소요시간등을 위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화용수와 화재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나, 이외에도 소화설비계획시에는적용할 소화시스템의 防護特性에 대해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구상해야 할 것이다. 고층건물내에 적용할 수 있는 물소화시스템중 현재까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그리고 연결송수관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는 固定給水配管과 수동조작산수용의 호스 및 노즐로 구성된다는 구조적 공통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를 극히 초기의 발생단계에서 그 시점에 건물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사용하여 진화해보자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설비이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은 어디까지나 발생초기의 극히 소규모화재에 대해서, 그것도 방화복, 방독면등 인명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조작의 훈련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용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시도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를 넘어서서 일단 확대진행이 시작된 규모의 화재에는 거의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연결송수관설비는 진행된 단계의 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설비이다. 화재는 가능한 한 초기에 진화할 수 있을 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바람직한 상황만이 항상 전개될 것으로만 예견할 수 없는 것이 실제 현실이므로 화재가 확대진행되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건물이 비교적 작아서 소방대장비의 직접적인 진압활용이 가능한 규모의 것일 때는 이 설비의 계획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나, 소방대장비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규모나 높이의 건물에는 거의 필수적인 설비이다. 연결송수관설비는 방화복, 방독면등 인명보호장구를 갖춘 평소 훈련경험이 풍부한 전문진압요원, 예컨대 소방대의 경방요원이 주로 사용하게 된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이러한 차이에서 볼 때, 옥내소화전설비는 호스밸브, 호스 및 노즐등이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실에 가까우면서 피난이 용이한 복도등에 설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결송수관 설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대상장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階段室이나 그 前室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

물소화설비중 소화효과와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것은 스프링클러설비이다. 이 설비는 연결송수관설비처럼 확대된 화재의 진화용으로 시도되는 설비는 아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를 완전진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火勢를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높다.

소방의 기본목적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이며, 그것은 원칙적으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시도되어야 그 의미가 살 수 있으므로 확대진행된 화재를 전제로하는 소화설비의 구상은 1차적인 추구방향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층건물의 물소화설비계획에는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기치 못한 불확실요인에 의한 화재의 확대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를 위한 2차대책으로서 연결송수관설비는 필수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소방법기술기준에서는 하나의 放水口로부터 해당층의 각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放水口의 설치갯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실제 대부분의 건물들이 방수구의 추가설치가 가능한 구조(예컨대 계단실이 더 있는 경우) 일지라도 이 기준갯수만의 방수구설치에 국한시키고 있는 바, 이 기준에만 국한하지 않고 계단실이 존재하는 곳에는 가능한 한 모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보조설비로서의 그 효능이 충분히 평가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이 허용한다면 가급적 도입하여 相助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소화설비의 구상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배수문제와 스프링클러설비의 제거밸브설치장소에 관한 문제이다. 물소화설비의 작동시 쏟아질 물의 배수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Water Damage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계단실과 같은 避難路에서의 물의 흐름은 피난군중에 대해 부상자를 내게할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그 구조와 기능

상 원칙적으로 최소한 매층마다 제거밸브가 설치되는데, 건축의 구조계획시 이 밸브의 설치장소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건축설비용의 수직샤후트내에 스프링클러立上管과 더불어 제어밸브도 설치하고 있는데, 샤후트내의 설치가 별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나, 화재발생시부터 완전진화시까지 어느때라도 제어밸브 설치지점까지의 안전접근이 가능한 구조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어밸브는 평상시(비화재시) 시스템의 보수유지관리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재현장에 임하는 소방진압대원이 진화상황을 관찰, 판단하여 불필요한 Water Damage를 막기위한 조치로서 送水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아울러 존재하는 까닭이다.

이제까지 건물내의 물소화설비계획에서 유념해둘 필요가 있는 소화설비의 기본적인 방호특성과 적응성을 위주로 하여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하나의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건축설비가 뒤따름으로써 전기실, 기계실등의 대상처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산실과 같은 특수용도의 장소가 등장할 수가 있다. 이들중에는 변전실, 전산실등과 같이 물소화설비의 적용이 곤란한 전기시설물을 갖춘 곳이 많다. 이런 대상처에 대한 요즈음의 소화설비경향을 보면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특히 그 중에서도 하론1301을 이용하는 설비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론1301은 매우 탁월한 소화약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간에는 마치 이 약제 어떠한 형태의 가연물 연소에도 그 효과가 만능인듯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론1301은 현시대가 개발한 뛰어난 약제임은 틀림없으나 가연물의 불꽃연소에 대해 어느 다른 약제보다 탁월한 소화효능을 가질뿐, 酌熱燃燒에 대한 효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약제는 전형적인 불꽃연소 상을 보여주는 소규모의 B급화재에 매우 신속하고 강력한 소화력을 갖지만, A급화재의 가연물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深部性의 불, 소위 속불에 대해서는 소화가 달성되는 데에 걸리는 소요시간이 비교적 길다. 深部火災의 형태를 보여주는 가연물의 종류와 물질의 구성형태 및 배열상태 등에 따라 소화경과시간은 천차만별이어서 대개 10분~1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으로는 12시간이상 걸리는 것도 있다. 건물내의 전기실이나 전산실등의 화재시에는 A급화재특성을 나타내는 가연물(주로 합성수지류)의 연소가 보통이며, 이들의 완전소화에는 대개 최소한 10분정도의 경과시간을 요한다. 그것도 그 실내에 소화에 필요한 하론의 適正濃度가 저하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경우에 그러하다. 이를 위한 濃度유지시간을 Soaking Time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화재시 연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불꽃연소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는 일단 소요농도의 약제를 짧은 시간내에 실내에 공급해줄 필요가 있으나, 酌熱燃燒의 완전진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Soaking Time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약제가 일단 방출되었더라도 所要濃度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외로의 약제누설만큼은 Soaking Time 동안 계속 공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전기실은 區劃部分을 통하여 많은 틈새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Soaking Time동안 적정량의 약제를 반드시 Compensate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소방법에는 Soaking Time에 관해 지금까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것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電算室과 같은 장소는 그 특수한 용도때문에 대단히 양호한 밀폐구조로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방출되는 약제의 소요농도가 비교적 장시간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Soaking Time이 고려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2-2. 화재에 대한 방어(Fire Defence)

화재에 대한 방어는 곧 화재의 진행 및 확대를 방지하는 일이다. 화재시에는 불꽃과 열은 물론 연기 및 연소개스(이 글에서는 이 두가지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이하 연기로 통칭하기로 한다)도 수반되며, 화재의 진행 및 확대는 이들 燃燒生成物의 확산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에 대한 방어계획은 불꽃과 열에 대한 방어와 연기에 대한 방어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연기에 대한 방어는 인명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요점이다. 특히 연기의 확산문제는 화재구역과 인접구역간의 기압차에 의한 확산과 더불어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와 높이 때문에 야기되는 Stack Effect로 인하여 화재시에 당면하는 최대의 딜레머가 된다.

가. 불꽃과 熱에 대한 防禦

(1) 건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측면의 방어

건물의 구조면에서 불꽃과 열의 진행 및 확대를 막는 길은 첫째, 건물의 내부를 방화구역화함으로써 불꽃과 열을 계획된 구역의 공간내에 한정시키는 것이며, 둘째, 주요구조부 및 방화구획에 적절한 耐火性(Fire Resistance)을 갖게 하며, 세째, 건축설비(Building Service Facilities)와 건물의 내부마감(Interior Finish)에 불연성 또는 難燃性(경우에 따라서는 내열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특히 방화구역화는 불꽃과 열에 대한 공간적 제한에만 그치지 않고 소화설비의 효과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① 건물의 방화구역화

건물의 방화구역은 기본적으로 垂直區域化(層間區域)와 水平區域化로 계획되지만, 피난통로서의로 수직샤후트(예컨대 계단샤후트 또는 엘리베이터샤후트)를 비롯한 다수의 샤후트(건축설비물 전용의 샤후트등)이 별도로 추가된다. 이들 방화구역간의 開口部나 틈새는 화가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건에 따라 방화벽, 방화문, 방화셔터 또는 방화댐퍼 등이 사용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최소한 인명의 대피와 소화에 필요한 시간만큼은 충분한 내화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開口部에 대한 조치물이 같은 시간의 내화율(Fire Resistance Rating)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바닥의 면적이 매우 크거나, 복합적인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수평구역화를 도모하여 화재를 발생구역에 한정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도 경제적 여건과 건물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유사시 피난의 효과성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작은 구역으로 제한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나아가서 이질적인 위험처소는 필히 구획하여 상호 방화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

방화구역중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바의 구역내에서도 용도와 건물 운용의 편의에 따라 다수의 작은 구역이 형성되는 일이 많은데, 이들 구역간의 開口部나 틈새도 여건이 허용되는 한 모두 철저히 화기차단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구역이 스프링클러설비로 방호될 때는 구획을 지나는 덕트내의 開口部에 대한 화재시의 폐쇄조치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건축법상의 구획을 지나는 덕트만은 그렇지 않다. 건축법상의 구획에 대한 화기차단조치 문제는 건물의 소방준공 동의시 반드시 소방당국의 확인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준공동의시 큰 곤욕을 치루는 일이 아주 잦으므로 필히 유념해 두어야 한다.

② 주요구조부 및 방화구획의 내화성 부여

주요구조부 및 방화구획물은 곧 건물의 기둥, 벽, 바닥등으로서 개구부의 폐쇄장치(출입문, 창문, 셧터, 댐퍼등)가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내화성의 부여는 火熱로부터 건물의 온전성(Integrity)보존과 열전도의 누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화재의 확대방지 및 건물의 사후 운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화성의 정량적 기준은 표준내화율로서 그 단위는 시간이다. 현재 국내에는 건축재료의 내화율에 대한 공인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추진중인 방재시험소가 운영되면 한국적 현실에 부합되는 자료가 서서히 정립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③ 건축설비와 내부마감에 대한 불연성 또는 難燃性 부여

이 조치는 화재의 예방을 비롯하여 화재의 진행과 확대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건축의 내장재를 불연성의 것이나 비교적 내화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방염처리를 함으로써 불의 전파를 막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2) 消火設備側面의 방어

소화설비의 기능에 의한 불꽃과 열의 방어는 폐쇄불가능한 개구부를 통해 화재의 전파가 예상되는 지점에 소화설비를 이용하여 불을 차단하는 경우외에는 소화설비의 활동에 의한 불의 억제효과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건물내에서 가연성의 위험요소가 존재할 것으로 豫期되는 장소에는 가급적 모두 소화설비의 적용을 고려함으로써 불에 대한 구조적 방어계획과 상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호에 계속)

기고안내

숲誌는 영원한 우리의 기록이며 유일한 홍보매체입니다

■ 회원작품 카드 접수

- 별첨 요령에 의한 작품카드를 항상 접수합니다.
- 접수된 작품은 회지에도 게재되고, 유관 단체(기관)의 건축상 추천자료가 됩니다.
- 자료실을 통해 영구 보존됩니다.

〈작품카드 용지는 소속지부에서 별도 배부합니다.〉

■ 대화의 광장〈이야기 좀 합시다〉 고정란 신설

- 회원업무와 관련된 좋은일 나쁜일
- 관계법과 연관된 각종 의견
- 협회에 대한 의견
- 건축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
-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

〈紙上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길을 모색합시다. / 원고길이 : 200자원고지 10매 정도〉

■ 그밖에 원고도 부탁합니다.

- 각종 문예 원고(수상·꽁트 등)
- 논문·자료 등

〈테마에 제한 없음니다.〉

□ 보낼곳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 강남구 서초동 457-3(금강빌딩 4층)

정화 칼럼

솔잎송편 먹기

任 仁 爀
大韓建築士協会事務處長

송편은 겉맛을 즐기기 위해 먹고 만두는 속맛을 즐기기 위해 먹는다고 한다.

송편은 속도 중요하지만 살이 도톰해 깨물이 부드럽고 깊숙해야 묘미가 난다. 그래서 송편은 속보다는 겉맛의 멋에 더욱 신경을 쓴다. 찔 때 솔잎을 켜로하여 뜨거운 김에 쪄냄으로써 솔향이 물씬거리게 하는 것도 그 한 이유일 것이다. 향긋한 솔냄새 배지않은 송편은 요즘 속된 표현을 빌린다면 〈김빠진 맥주〉나 진배 없다.

최근 우리는 솔잎과 함께 쪄낸 송편을 먹기가 퍽 힘들어졌다. 기껏해야 베보자기를 깔아 쪄낸 송편이 고작이다. 산에 나뭇잎조차도 긁지 못하게 하는 산림정책이 그 원인이다. 나뭇잎도 긁지 못하게 하는데 생 솔잎을 어떻게 뜯어갈 수 있단 말인가. 조그만 몸에 고슴도치처럼 돋아 붙은 솔잎을 떼어내며 베어먹던 송편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

추석 때 솔잎을 구하지 못하면 아예 송편을 빚지도 못하게 했던 나다. 땀을 빼는건 떡을 빚는 이들이다. 은근히 솔잎을 구해다 만들라는 암시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의 고집장이들이 주변에는 더러 있나보다. 그걸 겨냥하는 솔잎장수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짐작이 된다 대소쿠리에 소담스레 쌓아놓고 한 사발에 얼마씩 파는 아낙네들이 추석 밑쯤 되어 시장에 나타나는데, 팔리는 기세가 〈들어 번쩍〉이다. 〈들어 번쩍〉 바람에 아낙네들도 어떻게 어떻게 구해온 것일 거다. 물론 그 〈어떻게〉라는 것이 위법행위인 것만은 틀림 없으니 그걸 사는 사람들은 방조자 내지는 공범자일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솔잎 송편을 만들라고 강요했던 내가 그걸 마다하게 된 것은, 몇년 전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서이다.

동네를 에워싸고 있는 뒷산 일대에 소나무 묘목을 식목했는데, 막 활착하여 그 애잔한 모습이 마치 코스모스 같던 때였다. 한가로이 주위 경관을 즐기며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저만치서 한 아낙네가 어린 소녀를 데리고 바구니에 열심히 무언가를 따 담으며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무언가 하여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그 아낙네와 소녀는 이제 막 활착한 어린 소나무 그루에서 무자비하게 솔잎을 따내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나 암팡지게 솔잎을 후려쳐 내는지 홱 홱 솔잎을 챌 때마다 그 작은 묘목 그루는 몸둥이가 뿌리채 뽑힐듯이 돌썩거리며 흔들렸다. 어린 묘목에 솔잎이 몇 잎이나 달려 있다고 그걸 뜯어내는지.

"안돼요, 따지 마세요!"

그건 마치 생 병아리 몸에서 털을 뽑아내는 무자비한 손길 같았다. 생 병아리나 어린 소나무나 따지고 보면 다를게 무얼까? 병아리가 아프다고 피흘리며 비명을 지른다면 소나무인들 피 안흘리고 비명 안지를까?

순간 나는 그렇게 억지로 즐기던 솔잎 송편에서 얼룩진 피를 보는것 같았고 소리없는 비명을 듣는것 같았다.

11월은 육림의 달이다.

나무심기에 주력하던 정책을, 심은 나무 가꾸기에 주력하는 정책으로 전환한지 8년—. 이제 그 산림정책이 주효하여 그렇게 흔하던 우리 주변의 붉은 산이 서야에서 사라졌다. 심은 나무 가꾸기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쓰면 내조국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와지는 걸 왜 몰랐을까? 그 어리석음으로 솔잎 송편 먹기와 내 조국강산 가꾸기를 맞바꾸겠는가?

우리는 오늘도 직장정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며 계도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화 방법이 동원된다 할찌라도 진정 나 스스로를 정화의 대상으로 삼지않고, 냉엄한 자기 반성으로 자기 변혁을 꾀하지 않는한, 그것은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심은 나무 가꾸기의 범국민적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면에서 송충이 솔잎 갉아먹듯, 〈솔잎 송편 먹기〉와 같은 어리석은 반정화인적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일이 있을테니까 말이다.

建築輸送設備工事標準示方書

宋　　煐
漢陽大学校 建築工学科 教授
大韓建築士協会 設備研究分科委員

머 리 말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建物의 대형화, 고층화가 가속되는 근래 건물에 있어서 수송의 대량화, 고속화를 요구하게 되어 건물의 수송설비도 필수설비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 建築輸送設備는 사람을 수송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용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이동보도 등이 있으며 물품을 수송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물용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버티칼 콤베이어, 케이스 콤베이어, 기송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주로 건물의 縱系統의 대표적인 교통기관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설비공사의 標準示方書로서 공기조화·위생설비공사와 전기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건축수송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제정되지 않하여 각 제작회사의 시방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그 제작회사의 특색에 따라 시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건축주와 제작회사, 시공자 간에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설비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建築輸送設備工事標準示方書을 연구조사하여 여기에 건축계에 내놓게 되었다. 앞으로 본시방서가 건축설비기술의 질적향상에 기여하도록 많이 활용할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기재의 개발과 새로운 설비에 맞추어 향상과 현실에 부합대는 시방서가 되도록 계속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한다.

끝으로 본 시방서 집필하는데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제작회사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84. 10.

大韓建築士協會 設備研究分科委員會

委員賞	朴 容煥	星亜技特社
執筆委員	宋　煐	漢陽大學校
委　員	閔 滿基	高麗大學校
〃	孫 章烈	漢陽大學校
〃	李 永洙	새한設計콘설탄트
〃	曺 永民	나온建築設備
〃	黃 元沢	三新設備研究所
〃	愼 化仁	文有鉉電氣設計事務所
〃	金 相旭	東方電子産業株式會社

제 1 장 一般共通事項

제 1 절 總　則

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特記示方(이하 特記라고 함)을 제외하고 건축물·건조물에 시설하는 수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일반사항

이 시방의 일반공통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제 1 장 일반공통사항의 각항을 준용한다.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사의 시방은 각기 당해 시방사항을 준용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의한다.

(1) 감독이 지시하는 장치, 기기, 재료 등은 제작전에 설치도면,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장치, 기기, 재료 등의 선정은 미리 감독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2) 감독이 지시하는 곳은 미리 施工図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1.1.3. 기기 및 기타

각 기기의 종류, 형식, 규격, 수량, 배치 및 특성은 特記에 의한다. 特記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제작소의 표준품으로 그 기능이 만족한 것은 감독의 승인을 받아 그 표준품을 사용한다.

1.1.4. 시방의 누락

이 시방에 누락된 사항과 위배된 사항이 있더라도 제작시설자는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제반 기능이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제작시설을 하여야 한다.

1.1.5. 관계법규 및 관공서 수속

이 공사는 건축관계법규, 근로안전관계법규, 전기법규 및 KS규격 기타 관공서의 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제작 시공하여 모든 기기, 부품, 재료 등은 신품을 사용하고 KS지정품은 그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절 工事区分

1.2.1. 수송설비의 건축공사

수송설비와 관계되는 아래의 건축공사는 특기하지 않는 한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1) 수송설비의 기계실, 開口部 및 보강

(2) 수송설비의 기계실의 바닥 경양콘크리트공사 및 기계설치후 바닥 천정 및 벽의 마감공사

(3) 기계실의 천정, 에스컬레이터의 최상층의 천정 등에 機器引揚用 혹 또는 트롤리 빔의 설치

(4) 기계실의 방음공사와 환풍기설치용 프레임 설치공사

(5) 기계실의 도어 그릴 설치

(6) 승강로내의 중간보 및 핏트 내 간막이공사

(7) 철골구조인 경우 중간보의 브래키트 설치

(8) 철골보에 내화처리할 부분의 브래키트 부착용 베이스프레이트 및 승강장 문턱받침 보 또는 도어기구 支柱支持用 베이스프레이트의 설치

(9) 승강기의 각 층 출입구 및 통과층의 비상구 설치와 비상용 사다리 설치

(10) 핏트 点検口 설치공사

(11) 핏트의 방수 및 배수통 설치

(12) 핏트 하부를 사용할 경우의 건축상 보강

(13) 승강로의 우수 침입방지공사

(14) 승강장 밑지방 콘크리트 내어치기

(15) 승강장 각종 表示器設置用 구멍뚫기

(16) 에스컬레이터 주위의 방화·방범샷터 설치

(17) 에스컬레이터 天井狹角部의 보호장치

(18) 에스컬레이터 層표시, 보호대, 낙하방지 등의 설치

(19) 에스컬레이터용 상부 기계실 점검용 뚜껑

(20) 상기 외에 기술적으로나 意匠的으로 건축공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1.2.2. 수송설비의 공기조화·위생설비공사

수송설비와 관계되는 아래의 공기조화·위생설비공사는 특기하지 않는 한 공기조화·위생설비공사에 포함한다.

(1) 기계실의 환기 및 냉난방공사

(2) 에스컬레이터의 低面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 상기 외의 기술적으로 공기조화·위생설비공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공기조화·위생설비공사에 포함한다.

1.2.3. 수송설비의 전기설비공사

수송설비와 관계되는 아래의 전기설비공사는 특기하지 않는 한 전기설비공사에 포함한다.

(1) 기계실내 受電開閉器 1次測 단자의 전원 및 접지선 공급공사와 수전개폐기설치공사

(2) 비상용엘리베이터설비의 경우 전원의 비상전환장치공사

(3) 기계실내의 방송설비의 배관배선공사

(4) BGM 방송설비의 배관배선공사

(5) 각종 전동기의 進相콘덴서 설치와 배관배선공사

(6) 기계실내, 승강로내 및 핏트내의 보수용 콘센트 설치공사 및 기계실의 전등공사

(7) 화재경보설비공사

(8) 승강로외의 인터폰용, 감시용, 표시 신호용 등의 배관배선공사 및 승강로 외의 엘리베이터 監視盤用 배관공사 다만 結線 및 通話導通試驗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포함한다.

(9) 상기 외의 기술적으로 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는 감독과 협의하여 전기설비공사에 포함한다.

1.2.4. 기타 여외공사

다음 수송설비공사용 물자 및 장소는 특기하지 않는 한 무상으로 지급 공급한다.

(1) 설치공사용 전력, 물, 시멘트, 모래 및 비계재료의 지급

(2) 시운전용의 전력공급

(3) 다른 공사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비용 일체

(4) 설치공사 현장사무소, 기재창고, 공사 중의 주위울타리의 가설공사

(5) 기타 수송설비공사에서 할 수 없다고 감독이 인정하는 사항

제 2 장 乘用엘리베이터 設備

제 1 절 一般事項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일반 乘用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특기시방

아래 사항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1) 종류와 각 부분의 외장

(2) 대수

(3) 昇降行程과 停止数

(4) 운전방식과 운전관리

(5) 부가장치(과부하보호장치, 인터폰장치, BGM 방송장치, 비상조명장치 등)

(6) 전원의 전압과 주파수

(7) 耐震措置

제 2 절 機械室

捲揚機는 아래에 의한다.

2.2.1. 捲揚機

(1) 기어레스 권양기는 전동기軸에 구동로우프차와 브레이크드럼을 圧入하여 직결구조로 한다.

(2) 기어드 권양기는 전동기의 회전을 웜엄기어로 감속하고 구동로우프차로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3) 구동로우프차는 고급 鑄양製로서 호이스팅로우프에 적합한 특수슬롯형을 정밀하게 기계가공한 것으로 그 徑은 로우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4) 기어드 권양기의 웜엄휘일은 고급 青銅製, 웜엄은 특수강제로 하고, 그 샤프트 끝은 쓰러스트 하중을 받는 베어링을 사용하고, 웜엄기어는 윤활유를 넣은 기어케이스 안에서 회전하는 구조로 한다.

(5) 주베어링은 구름베어링을 사용하든가 또는 윤활장치가 있는 고급베어링 합금제 평면베어링으로 한다.

(6) 기어드 권양기인 경우는 정전시 수동으로 용이하게 카를 승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 共通台盤

권양기에 공통대반을 요하는 것은 그 구조를 단일구조로 하고 주철제 또는 형강, 혹은 강판을 용접한 것으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3. 머시인 비임

머시인 비임은 안전계수 4 이상의 I형鋼, ㄷ형鋼 또는 H형鋼으로 한다.

2.2.4.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直流電磁式으로 운전중에는 항상 개방되며, 전류가 차단되는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카의 적재하중의 125%를 적재하고 하강할 경우에도 카를 감속 정지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브레이크슈는 강력한 스프링 힘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을 조이는 것으로 그 힘은 자유로

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카의 이동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지하여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가) 行程의 兩限界에 도달했을 때

(나) 카가 과속도가 되었을 때

(다)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했을 때

(라)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마) 카의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에 결함이 생겼을 때

5·2·5. 전동력 및 전동발전기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는 아래에 의한다.

(1)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것으로 비교적 적은 始動電流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빈번한 시동정지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그리고 또 전동기의 시동전류 실효치는 다음 범위 내로 한다.

(가) 직류엘리베이터인 경우 450% 이하

(나) 교류엘리베이터인 경우 500% 이하

(2) 전동발전기의 설치는 防振고무 등으로 기초와 절연시키어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전동기 및 전동발전기는 KS C 4002(회전전기기계통칙)에 의하여 다음 각종 시험을 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또 필요에 따라 전력회사의 시험을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특성시험

(나) 온도상승시험

(다) 耐電圧시험

2.2.6. 盤 類

전원반·제어반·기동반 등은 아래에 의한다.

(1) 캐비닛은 두께 1.6㎜ 이상의 강판제에 인산염피막 처리를 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 구조로 한다.

(2) 각 盤類는 동일 캐비닛에 모아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3) 각 반류는 기계실에 설치하여 각 盤間의 배선접속은 端子台 또는 커넥터와 같은 것으로 한다. 다만 항상 통전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단자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구단자로 접속하여도 무방하다.

(4) 전원반은 자유형 또는 壁付形으로 하며 다음 기구와 기타 필요한 장치, 기구 등을 구비한 것으로 한다.

(가) 배선용차단기

(나) 전류계(KS C1305 전동기용 연장눈금전류계

(다) 전원표시등

배선용차단기를 부착한 전원반은 문짝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5) 制御盤은 원칙적으로 자립형으로 하여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단전기 및 기타 필요한 장치, 기구 등을 구비한 것으로 한다.

(6) 전동발전기의 起動盤은 원칙적으로 자립형으로 하여 다음 기구와 기타 필요한 장치, 기구 등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전원용 전자접촉기

(나) 가속용 전자접촉기

(다) 저항기(抵抗起動方式인 경우)

(라) 과부하보호継電器

(7) 전자접촉기 및 제어용 계기는 아래에 의한다.

(가) 주회로용은 KS C 4504 교류전자개폐기의 3호 1종으로 한다. 다만 전기적 수명은 10만회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용은 기계적 수명이 500만회, 전기적 수명이 150만회 이상으로 한다.

2·2·7. 신호회로 및 전등회로

신호회로에 접속한 처강변압기의 2차측을 사용하고 전등회로(220V 카내의 전등) 전원은 별도공급한다. 그리고 카내의 비상용 전원은 특기하지 않는 한 카내에 내장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공급할 경우는 특기에 의한다.

2·2·8. 盤外配線과의 접속

盤外로 부터의 배선의 접속은 모두 단자접속으로 하며 단자는 선번호를 부기한다.

2·2·9. 자동착상장치

카는 전압변동 5% 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기계실내 온도 10~40°C에 있어서 적재하중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착상하는 것으로 그 精度는 표2.1의 값 이내이어야 한다.

〈표 1·1 着床精度

단위 : ㎜

제어방식 / 정격속도	교류 2 가속도	직류가변전압
45m / min 이하	±20	—
60m / min 이하	± 25	—
90m / min 이하	—	± 10

2·2·10. 승강장 선택장치

신호방식, 群乘合 전자동방식 등의 운전조작방식외의 경우는 제어반 이외에 승강장 선택장치를 설치하고 승강장의 다수 호출을 정확히 선택하여 운전한다.

제 3 절 카

2.3.1. 카의 규격과 의장

카의 속도, 적전량, 크기 및 의장은 특기에 의한다.

2.3.2. 카의 프레임

카의 프레임은 아래에 의한다.

(1) 카의 프레임의 구성은 상부 프레임, 하부 프레임, 수직 프레임, 바닥 프레임 등으로 구성하며 주요구조부는 강재를 사용하고 프레임의 이음은 리벳, 보울트 조임이나 용접으로 견고히 제작한다. 카의 상하부의 프레임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했을 때 프레임의 유효길이의 1/1000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카에 사용하는 재료의 안전계수는 7.5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카의 프레임과 카의 바닥 및 카실과의 사이를 방진구조로 한다.

2.3.3. 카 바닥

카 바닥은 아래에 의한다.

(1)카 바닥은 두께 3.0㎜ 이상의 고무타일 또는 2.0㎜ 이상의 합성수지계 타일을 붙인 것으로 硬質알루미늄제의 문지방으로 한 다음, 다음 (가) 또는 (나) 중 어느 한가지의 구조로 한다.

(가) 프레임을 강재로 짜서 鋼棒으로 가로질러 그 위에 두께 2.3㎜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으로 한다.

(나) 프레임을 강재로 짜서 강봉이나 통나무를 가로질러 그 위에 두께 1.0㎜이상의 보통합판을 깐다. 바닥 뒷면 전체는 두께 0.5㎜ 이상의 강판을 붙여서 방화구조로 한다.

(2) 카 바닥의 앞면에는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서 길이 750㎜ 정도의 금충성 에이프런을 설치한다.

2.3.4. 카室

카실은 아래에 의한다.

(1) 카실의 안쪽은 形鋼으로 보강된 고급연마강판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판의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판자체의 휨, 용접에 의한 휨, 기타에 의한 휨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카의 천정과 카의 벽 등의 접합은 스프링워샤가 붙은

보울트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인다.

(3) 용접은 薄板용접에 적합한 방법으로 한다. 전기용접으로 할 경우는 스포트용접을 주로하고 아아크용접을 할 경우는 박판용접봉을 사용한다.

(4) 천정에는 최소한 폭이 400㎜ 이상, 넓이가 0.2m² 이상의 비상구 출구을 설치한다.

(5) 카 상부에 보수 점검용 콘센트와 보수 운전용 푸쉬버튼 개폐기 및 운전 정지용 안전개폐기를 설치한다.

(6) 카실내에는 다음 장치를 설치한다.

(가) 카조작반

(나) 조명기구

(다) 환풍기

(라) 過積경보장치

(마) 인터폰

(바) 비상등(전원은 자동충전식 축전지로 하고 정전시는 자동전환장치, 복구시는 자동복구장치에 의한 것으로 30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사) 카 내 위치표시기

(아) 각층 안내표시판

(자) 용도, 적재하중 및 최대정원을 명시한 표식

(차) 구내방송용 스피커

(카) 보수용 콘센트

(타) 빽미러

(파) 핸드레일

(하) 기타 필요한 기구

2.3.5. 카의 문

카의 문은 아래에 의한다.

(1) 카의 문은 두께 1.2㎜ 이상의 고급연마강판제 플랫슈문으로 그 시방은 2·3·4카실에 준한다.

(2) 중앙개폐문의 끝부분에는 緩衝物을 삽입 설치한다.

(3) 자동방식의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문에 세이프티슈를 설치하든가, 또는 光電裝置 등을 설치하여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질 때 인체 등이 세이프티슈에 닿는 경우, 또는 광선을 차단했을 경우 즉시 반전하여 문이 열리는 구조로한다.

(4) 문은 도어행기에 의하여 견고히 달아매고 부속부품을 설치하는 장소는 보강을 충분히 한다.

2.3.6. 문의 개폐장치

문의 개폐장치는 전동자동개폐장치로서 카의 문과 승강장의 문을 정숙하고 원활하게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3.7. 카의 조작반

카의 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서 헤어라인 마감한 것으로 하며 카의 내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그리고 반에는 다음 설비를 갖춘다.

(가) 行先層用 버튼 또는 조작용 레버 또는 버튼

(나) 조명용 개폐기

(다) 비상정지용 개폐기

(라) 환풍기용 개폐기

(마) 전동발전기의 전원스위치 및 표시등

(바) 기타 운전에 필요한 장치

(2) 수동조작식과 자동조작식의 병용엘레베이터는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환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3.8. 카 내 위치표시기

카 내 위치표시기는 점등에 의하여 카 위치를 표시하며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헤어라인 마감 또는 알루미늄제로 하여 카 내의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든가 카 조작반에 갈이하여 조립한다.

제 4 절 乘降路

2.4.1. 세컨다리 시이브(牽引풀리)

세컨다리 시이브를 필요로 할 경우는 고급주철제로하여 와이어로우프에 적합한 홈을 정밀하게 기계가공한 것으로 그 직경은 로우프 직경의 36배 이상으로 한다.

2.4.2. 레 일

레일은 아래에 의한다.

(1)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제작한 T形鋼을 사용하며 그 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2) 레일의 사용구분은 표 2·2를 원칙으로 한다.

(3) 레일은 소재의 휨을 제거하고 3면을 정밀하게 기계 마감한 것으로 한다. 이의 두께의 치수공차는 0.1㎜ 이내로 한다.

(4) 이음은 장부이음(moritse)으로 하고 이음판으로 접속한다.

(5) 레일은 레일브래키트로 핏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러브까지 설치한다. 다만 승강로 상부 슬러브까지의 여유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표 2·2〉 레일의 使用区分

단위 : kg

카의 자중과 적전하중의 합계 또는 비상정지가 붙은 均衡錘의 중량	비상정지가없는 均衡錘의 중량	레일의공칭중량
1,750 이하	3,800 이하	8 이하
2,500 이하	6,800 이하	13 이하
4,500 이하	9,500 이하	18 이하
6,800 이하	13,600 이하	24 이하
9,500 이하	19,000 이하	30 이하

2.4.3. 레일 브래키트

레일 브래키트는 아래에 의한다.

(1) 레일 브래키트는 강도 높은 강판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여 승강로 벽체 또는 보에 레일의 중심이 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레일사이즈, 엘리베이터에 걸리는 하중등을 고려하며 정격속도에 의한 간격은 원칙적으로 표 2·3에 의한다.

〈표 3〉 레일의 支持間隔

단위 : ㎜

정 격 속 도 (m / min)	최 대 간 격
45 이하	3500
45 이상 95 이하	3000
90 이상	2500

2.4.4. 레일의 윤활장치

레일의 윤활장치는 슬라이딩 가이드슈를 사용하며 급유가 필요한 경우는 레일에 적절한 급유장치를 설치한다.

2.4.5. 메인 로우프

메인 로우프는 KS D 3514(와이어로우프)의 규정에 의한 엘리베이터용 와이어 로우프로 하며 그 안전계수는 10 이상으로 한다.

(2) 로우프의 직경은 12㎜ 이상으로 한다.

(3) 메인 로우프는 3줄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1 줄 마다 강제소켓에 바비트로 채우거나 쐐기식 로우프 잡아매는 철물로 결박한다.

2.4 6. 張力平衡用 스프링

메인 로우프의 끝을 잡아 매는 부분은 장력평형용 스프링을 설치하여 각 메인 로우프의 장력이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걸

리도록 한다.

2.4.7. 로우프 중량의 보상장치

엘리베이터의 昇降行程이 길어 로우프차의 쇄인력 등에 악영향을 줄 경우에는 권양로우프의 중량을 보상하는 균형체인 또는 균형로우프를 설치한다.

2.4.8. 均衡錘

均衡錘는 강제 브럭으로 하여 용이하게 가감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강제함 또는 2개 이상의 판통 보울트 혹은 縮結棒, 로크너트 분할핀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4.9. 가이드슈

가이드슈는 레일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가이드슈 또는 로우라 가이드로 하여 어떤 경우라도 레일 방향의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均衡錘用 가이드슈는 고정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4·10. 중간보

엘리베이터를 동일한 승강로에 2대 이상 설치할 경우와, 승강로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레일, 배관 등을 부설하기 위하여 강도가 충분히 I형鋼 또는 ㄷ형鋼으로 중간보를 설치한다.

제5절 乘降場

2·5·1. 출입구의 意匠

승강장의 엘리베이터 출입구의 意匠은 특기에 의한다.

2·5·2 문설주

문설주는 아래에 의한다.

(1) 문설주는 두께 1.5㎜ 이상의 고급연마강판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이면에 적절한 보강을 하며 판 자체의 휨 및 용접 기타에 의해서 생긴 휨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판의 구부림 가공은 각도를 정확하게 내며 모서리 선은 똑바로 하여 비틀어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용접은 2·3·4(카실) (3)항에 준한다.

2·5·3. 밑지방

밑지방은 경질알루미늄으로 하여 보울트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2.5.4. 乘降場門

乘降場에서 엘리베이터에 출입하는 승강장문은 아래에의한다.

(1) 승강장문은 두께 1.5㎜ 이상의 고급연마 鋼板을 사용한 플랫슈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이면에 적절히 보강한다. 기타는 2·5·2 문설주에 준한다.

(2) 도어행거는 베어링을 넣는 것으로 경쾌하게 동작하여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도어행거 기타 부속기구를 다는 곳은 모두 충분히 보강한다.

2·5·5. 승강장 버튼

승강장의 버튼은 점등식으로 하며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강판제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2·5·6. 위치표시기

위치표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1) 위치표시기는 점등식으로 하여 카의 위치, 진행방향, 자동, 만원, 정지 등을 표시하며 각층 엘리베이터 출입구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든가 승강장 버튼 커버플레이트 상단에 같이 설치한다. 그 외장은 특기에 의한다.

(2)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강판제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3) 群管理方式인 경우는 도착공을 설치하여 특기에 의하지 않는 한 카의 진행방향표시기만 설치한다.

2.5.7. 도어록

도어록은 각 승강장마다 한조씩 설치하고 운전중 승강장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완전히 잠글 수 있는 인터록과 전기스위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인터록식으로 한다.

제6절 安全裝置

2.6.1. 리미트 스위치

이 스위치는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지나쳐 버리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2.6.2. 파이날 리미트 스위치

이 스위치는 乘降行路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카가 현저히 지나쳐 버린 경우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동작했을 경우는 카내의 조작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2.6.3. 과속안전스위치

본 장치는 調速機에 설치한 전기개폐기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0% (카의 정격속도가 45m/min 이하인 때는 63m)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전원을 차단 브레크가 작동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2.6.4. 비상정지장치

본 장치는 調速機에 연동된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하강속도가 140%(카의 정격속도가 45m/min 이하인 때에는 68m)를 초가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잡아 조여 카를 정확하게 정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형식은 정격속도에 따라 표 2.4와 같다.

〈표 4〉 非常停止의 形式

정 격 속 도 (m/min)	
45 이하	조기 비상정지장치
45를 초과하는 것	점차 비상정지장치

2.6.5. 완충장치

완충장치는 아래에 의한다.

(1) 본 장치는 카 및 均衡錘 바로 밑에 설치하는 것으로 완충기는 엘리베이터 핏트 바닥에 설치한 鋼製台에 견고히 조여 붙인다. 형식은 엘리베이터의 정격속도에 따라 표 2.5 와 같다.

〈표 5〉 緩衝器의 形式

정 격 속 도 (m/min)	형 식
60 이하	스프링식 완충기
60을 초과한 것	유압식 완충기

(2) 스프링식 완충기는 강력한 코일스프링을 사용하며 스프링 재료는 KS D 3701(스프링강)에 규정된 스프링용 강으로 소정의 재료시험을 거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카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표 2.6을 따르고 완충기용의 필요행정은 40㎜ 이상으로 한다.

〈표 2.6. 카용 스프링 緩衝器의 必要行程〉

단위 : ㎜

정 격 속 도 (m/min)	형 식
30	50 이상
30을 초과 45 이하	65 이상
45를 초과 60 이하	100 이상

(3) 油圧式 완충기는 플렌저와 유압시린더로 구성된 것으로 어느 것이나 耐圧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시린더의 내변을 움직이는 부분은 정밀하게 기계연마 마감으로 하며 플렌저 외면은 円筒硏磨로 연마 마감으로 하여 기름이 새지 않아야 한다. 필요행정은 표 2.7과 같게 한다.

〈표 2.7. 油圧式 緩衝器의 必要行程〉

단위 : mm

정 격 속 도 (m / min)	형 식
60을 초과 90 이하	150 이상
90을 초과 105 이하	200 이상
105을 초과 120 이하	270 이상
120을 초과 150 이하	420 이상
150을 초과 180 이하	600 이상
180을 초과 210 이하	820 이상
210을 초과 240 이하	1080 이상

2.6.6. 인터폰

인터폰은 KS C 5515(인터폰 通則)의 규정에 의한다. 그 형식은 전화·스피이커형 동시통화방식의 母子式으로 하며 母機에는 송수화기, 子機에는 스피이커와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상호간 서로 호출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2.6.7. 기타

均衡錘의 비상정지장치 및 정원·하중을 초과했을 경우 또는 경보장치의 적부는 특기에 의한다.

제 7 절 電氣配線

2.7.1. 일반사항

엘리베이터의 전기배선은 內線規程에 의하여 시공한다. 다만 인터폰장치에 있어서는 건설부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 8 장 제 5 절 8·5·2 인터폰 장치에 의한다.

2.7.2. 배선방법

기계실 내, 카內, 승강로 및 각종 盤類에 시설하는 전기배선은 아래 해당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속관배선, 금속 몰딩배선, 금속 덕트덕트배선, 버스덕트배선 및 케이블배선으로 한다.

(1) 配線 終端函에서 기계기구에 이르는짧은 부분을 可撓電線管配線으로 할 경우

(2) 배선 終端函에서 기계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했을 경우

(3) 금속관배선, 금속몰딩배선 및 배선 종단함 등에서 직접 기계기구에 이르는 노출부분의 길이가 6 m 이하로서 이 사이를 600V 비닐절연전선으로 배선했을 경우

2.7.3. 이동전선

승강로내의 接續函 또는 제어반의 단자에서 카의 접속함까지의 이동전선은 엘리베이터용 케이블로 배선한다.

2.7.4. 재료

엘리베이터의 전기배선재료는 아래에 의한다.

(1) 배선은 KS C 3302(600V 비닐전선(IV), KS C 3328(600V 2종비닐 절연전선(HIV) 및 KS C3330(제어용비닐절연 비닐쉬이스케이블)로 한다. 온도가 60°C가 넘는 장소에 사용하는 전선은 耐熱性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한다.

(2) 배선용 금속관은 KS C 3609(강제전선관)에 의한 薄鋼電線管으로 한다.

(3)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은 KS C 3609(엘리베이터용 케이블)로 하고 캡타이어케이블은 KS C 3602(비닐 캡타이어케이블)로 한다.

(4) 승강로 및 카에 시설하는 전선 및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굵기는 표 2.8에 의한다.

〈표 2.8. 電線 및 케이블의 굵기

단위 : mm²

전선의 종류 또는 導体의 구조		導体의 굵기
絶緣電線	單 線	1.2mm² 이상
	撚 線	1.4mm² 이상(주 1)
케 이 블	單 線	0.8mm² 이상(주 2)
	撚 線	0.75mm² 이상(주 2)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0.75mm² 이상

주 1. 配線 終端函에서 기계기구에 이르는 짧은 부분은 0.75mm²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過電流가 생겼을 경우에 제어용 또는 停電用 회로에서 자동적으로 이들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2.7.5. 시 공

엘리베이터 전기배선공사의 시공은 아래에 의한다.

(1) 승강로내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는 위치를 택하여 가이드 레일 등의 구조체에 견고히 설치한다. 그리고 승강로내 및 카내부의 전기기구의 충전부분은 절연피복한다.

(2)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은 자체 하중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성 지지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그리고 운행으로 진동이나 다른 기구에 접촉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接續函內의 전선과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심선과의 접속은 端子로 하고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이동부분에는 접속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4)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 및 인터폰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을 동일 파이프, 덕트 또는 케이블로 시설할 경우는 사용목적 및 전기방식이 다른 弱電流 전선에 있어서도 다른 전선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며 그리고 식별하여야 한다.

2.7.6. 絶緣抵抗値

導体부분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아래값 이상으로 한다.

(가) 동력회로 1MΩ

(나) 제어회로 〃

(다) 신호회로 〃

제 8 절 塗 裝

2.8.1. 일반사항

카내의 문설주 문의 노출부분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의 도장마감을 필요로 하는 곳은 락카, 하이소릿락카, 아미노알키드 樹脂塗料 등의 합성수지도료에 의한 도장으로 한다. 기타 각 장치의 부재는 방청효과가 높은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2.8.2. 도 료

도료는 그 도장, 공법 등에 따라 적격한 것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건축공사 도장공사시방에 준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락카는 KS M—— (락카 에너멜) 또는 KS M—— (크리어 락카)를 주성분으로 한 것.

(2) 하이소릿 락카는 KS M——(하이소릿 락카 에너멜) 또는 KS M——(하이소릿 크리어 락카)를 주성분으로 한 것.

(3)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는 KS M——(아미노 알키드 수지 에너멜) 또는 KS M——(아미노알키드수지 와니스)를 주성분으로 한 것.

2.8.3. 도장표준

도장표준은 아래에 의한다.

(1) 전처리는 燐酸塩化成被膜處理로 한다.

(2) 도장공정은 표 2.9에 의한 표준도장공정으로 한다.

〈표 2.9. 塗裝工程〉

공정 \ 종류		1종	2종	3종
초벌바름		○	○	○
퍼티	1회	○	○	—
	2회	○	○	—
연마		○	○	—
1회재벌바름		○	○	○
연마		○	○	○
2회재벌바른		○	○	○
연마		○	○	○
정벌바름		○	○	○
연마, 버프연마		○	○	—

(3) 표면 마감의 정도 및 표면평면도는 표 2.10에 의한다.

〈표 2.10. 塗裝程度 및 表面平面度

종별	도장정도	표면평면도	적용
1종	도장면에 凹凸이 거의 없고 프엘트 연마의 자국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광이 나는 면이 마감한다.	0.2mm	기어리스 치류엘리베이터
2종	도장면에 凹凸이 거의 없고 프엘트 연마의 자국이 다소 보이는 정도로 광이 나는 면에 마감한다.	0.3mm	기어드 치류 엘리베이터
3종	금속면에 凹凸이 다소 보이는 정도의 면에 마감한다.	0.4mm	교류엘리베이터

주 : 표면평면도는 길이 600mm의 直線尺을 표면에 대었을 때 표의 수치 이상의 凹凸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도장색은 일본엘리베이터협회 엘리베이터용 색견본에 의하며 기타는 도장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9절 附屬品 및 工具

2.9.1. 부속품

엘리베이터는 ※ 아래 부속품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의 확인을 받아 별도로 납품한다. (※ 기계실 1개당)

(가) 捲揚전동기 더어닝핸들(기어드식 捲揚機인 경우) 1개
(나) 브레이크해방장치(기어드식 捲揚機인 경우) 1개
(다) 비상정지 복귀용 핸들(필요할 경우) 1개
(라) 점검렘프(코오드 포함) 1조
(마) 起動用 또는 전환용 키 2개
(바) 도어록 해방용 키 2개

2.9.2. 예비품

예비품은 엘리베이터 1대당 신호표시기용 소형전구 20개를 감독의 확인을 받아 별도로 납품한다.

2.9.3. 공 구

공구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1개당 아래 공구를 목록 작성하여 감독이 확인하고 별도로 납입한다.

(가) 스패너 세트 1조
(나) 드라이버(No. 2 15cm) 각 1개
(다) 플라이어(15cm), 펜치(15cm) 각 1개
(라) 몽키렌치(15cm, 30cm) 각 1개
(마) 한손 해머(225g) 1개
(바) 주유기 1개
(사) 구리이스 주입기 1개

제10절 試 驗

2.10.1. 시 험

시험은 KS F 2802(승강기의 검사표준)에 준하여 실시하며 또 이 공사에 사용하는 機械器具 中 감독이 지시하는 기계기구는 소정의 공장시험을 한 후에 납입한다. 그리고 각 시험 성적표를 작성 제출한다.

2.10.2. 기기의 조정

기계기구의 설치 및 受電설비 완료 후 종합동작시험, 회로의 절연저항측정을 하며 着床裝置, 문의 개폐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2.10.3.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관할관공서의 입회검사로서 한다.

제 3 장 特殊 엘리베이터設置

제 1 절 一般事項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일반 승용엘리베이터 설비 이외의 엘리베이터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단 人荷用 엘리베이터 설비 및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비는 승용엘리베이터 설비의 시방에 준한다.

이 시방은 제1장 및 제2장에 의한 외에 이하 각 절 각 항의 부가 시방에 의한다.

제 2 절 非常用엘리베이터設備

3.2.1. 사용 機器

비상용 엘레베이터의 사용기기는 표 3.1에 의한다.

3.2.2. 표식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승강로비에 설치하는 표식은 아래에 의한다.

(1) 표식의 材質은 스테인레스 강판제로서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2) 표식의 크기는 세로 90mm 이상, 가로 160mm 이상으로 한다.

(3) 표식의 문자는 고직체로 엘리베이터의 용도「비상엘리베이터」를 赤字刻으로 제일 먼저 새기고, 다음 줄에는 최대정원「최대정원 명」, 그리고 끝 줄에는 적재하중「적재하중 kg」을 黑字刻으로 각각 표식한다.

(4) 표식는 승강장버튼 상부에 한다. 단 승강장버튼이 내려붙인 인디케이터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는 인디케이터 상부에 한다.

3.2.3. 비상운전등

비상용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표시등인 비상운전등은 아래에 의한다.

(1) 비상운전등은 비상운전중의 전기간 점등하도록 한다.

(2) 비상운전등의 설치위치는 승강장 인디케이터 또는 홀란턴 내에 설치한다.

(3) 비상운전등의 크기는 40mm×24mm 이상으로 하고 문자는 고직체로서 운전시에 한해서 적색으로 점등 표시가 되도록 한다.

(4) 비상운전시에도 인디케이터 및 방향등은 점등 표시가 되어야 한다.

3.2.4. 비상호출 反戾裝置

비상호출 반려장치는 아래에 의한다.

(1) 피난층 또는 그 직상하층의 로비에 설치하는 비상호출반려버튼은 화재탐지기용버튼(2E, 접점정격 125V, 0.2A2a 접점)으로서 바닥에서 위로 1850㎜ 이상에 설치한다.

(2) 중앙관리실에 설치하는 비상호출반려스위치는 키스위치로서 監視盤과 같은 것에 끼워서 조립한다.

(3) 카 내의 操作盤面 또는 중앙관리실 監視盤 內에 표시등을 설치한다. 자체는 고적체로 하여 비상운전시「비상운전」이라고 적색문자가 표시되도록 한다.

(4) 카 내의 비상정지스위치, 계량스위치 및 光電장치는 호출반려운전중 무효로 한다. 단 계량장치의 경보는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5) 비상호출반려버튼 또는 비상호출반려 스위치를 ON으로 했을 때에는 어떠한 호출도 불응하여 피난층으로 직행 귀환하여 自動着床하고 개문후 대기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호출에도 등록되지 않는다.

3.2.5. 소방운전스위치

소방운전으로 전환시키는 소방운전스위치는 아래에 의한다.

(1) 소방운전으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이하 1차소방운전스위치라고 함)는 키스위치로 하여 카 操作盤 상부에 설치한다.

(2) 1차소방운전스위치에 의하여 소방운전으로 전환했을 때의 엘리베이터의 운전(이하 1차운전이라 함)는 카 내에서만이 운전할 수 있는 전용운전으로 한다.

(3) 도아스위치, 게이트 스위치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장치와 전환스위치(이하 2차소방운전 스위치라고 함)는 스프링백식 키 스위치로 하여 카 操作盤 상부에 1차소방운전 스위치와 나란히 설치한다. 이들 소방운전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에서 18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2차소방운전스위치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이하 2차소방운전이라 함)은 긴급할 경우 도아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경우라도 가능한 엘레베이터의 운전이 계속할 수 있도록 승강장 카의 도아스위치를 短絡시키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2.6. 位速運転裝置

90m/min 이상의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저속 (60m/min 이상 90m/min 이하) 운전장치를 부설한다.

3.2.7. 비상시의 운전방식

비상시의 운전방식은 표 3.2에 의한다.

3.2.8. 기타의 운전성능의 처치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운전성능 등에 대한 시방 3.2.2 부터 3.2.7.까지의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아래에 의한다.

(1) 비상용엘리베이터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조작면에 설치하고 평상운전시, 소방운전시 모두 유효하며 호출반려 운전

〈표 3.1. 使用機器

설비장소	기 기 명	부 가 시 방
기계실	권양기및 전동기	——
	제 어 장 치	——
	전 동 발 전 기	——
	調 速 機	——
카관계	조 명 기 구	안정기는 수몰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조 작 반	裏面 防滴處理(박스 外側)
	경 보 장 치	防滴커버 부착
	천 정 환 풍 기	防滴커버 부착, 비상운전시는 회로 차단
	카 내 위 치 표 시 등	裏面 防滴處理
	非常球出口 스위치	非常운전시는 회로 차단
	카 의 도 어 스 위 치	防滴處理, 2차소방운전시는 회로 차단
	바 닥 맞 춤 장 치	동상
	세 이 프 티 슈	소방운전시는 不感으로 한다.
	카 상부 점검스위치	防滴처리
	문 개 폐 전 동 기	동상
	동 제 어 부	동상
	스로우 타운 스위치	동상
	카 室	————————
	케 이 블	耐水性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전 손 복 스	防滴處理(카 상부에 설치)
	계 량 스 위 치	呼出反戾 운전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경보만 존속시킨다. 소방운전시는 회로 차단
승강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최하층 것은 防滴處理, 설치위치는 최하층 바닥면 보다 높게 한다.
	균형로우프스위치	비상운전시는 회로 차단
	도 어 록	防滴處理, 2차 소방운전시는 회로 차단
	중 간 전 손 복 스	최상층 바닥 보다 아래에 설치할 경우는 防滴處理
승강장	위치표시등(인디케이터)	일반엘레베이터 인디케이터 내 상부에「비상」의 표시등 첨가
	승 강 장 버 튼	비상운전시는 회로 차단
	호 출 反 戾 버 튼	非復旧式

註1. 비상호출반려스위치 및 소방운전으로 전환시키는 스위치 (이하「1차소방운전 스위치」라 함), 도아스위치, 게이트 스위치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장치에 전환시키는 스위치(이하「2차 소방운전 스위치」라 함) 등이 조작에 의한 모든 운전을「非常運転」이라 함.

註2. 1차소방운전 스위치의 조작에 의한 운전을「1차 소방운전」이라 하고, 2차 소방운전 스위치의 조작에 의한 운전을「2차소방운전」이라 한다. 1차소방운전과 2차소방운전을「소방운전」이라 한다.

시에는 무효로 한다.

(2) 핏트내에 설치하는 스위치 등은 비상운전시 개방하거나 방수처치를 한다. 기타의 昇降路 內에 있는 스위치류는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방수카바 등의 처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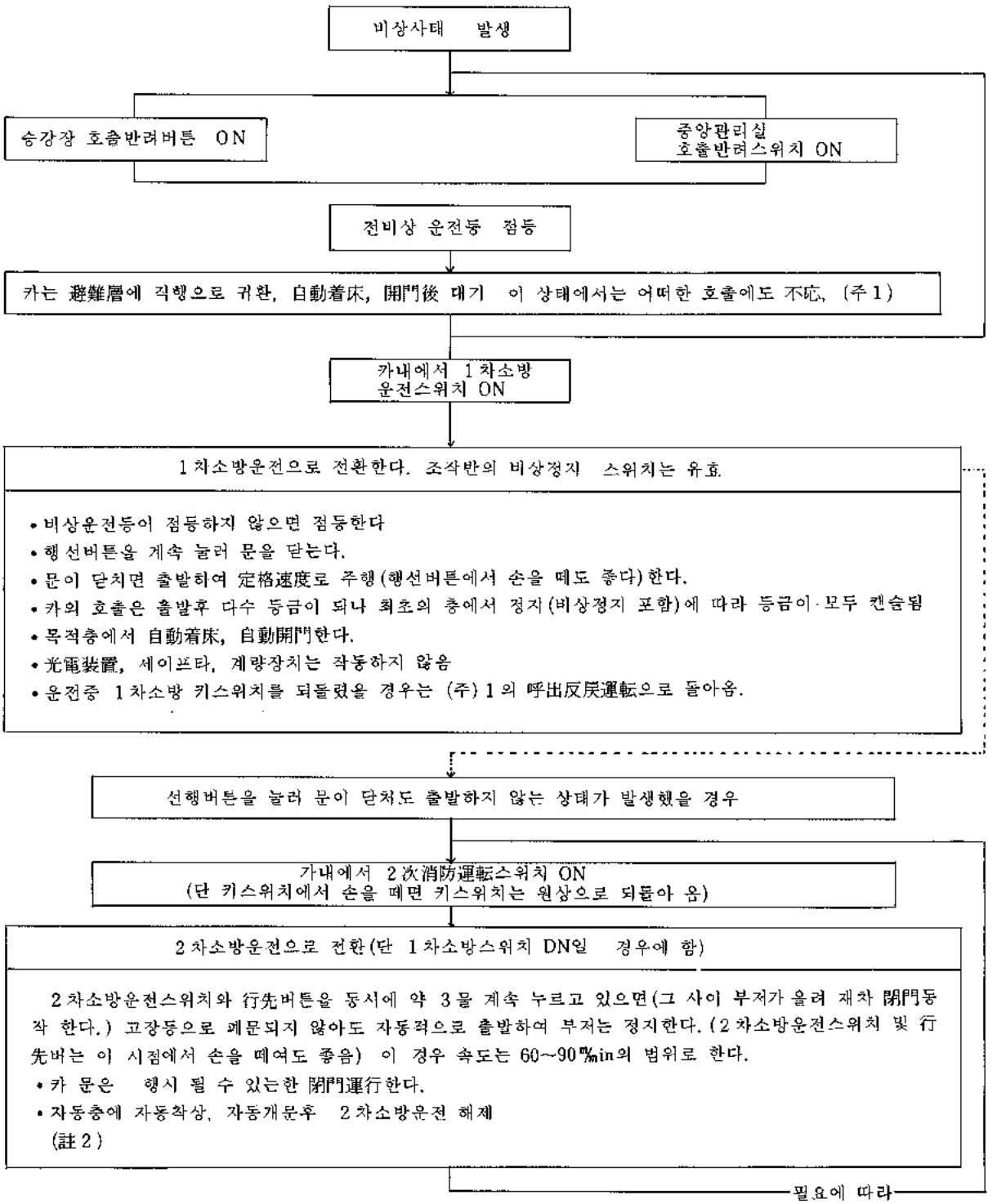
3.2.9. 전기배선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전기배선공사는 아래에 의한다.

(1) 덕트, 배선관 및 복스 등에 있어서 물의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전

(2) 防滴構造의 기기에 이르는 배선은 도중에 접촉점을 만

〈표 3.2〉非常時의 運転方式



註1. 호출반려 동작의 상세

- 엘리베이터가 상승중일 경우는 最寄差層에 정지하고 문을 열지 않고 반전하여 피난층(호출반려층)으로 직행한다.
- 하강중인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 정지하려고 감속중인 경우는 일단 그 층에 정지하고 문을 열지 않고 피난층으로 직행한다.
- 엘리베이터가 전속으로 하강중일 경우는 그대로 피난층으로 직행한다.
-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서 문을 열고 정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즉시 문을 닫고 피난층으로 직행한다.

註2. 2차소방운전은 2차소방운전스위치 投入直後 1회 운전 한해서 유효함

들지 않고 직접 器具端子에 접촉한다. 단 접촉점을 부득히 만들 경우는 防滴처리를 한다.

(3) 전기실에서 비상용엘리베이터에 이르는 전기배선은 專用으로 하고 다른 목적의 비상용 및 일반용 전기설비와 공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비상용엘레베이터가 일반용 엘레베이터와 병설되었을 경우 전기배선은 각각 별도 배선을 하여야 한다.

(4) 전기배선공사는 비상용 엘레베이터 기계실내 및 승강로를 제외하고 모두 耐火配線工樂로 한다.

제 3 절 휘일체어兼用 엘리베이터 設備

3.3.1. 자동착상장치

휘일체어용 엘리베이터의 자동착상장치의 着床精度는 ±15㎜이내로 한다.

3.3.2. 전용승강장 버튼

국제신체장해자 심벌 마크를 붙인 전용승강장 버튼을 각층에 설치한다. 그 設置高는 바닥에서 1000㎜정도 위에 설치하고 전용 버튼이 눌러져 있을 때에는문이 열려져 있는 시간은 10초 정도로 한다.

3.3.3. 카 내 專用操作盤

카 내의 전용조작반은 아래에 의한다.

(1) 국제신체장해자 심벌 마크를 붙인 전용조작반을 2면 설치하고 각조작반중 적어도 1면에는 호출버튼이 붙은 인터폰을 설치한다.

(2) 조작반의 중앙선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0㎜정도로 하고 푸시버튼의 위치는 제일 높은 것이라도 1,500㎜이하로 한다.

(3) 전용 行先버튼으로 카를 정지시키려고 할 경우는 문이 열려져 있는 시간을 10초 정도로 한다.

3.3.4. 카 내 손스침

카 안에 있는 난간의 재화는 스테인리스제로 하여 좌우 강측면의 바닥에서 800㎜정도 위에 설치한다.

3.3.5. 카 내 거울

카 안에 있는 거울의 재질은 접합유리, 선이 두른 유리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여 폭 500㎜~700㎜, 높이 900㎜의 평면경으로 하마, 뒤 파넬에 설치하되 거울의 하단은 바닥에서 900㎜높이로 한다.

3.3.6. 카의 출입구의 光電裝置

카의 출입문 부분에 검출비임을 2개 내는 광전장치를 설치하고 검출비임의 設置高는 원칙으로 바닥에서 각각 200㎜, 600㎜ 정도로 한다.

3.3.7. 카 내 전용위치표시기

카 안에 전용조작반위 또는 뒤 파넬에 위치표시기를 1세트 설치한다.

제 4 절 荷物用 엘리베이터設備

3.4.1. 부레이크

부레이크는 카에 적재하중의 100%를 실여서 하강하고 있는 경우에도 카를 감속, 정지시키어 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4.2. 카의 프레임

카의 프레임에 사용하는 재료의 안전계수는 6.0이상으로하며 카의 프레임과 바닥 및 카室 사이를 防振構造로 하지 않하여도 무방하다.

3.4.3. 카 바닥

카 바닥은 두께 3.2㎜ 이상의 첵카프레이트 또는 바닥용 강판으로 깔며 밑지방의 재질은 鋼材로 한다.

3.4.4. 카室

카 안의 설비는 2.3.4.(카室) 5항에 기제된 설비중 다음 설비는 제외한다.

(가) 환풍기

(나) 過積경보장치

(다) 停電灯

(라) 각층 안내표시판

(마) 구내방송용 스피이커

3.4.5. 카의 操作盤

카의 조작반은 2.3.7(카의 조작반) 1항에 기제한 설비 중 환기용 개폐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3.4.6. 밑지방

밑지방은 경질알루미늄제 또는 강제로서 견고하고 바닥에 고정시킨다.

3.4.7. 레일 부래커트

레일 브래커트의 설치간격은 레일사이즈, 승강기에 걸리는 하중, 하물을 싣고 내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3.4.8. 메인 로우프

카아의 정격속도가 15m/min 이하로서 그리고 카아바닥 면적이 1.5㎡ 이하의 엘리베이터의 메인 로우프의 직경은 10㎜ 이상으로 하고 이 외 것은 12㎜ 이상으로 한다.

3.4.9. 카이드슈

하물용 엘리베이터의 가이드슈는 고정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3.4.10. 塗裝

표면 마감의 도장정도는 3종으로서 금속표면의 凹凸이 다소 보이며 프엘트 연마는 하지 않으며 표면 平面度는 0.5㎜로 한다.

제 4 장 에스카레이터設備

제 1 장 一般事項

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스카레이터 설비에 적용한다.

4.1.2. 관계법규

이 공사에 사용하는 에스카레이터는 건축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 그리고 內線規程 및 KS규격 등에 적합 또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4.1.3. 규격 및 意匠

에스카이레이터의 규격, 의장 등의 시방은 특기에 의한다.

4.1.4. 조작방법

상층 및 하층의 欄干部에 부저용 푸쉬버튼, 운전용 키스위치 및 정지버튼을 설치하여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제 2 절 構造 및 裝置

4.2.1. 일반구조

노약자가 용이하게 승강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 스텝은 중간부에서 수평 傾斜角을 유지하여 이동하고 터미날 부에서 逆転形으로 되어 연속적인 驅動이 되게 한다.

4.2.2. 프레임

프레임은 아래에 의한다.

(1) 프레임은 形鋼과 鋼板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하고 그 상부에는 動力台를 짜 넣도록 한다.

(2) 각 기기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되 조립이나 설치에 지장이 있는 개소는 보울트 조임으로 한다.

(3) 승객, 스텝, 손스침, 구동장치 등 모든 하중은 프레임으로 지지하며 트러스 상하단은 건축의 상하보에 걸쳐서 앵커 보울트로 고정하는 구조로 한다.

(4) 트러스의 강도는 5도 이상의 最小安全率이 되도록 한

다.

4.2.3. 欄干

난간은 아래에 의한다.

(1) 난간은 支柱, 內側파넬, 스카트 가이드 및 덱키보우드 등으로 구성하여 견고하게 조립한다.

(2) 난간 상부에는 이동 손스침용 가이드 레일을 설치한다.

(3) 난간의 內側파넬은 스테인리스 美匠鋼板으로 한다.

(4) 스카트 가이드와 덱키보우드는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강판을 사용한다.

4.2.4. 驅動裝置

에스카레이터는 1대 마다 구동장치로서 전동기, 감속기 및 전자브레이크 등으로 구성하며 전동기의 회전을 감속기, 스프로케이트 및 구동레인 등을 개재시키어 스텝과 이동손스침을 구동한다.

4.2.5. 전동기

전동기는 仕圧3相 特殊籠形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격전압은 특기에 의한다.

4.2.6. 감속기

감속기는 각 부분 모두 정밀하게 기계적으로 마무리하며 기어부분은 이를 넨후 슈우핑 또는 연마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다.

4.2.7.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전류가 차단되는 순간에 제동되며 스텝의 이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停止 유지되어야 하며 정지 쇼크를 극히 적게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4.2.8. 스프로케트

스프로케트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경질강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기계 마무리 한 것으로 한다.

4.2.9. 터미날 기어

터미날 기어는 특수흡음장치를 하여사용 소음을 극력 적게하여 조용한 운전이 되도록 한다.

4.2.10. 체 인

스텝 체인은 특수강을 사용하여 높은 강도와 最小安全率10도 이상 되도록 한다.

4.2.11. 이동스텝

이동스텝은 아래에 의한다.

(1) 이동스텝은 스텝의 前車軸을 스텝체인에 고정하는 것으로 엔드레스에 접속한 스텝을 스텝체인과 連動하는 것으로 한다.

(2) 이동스텝은 최대하중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장을 초래할 만한 늘어짐이나 동요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스텝은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트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4.2.12. 가이드 레일

가이드 레일은 스텝이 처져서 움직이거나 진동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2.13. 손스침

손스침은 스텝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에 움직이는 것으로 하며, 손스침에는 양질의 착색합성고무를 사용하여 断面형태는 손스침과 고정부분 사이에 손이나 손가락이 끼지않는 형태로 한다.

4.2.14. 승강장 바닥

승강장 바닥은 십자무늬로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승강부에는 注意색인 黃色인 미랏빗 모양의 코오움브를 설치하여 이물이 빨려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바닥의 홈에는 흑색도장으로 처리한다.

4.2.15. 스위치 보우드

스위치 보우드는 특기가 없는 경우는 승강구 부근의 난간에 부착하여 盤面에는 다음 스위치를 설치한다.

(가) 승강용 키스위치

(나) 비상정지용 푸쉬버튼

4.2.16. 制御器

제어기는 벽거리형으로서 상부 프래임내에 收納하여 검사시나 보수시 바닥위로 인양할 수 있도록 하며, 타기기와의 접속은 캡다이어케이블로 한다.

盤에는 다음 기기를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가) 배선용 차단기 (라) 整流器

(나) 조작회로용 개폐기 (마) 계전기

(다) 電磁接触器 (바) 과부하계전기

제3절 안전장치

4.3.1. 驅動체인 안전장치

구동체인이나 스텝체인이 절단 또는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는 래치트가 동작하여 스텝의 승강을 기계적으로 자동제지하는 동시에 전동기도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4.3.2. 스텝체인 안전장치

스텝체인이 과도하게 늘어지거나 절단되었을 경우는 즉각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에스카레이터를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4.3.3. 핸드 가이드부우스

軟貨의 고무제 커버로서 손스침 입구에 아이가 손을 넣기 어렵도록 손스침 입구를 2중구조로 한다.

4.3.4. 調速機

조속기는 정감속도의 20% 이하로서 감속 또는 120% 이상의 과속도로 되었을 경우 작동하여 운전을 정지시킨다. 欠相事故의 경우도 또한 같다.

4.3.5. 데머케이숀 고무

인접 스텝의 크리이트라이저와 맞닿는 스텝의 틈사이에 이물이 드러가지 않도록 한다.

4.3.6. 電氣的 안전장치

에스카레이터 설비에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가) 과전류단전기

(나) 비상정지버튼

(다) 배선용 과단기

(라) 전자부레크

(마) 샤터 운동스위치(방화샤터를 설치할 경우)

(바) 핸드레일 샤피트 스위치

(사) 스커트 가이드 샤피트 스위치

4.3.7. 3각가드판

이 장치는 건축공사 시공업자가 시설하는 것으로 에스카레이터와 교차되는 천정 등(인접 에스카레이터의 옆하면 포함)의 하부 끝부분이 이동손스침 외측 끝에서 수평거리로 500㎜ 이내에 접근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 델터카드를 설치한다.

(1) 가드판은 경량이면서 충분히 강도가 있는 재료(수명아클리판 등)로서 제작하여 그 앞끝은 직경 50㎜ 이상의 원동으로 한다.

(2) 가드판은 상기 교차면과 거이 같은 수직면에 견고하게 배어단다.

(3) 가드판 상단과 설치면의 틈새는 10㎜ 정도로 하고 매다는 쇠사슬의 길이는 75㎜ 이상으로 한다.

(4) 가드판 앞끝은 교차되는 부분에서 1000㎜ 이상 (60° 교차각의 경우는 700㎜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며 뒤끝은 교차한 곳에서 2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가드판 아래끝은 이동손스침면 보다 아래 위치에 있도록 하며 최대한으로 가드판을 기울였을 경우라도 원동부분이

이동손스침을 넘지 않도록 한다.

4.3.8. 転落防止柵(건축공사업자 시공)

에스카레이터와 건축바닥의 開口部 사이에 틈새가 있을 경우는 落下防止柵을 설치한다. 그리고 에스카레이터의 승강구 처리에는 進入防止柵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잠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4.3.9. 낙하물 방지망

락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용 락하물방지망은 아래에 의한다.

(1) 에스카레이터의 상호간 또는 에스카레이터와 건물 바닥 등의 개구부과의 사이에 200㎜ 이상의 틈이 있을 경우에는 락하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網등으로 한층에 걸쳐서 설치한다.

(2) 전항의 망 등의 프레임은 강재등으로 경고하게 설치한다.

(3) 網등의 형상은 직경 50㎜의 球가 통과하지 않는 크기로 한다.

제 4 절 電氣配線 및 附屬品

4.4.1. 전기배선

기내의 전기배관배선은 제 2 장 제 7 절 전기배선에 의하는 것 외에 전선에는 엘리베이터용 신호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손상을 입지 않는 곳을 택하여 구조체에 부설한다.

4.4.2. 부속품 및 공구

에스카레이터설비 완공시에는 보전에 필요한 부속품 및 공구를 감독의 확인을 받아 별도로 납품한다.

제 5 절 試 驗

4.5.1. 시험 · 검사

에스카레이터설비의 시험 · 검사 및 기기의 조정은 제 2 장 제10절 시험에 준한다.

제 5 장 電動덤웨이터設備

제 1 절 一般事項

5.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건축물 · 건 물 등에 설치하는 특품 승강기장치인 카아 內가 1㎡ 이하, 높이 1.2m 이하로서 사람이 타지 않고 카아 내에서 조작하지 않는 전동덤웨이터설비에 적용한다.

5.1.2. 종류 및 규격

전동 덤웨이터의 종류는 테이블형과 풀로웨형으로서 특기에 의한다. 그리고 적제하중, 속도, 크기 등의 자규격과 외장은 특기에 의한다.

5.1.3. 제어방식

전동덤웨이터의 제어방식은 상담층 제어방식과 기준층 제어방식으로서 특기에 의한다.

제 2 절 機械室 내 機器

5.2.1. 捲揚機

권양기는 아래에 의한다.

(1) 駆動로우프車는 고급주철제로서 메인 와이어에 알맞는 특수홈을 정밀하게 기계가공한 것으로 한다.

(2) 主베어링은 밀폐형으로 구름베어링 또는 적절한 윤활장치를 갖춘 고급베어링 합금제 평면베어링으로 한다.

(3) 권양기에 共通台盤을 필요로 할 경우는 그 공통대반을 一体構造로 하고 주철제, 形鋼製, 또는 강판을 용접가공한 것으로 하여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2.2. 支技보

支持보는 形鋼製로서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5.2.3.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아래에 의한다.

(1) 브레이크는 카가 적제하중의 110%를 적제하여 주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완전히 제동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동력은 자유로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운전중 항상 개방되어 전류의 차단과 동시에 제동작동이 되도록하고 카를 감속, 정지시키어 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브레이크는 동력이 차단되있을 때 또는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했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2.4. 전동기

덤웨이터의 전동기는 아래에 의한다.

(1) 전동기는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起動回転力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빈번한 起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전동기는 KS C 4002(회전전기기계통칙)에 의한 다음 각 시험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설치하여 합격성적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가) 특성시험

(나) 온도상승시험

(다) 내전압시험

5.2.5. 受電函 및 制御盤

수전극 및 제어반은 아래에 의한다.

(1) 수전반과 제어반의 두께는 1.2㎜ 이상으로 하여 다음 기구를 구비한다.

(가) 배선용차단기 또는 수전개폐기에 한해서는 퓨즈가 있는 나이프 스위치

(나) 안전유전에 필요한 電磁接続器 및 断電器 등

(다) 기타 필요한 기구

각 접속기 및 継電器는 조작반의 푸쉬버튼에 의하여 전자동으로 원활히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전자접속기 및 제어용단전기는 다음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주회로용의 것. KS C 4504(교류전자개폐기)의 제 3 호 1 종. 단 전기적 수명은 10만회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용의 것 기계적 수명은 500만회 이상, 전기적 수명은 150만회 이상으로 한다.

(3) 수전극 및 제어반은 기계실에 설치하여 각 盤間의 배선접속은 端子台 또는 코넥터와 같은 것으로 한다. 그리고 수전극과 제어반은 캐비닛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5.2.6. 自動着床裝置

카는 전압변동 5%이내, 주파수의 변동 1%이내, 기계실내 온도 10~40°C에 있어서 적제하중의 범위내에서 확실하게 着床하며 그 精床도 표 5.1이내이어야 한다.

(표 5.1. 着床精度 단위 : ㎜

정격속도 (m/min)	착 상 정 도
15 이하	± 30
15 초과 30 이하	± 40

제 3 절 카 및 出入口

5.3.1. 카

카室 및 카 바닥은 두께 1.2㎜ 이상의 KSD 3682(령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에 의한 SUS 304(이하 스테인리스 강판이라 함)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形鋼으로 프레임을 조립한다. 선반을 설치할 경우는 상기와 같은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여 着脱이 가능하도록 한다.

5.3.2. 문설주

문설주는 아래에 의한다.

(1) 문설주의 두께는 두께 1.6㎜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제 헤어라인 마감으로 하고 판의 변형 및 용접에 의한 변형은 제거한다.

(2) 판의 구부림은 각도를 정확히 하고 모소리는 똑바르게 하여 삐뚤어짐이 없어야 한다.

5.3.3. 문지방 및 선반

(1) 문지방을 설치할 경우는 硬質알미늄제, 鋼製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여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선반을을 설치할 경우는 두께 1.6㎜ 이상의 스테인리 스 鋼板製로 하여 지정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5.3.4. 搬出入門

반출입문은 두께 1.6㎜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제 헤어라인 마감으로 하고 그 시방은 5.3.2 (문설주)에 의한다.

5.3.5. 조작반

조작반의 커버프레이트는 스테인리스 鋼板製 헤어라인마감으로 하여 盤에는 다음 것을 갖춘다.

(가) 行先層用 프쉬버튼

(나) 비상정지용 프쉬버튼

(다) 운전표시등

(라) 도착표시등, 도착부저 또는 위치표시등

(마) 신호부저

5.3.6. 인터폰

조작반 근처에는 통화장치로서 인터폰을 설치한다. 인터폰은 KS C 5515(인터폰 통칙)에 의한다. 그 형식은 전화형 동시통화식의 상담식으로서 벽거리형으로 한다.

5.3.7. 도어스위치 및 도어록

도어스위치는 반출입구 마다 1셋트식 설치하고 모든 문이 닫치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반출입구가 바닥면과 동일 수평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또 다시 카가 그 층에 착상해 있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완전히 잠길 수 있는 열쇠를 달아 두어야 한다.

제 4 절 昇降路

5.4.1. 경인 풀리

경인 풀리는 고급주철제로 하여 와이야 로우프에 적응한 특수 홈을 정밀하게 기계가공한 것으로 한다.

5.4.2. 레일

전동덤웨이터에 사용하는 레일은 아래에 의한다.

(1) 앵글(山형) 강 또는 찬넬(ㄷ형) 강을 사용한다.

(2) 레일은 素材의 변형을 제거하고 강승로 핏트 바닥에서 승강로 정상부의 슬러브 밑까지 설치한다.

(3) 이음은 강판 또는 형강제의 이음판으로서 접속한다.

(4) 레일 브레키트는 강도가 충분한 平鋼 또는 形鋼으로서 제작하여 레일의 중심이 쥐트러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5.4.3. 메인로우프

메인 로우프는 KSD 3514(와이너 로우프)에 의한 E種 또는 동등이상 것으로 하고 그 직경은 6㎜ 이상으로 한다.

5.4.4. 均衡錘

균형추는 용이하게 가감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강제틀 또는 관통 볼울트와 같은 것으로 견고하게 조립한다.

5.4.5. 가이드슈

카의 가이드슈는 고정식 스라이딩형으로 한다.

제 5 절 安全裝置

5.5.1.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는 카를 자동적으로 최상층 및 최하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 6 절 電氣配線 및 附屬品

5.6.1. 전기배선

전동덤웨이터설비의 전기배선은 제 2 장 제 7 절 전기배선의 각 항에 의한다.

5.6.2. 부속품 및 공구

전동덤웨이터설비공사 완공시에는 다음 부속품과 공구를 별도로 납품한다.

(1) 부속품(1개 기계실 표준)

(가) 권상전동기 터닝 핸들(필요할 경우)	1개
(나) 점검등(코드 붙은 것)	1셋트
(다) 도어록 해방용 키(필요할 경우)	2개

(2) 공구(1개 기계실 표준)

(가) 스패너 세트	1셋트
(나) 드라이버(No 2 15㎝)	각 1개
(다) 플라이어(15㎝) 펜치(15㎝)	각 1개
(라) 몽키렌치(15㎝)	1개
(마) 주류기	1개
(바) 구어리스 주입기	1개

제 7 절 試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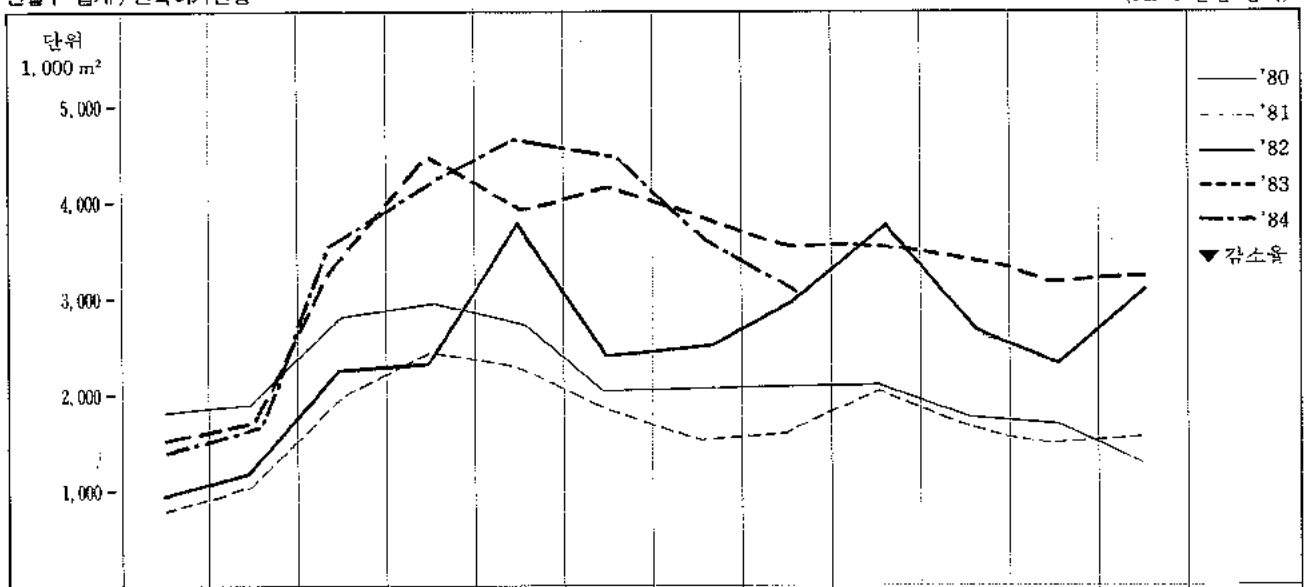
5.7.1. 시험

전동덤웨이터설비의 시험은 제 2 장 제10절 시험의 각 항에 준한다.

한발양보 거리질서 한발빠른 선진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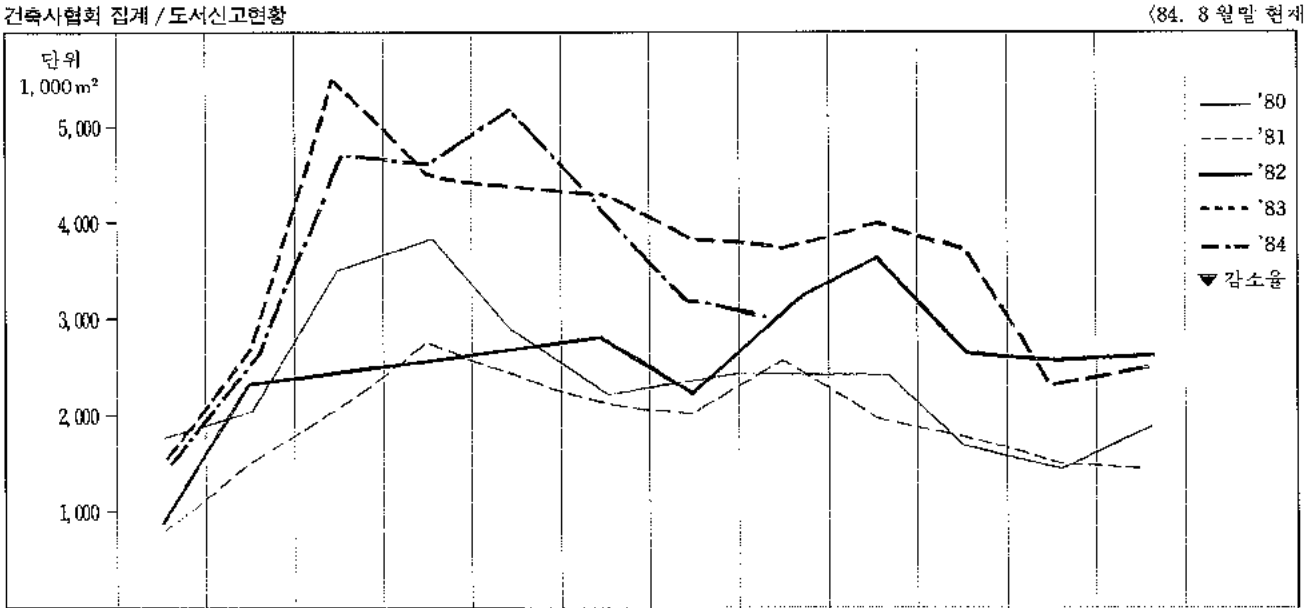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4. 8 월말 현재〉



연도 \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80	1,846,698	1,851,785	2,883,090	2,906,362	2,803,050	2,094,130	2,055,584	2,066,876	2,178,032	1,887,599	1,765,707	1,388,320	25,727,233
'81	843,447	1,040,968	1,931,949	2,482,179	2,370,273	1,923,246	1,634,202	1,699,811	2,047,516	1,837,442	1,491,485	1,544,362	20,845,880
'82	983,925	1,070,383	2,256,001	2,427,541	3,620,476	2,355,757	2,461,878	2,584,815	3,799,489	2,811,085	2,393,414	3,033,610	29,798,374
'83	1,418,917	1,690,282	3,469,722	4,460,276	3,993,811	4,049,191	3,878,287	3,421,856	3,618,481	3,369,941	3,145,084	3,177,354	39,693,202
'84	1,461,642	1,680,655	3,637,588	4,177,386	4,625,180	4,384,764	3,595,445	2,886,267	3,112,293				
전년대비%	3	▼0.6	4.8	▼6.3	15.8	8.3	▼7.3	▼15.7	▼14				
전월대비%		15	16.4	14.8	10.7	▼5.2	▼18	▼19.7	7.8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4. 8 월말 현재〉



연도 \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80	1,903,761	2,124,465	3,544,904	3,956,774	2,954,695	2,334,356	2,433,402	2,490,825	2,469,755	1,880,537	1,559,102	1,996,516	29,649,092
'81	888,005	1,632,724	2,105,445	2,892,064	2,638,891	2,321,439	2,108,109	2,518,279	2,038,653	1,906,504	1,634,919	1,544,874	24,229,906
'82	947,131	2,282,755	2,463,391	2,877,177	2,927,031	2,981,380	2,335,943	3,204,068	3,869,449	2,959,962	2,775,811	2,846,970	32,471,068
'83	1,677,802	2,719,344	5,617,923	4,625,448	4,415,680	4,409,611	3,933,917	3,849,487	4,121,802	3,807,508	2,362,059	2,712,775	44,253,356
'84	1,674,934	2,714,740	4,845,778	4,794,878	5,315,355	4,163,305	3,198,172	3,043,740	3,223,460				
전년대비%	▼0.2	▼0.2	▼14	4	17	▼6	▼19	▼21	▼21.8				
전월대비%		62	78	▼0.9	10	▼22	▼23	▼5	5.9				

서울중심街路 대대적成形

休息공간 넓히고

国際都市 면모 새롭게

서울시는 88올림픽에 대비,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재현하고 가로미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종로·종로·을곡로·강변고속도로·올림픽 가로등 5개 가로변 17군데에 역사공원·조각·상징탑·분수대 등 환경조형물을 설치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서울시가 마련한 올림픽조형물 설치계획에 의해 밝혀졌는데 현재 시행중인 창경궁복원 덕수궁개수등 고궁복원작업과 맞추어 도심에 서울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 기본골격이다.

서울시의 세부계획에 따르면 ▲역사·전통구역인 중앙청 광장에는 문화공원을 조성, 야외민속 전시장을개설하고 ▲시청앞 광장에는 올림픽카운트다운 상징탑을 ▲김포공항 확장부지엔 서울상징탑과 서울모형공원을 세우기로 했다.

시는 또 을곡로의 창덕궁 담장 주변에 역사소공원을 조성, 조선조왕실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한편 종묘앞 광장, 보신각, 남대문, 광화문 4거리, 잠실올림픽경기장, 삼성동 종합전시장 주변등에 이들 시설을 상징하는대형 환경조형물들을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로변의 녹지공간 및 공원부지 등을 市費로 확보하고 환경조형물 등은 民資를 유치해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조각작품 등을 헌납받아 가로변에 설치키로 하는한편 조각작품 밑에 헌납자의 이름을 새겨 넣기로 했다.

올림픽조형물圖面 일람표

도면번호	위치	내용
①	광화문 4거리	가로공원및조각
②	시청앞 광장	올림픽 카운트다운 상징탑
③	남대문 주변	가로공원 및 조각
④	보신각 주변	〃
⑤	종묘앞	휴식공원 및 역사조형물
⑥	동대문 주변	역사휴식공원및 벽화장식
⑦	중앙청 광장	문화공원 및 야외 민속전시장
⑧	안국동로타리 주변	전통민속상가
⑨	창덕궁 주변	역사소공원 및 광장
⑩	김포공항확장부지	서울상징탑 및 서울모형공원
⑪	양화교 인공폭포주변	조각 및 조명
⑫	강변 고층 아파트	벽화장식
⑬	청담교 주변 녹지광장	올림픽타운 상징탑
⑭	강남역 4거리	가로공원및조각
⑮	한국종합전시장 주변	올림픽타운진입아치 및 분수대
⑯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종합안내전광판 및아시안게임기념조형물
⑰	잠실 4거리 주변	線型분수대설치

永東, 오피스타운浮上

10層이상建物 서울全體의 12.3%…36동

서울의 대표적 신시가지인 영동지역의 건물이 근래들어 점차 고층화·대형화 되면서 영동지역이 새로운 오피스 타운으로 변모돼가고 있다.

영동지역은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넓고 반듯하게 짜여진 도로망에다 잘 정비된 도시환경으로 서울의 대표적 주거·상업·유통지역으로만 정평이 나있었지만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심기능의 다핵화 현상이 이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 근래들어서는 중구·종로·여의도 등과 함께 서울의 손꼽히는 오피스 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영동지역에 들어서 있는 10층이상의 기존 고층건물은 19개가 있는데 신축중인 17개의 10층이상 건물을 합치면 모두 36개로 서울 전체지역의 10층이상건물 2백91개중 영동지역이 12.3%나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오피스타운인 중구·종로·여의도지역은 거의 개발이 끝나 앞으로 계속적인 고층건물의 신축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영동지역은 아직도 고층건물을 지을만한 대로변의 부지가 많이 남아있어 향후 5~6년 안으로는 이 지역이 고층건물의 숫자나 연건축면적으로 보아 서울의 대표적 오피스 타운으로 자리를 굳힐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곳에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관공서나 업체등의 입주가 크게 늘어나 영동지역의 오피스타운으로서의 기능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돼가고 있다.

특히 지하철 2, 3, 4호선이 영동지역을 관통해 교통이 편리한데다 4대문안 도심의 고질적문제인 주차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4대문안 도심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영동지역이전에 촉진제가 되고 있다.

거기다 건물의 임대료도 도심지역보다는 훨씬 싸 현재 4대문안 도심지역 소재 환경이 좋은 건물은 대개가 평당 임대 보증금 30만원, 월임대료 3만원 수준이지만 영동지역에서는 평당 임대보증금 15만~18만원, 월임대료 1만5천~1만8천원 수준으로 도심지역의 약 반정도 수준이다.

현재 이 지역에 신축중에 있거나 공사가 끝나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건물들 가운데는 기존건물보다 높은 것들이 많아 논현동 71의 2에 짓고있는 건설공제조합건물은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의 대형건물이고 이밖에 역삼동 832의 2에 신축중인 한일시멘트사옥은 지하4층 지상18층, 서초동 산58에 정철신씨가 짓고있는 판매 및 업무용 건물은 지하3층 지상18층에 연건평 7만1천3백63m²(약 2만1천6백평) 규모의 대형건물 이다.

역삼동 823에 건립중인(건축주 金상호) 지하5층, 지상20층 규모의 사무실 건물도 이곳에 짓고있는 대형건물중의 하나다.

建築계획확정 곧着工

公平구역 19지구등 4개都心再개발지구

화신백화점 부지인 공평구역 19지구등 4개도심 재개발지구의 건축계획이 확정돼 빠르면 올안에 각각 착공된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된 이들 4개지구는 대지내에 녹지를 많이 확보,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돼도록 설계됐으며 도로 및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한게 특징이다.

◇ 공평구역 19지구

종로구 공평동74일대 화신백화점등을 헐고 18층짜리 업무 및 판매용 건물을 새로 짓는다.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확장계획선에 맞춰 종각 맞은편쪽으로 광장을 넓히고 1천7백80m²의 시민휴식공간등을 마련한다. 연면적은 4만8천16m².

이곳이 정비되면 서쪽의 제일은행 본점사옥 재개발과 함께 4거리 주변의 경관과 기능이 높아지게 된다.

◇ 서소문구역 4지구

중구 태평로2가 120일대 상공회의소 북쪽에 자리한 이곳은 대왕흥산이 사업시행자가 돼 20층짜리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다.

연면적 4만7천6백45m²의 건물이 들어설 이곳은 공공 용지를 전체대지의 22%인 2천49m²나 확보, 남대문주변 불량건물 정비및 광장조성등에 큰 몫을하게 된다.

◇ 회현구역 4-1지구

중구 회현동20일대 퇴계로 고가도로변에 밀집된 낡은 건물을 헐고 연면적 5만여m²의 20층짜리 사무실용 건물을 세운다.

도로계획선에 맞춰 퇴계로를 확장하고 1천5백m²의 녹지공간이 확보된다.

◇ 동자동구역 8지구

용산구 동자동 35일대 남영동~서울역간을 잇는 간선도로변에 20층짜리 업무 및 판매용 건물을 신축한다.

당초엔 2개건물을 지을계획이었으나 1개건물로 키워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대지내 녹지면적을 1천7백50m²로 2배정도 늘렸다.

鐵物종합商街 20채 건립

연건평 3만坪 3층짜리 年內착공·내년 7월완공

구로구 시흥동의 중앙철제 종합 상가는 을지로4가·주교동·산림동등지 서울 도심에 밀집돼 있는 영세 상인들이 스스로 집단이전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상가권을 조성하는 곳으로 규모가 커 관심을 모은다.

새상가가 들어설 시흥동966 일대의 부지면적은 3만5천8백64m²(1만8백49평) 연건평 2만9천7백36m² (8천9백95평)에 지상3층 지하1층짜리 상가 20개동이 건립되며 주차장과 기타부대시설이 만들어진다.

건축면적만도 1만7백12m²(3천2백40평)에 이른다.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8월 15일께 개장된다.

총 사업비는 74억3천2백만원으로 이중 대지매입비가 25억2천7백만원이고 건축비가 47억3천7백만원, 기타 비용이 1억6천7백여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78년7월 을지로4가 일대의 철제상가를 도심부적격시설로 판정한지 만6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신축될 중앙철제상가의 점포수는 모두 2백32개소, 을지로4가 산림동·주교동 일대의 철제 소·도매상 1백6개상에 우선적으로 입주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점포는 타지역 철제 상들에 분양된다.

현재 을지로4가 등 일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을 취급품목별로 보면 철골 27개소, 원강 14개소, 철판 21개소, 철관 16개소, 철근 6개소, 가공 7개소, 기타 15개소 등이다.

이 종합상가는 을지로4가 일대의 철제상들을 완전 흡수시킴으로써 서울지역의 철제상권의 도매기능을 30% 이상 흡수하게되며 경기·충남북도등 중부권까지의 도매기능을 커버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갈 을지로4가등 이전지역에는 주차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 이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방향이나 토지주와 시 재정문제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시의 방침은 이 일대를 복합건물이 증·개축되도록 유도, 아래층에는 생활필수품 판매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고 위층에는 사무실과 주거기능을 함께 넣도록 하는 것이다.

을지로4가 등 기존의 철제상가는 6.25직후인 30여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들어서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해왔다.

이때문에 인도에 물건들을 내놓아 보행인에 불편을 주는 것은 예사이며 철제품을 차량에 싣고 내리느라 도로의 차선하나를 차지, 하루종일 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빚어왔다.

뿐만아니라 철제품을 자르느라 심한 진동과 소음을 유발시켜 공해지역으로 지목돼 왔다.

建築基準法 全面改正

日 建築省, 土地高度利用 위해

일본건설성은 건축행정의 기본법인 건축기준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할 방침을 세우고 내년에 초안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建蔽率, 容積率, 斜線制限등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는 외에 ① 맨션 건설에 있어 日照權 제한의 완화, ② 市街地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면적 완화, ③ 주거전용지구 내의 건물높이 제한완화, ④ 주택의 고층화 등을 실시하여 도시 재개발을 촉진할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해 여러가지 규제가 서로 얽혀있는 것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너무 심한 규제는 완화하여 도시재개발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치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新規 建築士 138명에 免許

建設部 30일字 면허番号등 公告

建設部는 10월 30일, 지난번에 実施한 建築士資格試験에 합격한 138명에게 건축사 면허를 수여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들 건축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은 다음과 같다.

免許番号	姓名	免許番号	姓名
2643	강기수	2678	류성희
2644	강원용	2679	문병국
2645	고성국	2680	문숙경
2646	곽기준	2681	박규영
2647	곽성문	2682	박동식
2648	권익대	2683	박석홍
2649	김대근	2684	박성식
2650	김병찬	2685	박승규
2651	김병호	2686	박운영
2652	김상철	2687	박은규
2653	김석근	2688	박창배
2654	김성곤	2689	박태수
2655	김성일	2690	박현철
2656	김성호	2691	박혜선
2657	김영국	2692	박훈
2658	김영욱	2693	박희중
2659	김용준	2694	방승대
2660	김용화	2695	방영태
2661	김인수	2696	배준기
2662	김재구	2697	배태현
2663	김정훈	2698	백영철
2664	김종국	2699	백종현
2665	김종욱	2700	백홍수
2666	김종철	2701	석정훈
2667	김종헌	2702	성정길
2668	김중근	2703	손상원
2669	김진구	2704	송상철
2670	김창규	2705	송초근
2671	김창호	2706	신종호
2672	김철우	2707	심재덕
2673	김학중	2708	심재호
2674	김현균	2709	안옥
2675	김형석	2710	안택영
2676	김희태	2711	안화인
2677	류대현	2712	양광명

免許番号	姓名	免許番号	姓名
2713	양회도	2748	장준평
2714	오기성	2749	전문환
2715	오은택	2750	선용구
2716	유영배	2751	정명옥
2717	윤동진	2752	정봉섭
2718	윤병완	2753	정부교
2719	윤임호	2754	정상원
2720	윤준현	2755	정상철
2721	이광호	2756	정성길
2722	이민근	2757	정연문
2723	이백문	2758	정연준
2724	이병규	2759	정종수
2725	이복	2760	조대현
2726	이석경	2761	조동구
2727	이석도	2762	조인숙
2728	이성걸	2763	조항수
2729	이성원	2764	주영면
2730	이익재	2765	최강식
2731	이인식	2766	최동호
2732	이정곤	2767	최재철
2733	이정근	2768	최찬용
2734	이정재	2769	최학규
2735	이종윤	2770	추교준
2736	이종택	2771	추연철
2737	이주엽	2772	하수진
2738	이진우	2773	하진광
2739	이항배	2774	한용기
2740	인의식	2775	한참근
2741	임종환	2776	허남
2742	장구일	2777	홍기억
2743	장기종	2778	황건
2744	장동진	2779	황규섭
2745	장석도	2780	황철동
2746	장종원		
2747	장준원		

会員動靜

변경 □ 전남지부=△박득수회원/미성건축설계공사/광주시동구 대인동56

△신양우회원/삼양건축설계공사/광주시동구금남동133.

△정락구회원/극동건축설계사무소/순천시장천동85-7/2-7545.

□ 경기지부=△윤덕찬회원/윤덕찬건축연구소/평택군평택읍합정리 488-6/3-0727

△안호일회원/협동건축/시흥군소래읍382-9/62-9142

△황용현회원/미성건축설계/가평군 읍 읍내리458-1/2350

△최승원회원/태을건축연구소/안양시안양동505/2-6992

△정은용회원/정건축연구소/수원시교동92-6/42-2369

△정구영회원/동성건축연구소/수원시매산로3가35-7/42-0156.

△황의웅회원/삼양건축설계사무소/광주군광주읍송정리121-1/2-2047

□ 부산지부=△김성길·김건수 회원/종합건축기술공사/북구괘법동546-1/92-4967.

△이희웅회원/이희웅건축설계사무소/북구덕포동428-10/92-4411.

△김영배회원/내외합동건축설계사무소/중구중앙동4가80-11/462-6767

△박기종회원/내외합동건축설계사무소/중구중앙동4가80-11/463-8002.

△박태근회원/동화건축설계사무소/부산진구전포동608-1/89-7653.

△김택진회원/김택진건축설계원/부산진구전포동608-1/88-0504.

△강 신회원/영신건축설계사무소/동래구수안동491-1/552-1003~4

△정환호회원/미래건축연구소/부산진구부전동351-15/804-2776·2778.

△권경현·정희선회원/신흥건축설계사/부산진구부전동259-4/89-4396.

△이동배회원/동서건축설계사무소/부산동구초량동1195-6/463-9845.

△문용규회원/문예건축연구소/동구범일동834-19/463-0004.

□ 인천지부=△남상각회원/금성건축/북구부평동442-24/92-9449.

□ 강원도지부=△한성일회원/ 삼도건축사무소/속초시청학동645-4/2-5080.

△김가선회원/전원건축사무소/속초시교동645-3/2-3473

□ 서울지부=△백정열·박정원회원/정건축/강남구논현동208-14/557-5395

△김희춘·김장규회원/(주)건축연구소광장/종로구사간동80/722-6704, 722-6828

△박일수회원/대동건축연구소/도봉구수유동189-3/904-1214

△오용석·이용학·고석상회원/신조건축연구소/강남구서초동223-13/566-2101, 2102, 2103

△김화옥회원/금화건축설계사무소/마포구대흥동2-40/717-2377

△정의용회원/삼부건축설계사무소/강서구화곡동987-2/602-9255

△이충렬회원/서울환경건축연구소/강남구 논현동117-3/541-1079

휴업 □ 서울지부 =△박찬정회원/우인건축/동대문구휘경동34-49/84. 10. 12~85. 4. 11(6개월간)

폐업 □ 경남지부 =△이범주회원/미림건축설계사무소/경남거제군장승포읍능포리종합상가201호/9. 29일

□ 서울지부 =△양영일회원/한샘건축연구소/강남구역삼동799-26 /10. 4일

△박학순회원/진흥건축설계사무소/구로구구로동420-4/10. 8일

재입 □ 경기도지부 =△오형석회원/광명건축/설계사무소/광명시 철산동464-10/612-6888/9. 27일

전출 □ 서울지부=△이금렬회원/미동건축연구소/강남구삼성동1번지/10. 30일/충북제천.

별세 □ 강원도지부=이상철회원/10. 5일/자택.

회갑 □ 충남지부 =△권순거회원/본인수연/10. 24일/천안시모룡동자택

결혼 □ 충남지부 =△홍종하회원/차녀결혼/10. 14일/대전동양예식장

△임천구회원/차남결혼/10. 21일/서울그랜드예식장

이웃마다 믿는마음 거리마다 밝은마음

新 入 会 員

정 회 원

□ **黃文澤** / 46. 1. 7일생 / 전북/ 전북대건축과 / 금호건축설계사무소 / 강남구논현동242－47 / 546－1264

□ **金順渚** / 29. 12. 15일생/충북 / 한양공대건축과 / 세왕건축연구소 / 도봉구미아8동322－1/988－2257

□ **姜禹鍾** / 45. 8. 26 / 부산 / 한양공대건축과 / (주)건진건축설계 / 강남구반포동35－23/544－4676

□ **徐眞哲** / 48. 1. 23일생/서울/ 홍익대학원도시계획과 / 건축연구소도다 / 관악구신림동527－ 2 / 856－2408

□ **張基成** / 47. 10. 31일생 / 서울 / 인하공대건축과 / 우원건축연구소 / 강남구역삼동735－5/555－5197

□ **李旭振** / 35. 10. 20일생/서울 / 한양공대건축과 / 범이건축연구소 / 중구명동1가5－1 (보림빌딩601호) / 776－8071

□ **鄭源熙** / 51. 11. 27일생 / 충남 / 경기공전건축과 / 동광건축 / 동대문구신설동93－15/233－2259

□ **朴建五** / 28. 12. 20일생/서울 / 한양공대건축과 / 신영건축설계사무소 / 안성군안성읍영동492－1 / 2402, 6189

준 회 원

□ **黃海龍** / 50. 6. 15일생/서울 / 전주공고건축과 / 서울시청지방건축기사 / 강동구길동373－12

□ **鄭泰容** / 35. 7. 14일생/서울 / 한양공대건축과 / 삼성중공업(주) / 영등포구여의도동28－1 / 783－4381, 771－33(본)

□ **張時昌** / 34. 2. 2일생/서울 / 한양공대건축과 / 한일은행서무부 / 중구남대문로2가130/771－20, (구내 2243)

□ **李武雄** / 44. 12. 8일생/부산 / 한양공대건축과 / 필건축설계사무소 / 568－7423

믿는마음 지킨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콘크리트 후로아 스테인

콘크리트 후로아스테인(T. C. A CONCRETE FLOOR STAIN)은 일반 페인트와는 달라 벗겨진다든가 조각이 생긴다든가(PEELING, FLAKING, CHIPPING)도막등이 생기지 않고 착색 침투되는 특수 유성 코팅제로서 신설콘크리트 몰탈면 바닥에 사용하여 7년 이상 먼지를 방지하고, 풍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내마모성의 강인한 표면을 유지해 주는 특수 제품이다.

1. 제품의 특징(ADVANTAGES)

(1)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먼지없는 상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표면에 생기는 시멘트 가루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일손도 줄어들며 수년에 한번 사용하면 충분함으로 번거롭게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TCA CONCRETE FLOOR STAIN을 칠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가벼운 물청소를 하면 충분하다.

(2) 우수한 방진효과와 광택은 먼지 및 오물의 부착을 극소화 함으로 도색표면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

(3) 내구력과 내마모성이 강하므로써 몰탈면을 보호하여 준다.

(4) 강한 내마모성의 표면을 형성하여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생기는 풍화작용을 억제해 줌으로써 마치 수지가공의 상태를 만든다.

(5) 일반 페인트와는 달리 침투성 피막이 형성되므로 표면이 벗겨지는 일이 거의 없으며 방수 특징을 겸하고 있다.

(6)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유성이므로 콘크리트 표면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CHEMICAL RESISTANCE

CONCRETE Concentrated Acid FLOOR STAIN	
H_2SO_4	OK
CH_3COOH	Slight blistering
HCl	Discoloration
HNO_3	Slight blistering & discoloration
Dilute Acid (10%)	
H_2SO_4	OK
CH_3COOH	Spotted
HCl	Slight Darkening
HNO_3	Discoloration

CONCRETE Concentrated Alkali FLOOR STAIN	
NaOH	OK
KOH	OK
Dilute Alkali (10%)	
NaOH	OK
KOH	OK
Oils & Fats	
Peanunt Oil	OK
Vegetable Oil	OK
Mineral Oil	Very Slight Spotting
Butter	OK
Motor Oil	OK
OK-film unaffected	

(7) 표면에 은은한 광택이 나게 해주며 미끄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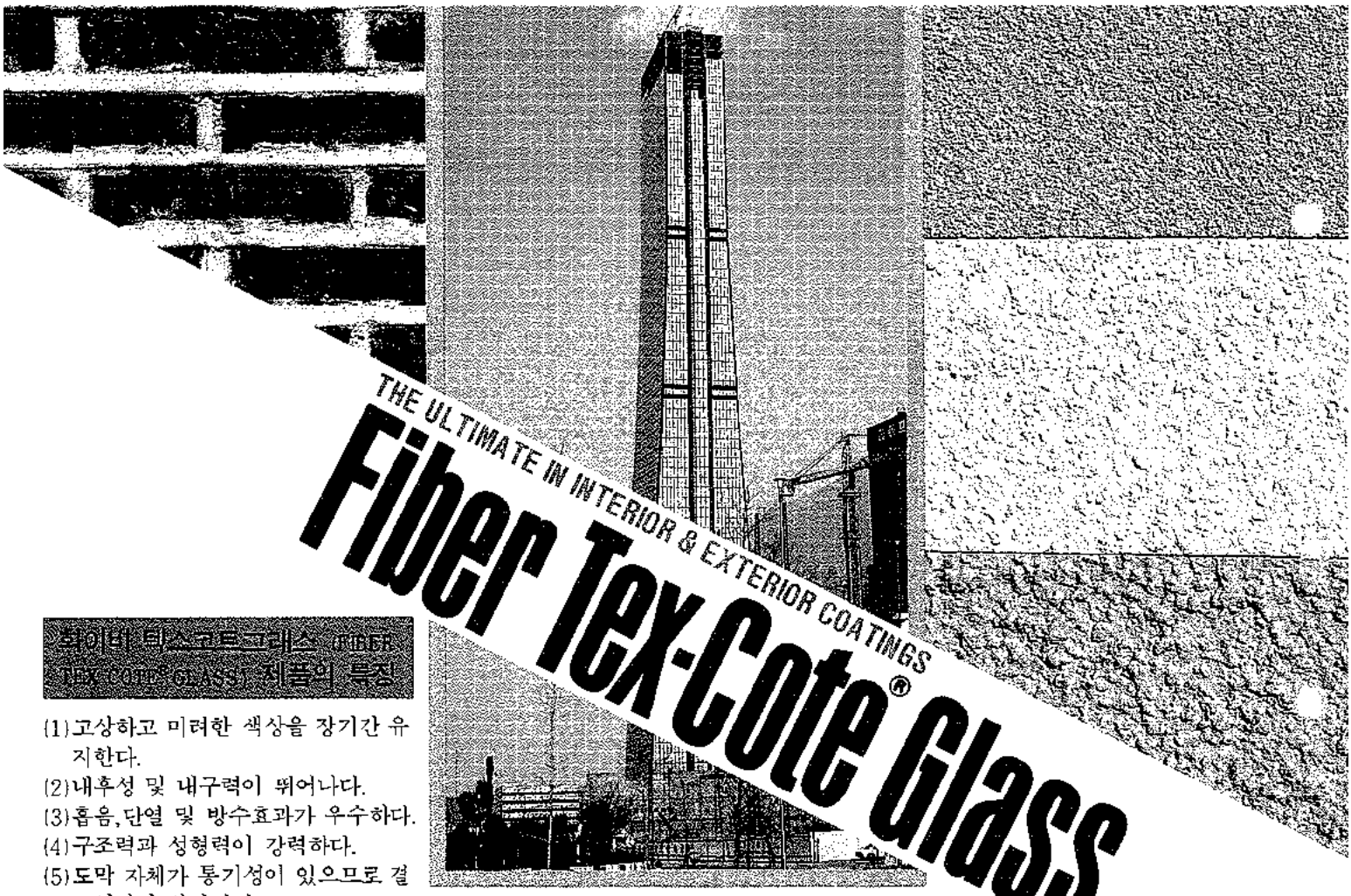
(8) 전기전열성(Electrical Insulating Properties)이 양호하다.

(9) 색은 어느 색이나 가능함.

2. 사용추천용도(RECOMMENDED SURFACES)

(1) 공장(PLANT FLOOR)
(2) 창고(WAREHOUSE)
(3) 주차장(PARKING LOTS)
(4) 강당(AUDITORIUM FLOOR)
(5) 교실(SCHOOL ROOM FLOOR, GROUND)
(6) 병영막사 등 콘크리트 몰탈면 기타

株式會社 韓國텍스코트
(美國 Textured Coatings of America, Inc. 기술제휴) 본사 : 783-8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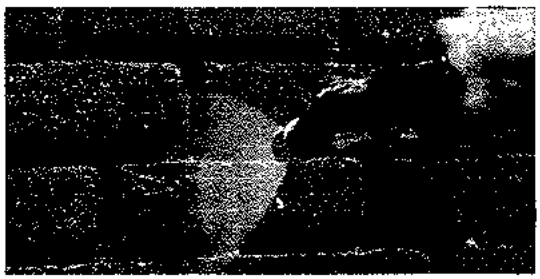
화이버 텍스코트그래스 (FIBER TEX COTE® GLASS) 제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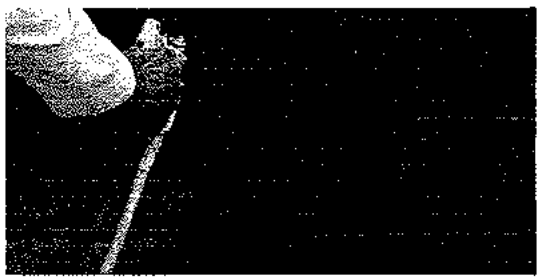
(1)고상하고 미려한 색상을 장기간 유지한다.
(2)내후성 및 내구력이 뛰어나다.
(3)흡음,단열 및 방수효과가 우수하다.
(4)구조력과 성형력이 강력하다.
(5)도막 자체가 통기성이 있으므로 결로현상이 방지된다.
(6)내산,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7)완전한 내화성으로서 방화벽의 역활은 물론 무공해성 제품이다.
(8)곰팡이나 부패현상이 방지되므로 건축물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다.
(9)질감이 다양하며 무광이다.
(10)건조후 도막 신축성이 우수하다.
(11)시공절차가 간편하다.

레인스토파 (RAINSTOPPER) 의 특징

(1)벽면의 수분침투 방지.
(2)건조후에 표면이 투명하고 얼룩지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보이게 함.
(3)시공표면의 산화, 백화 및 풍화현상을 방지.
(4)오물접착 및 모세관 침투현상 방지.
(5)페인트 도장면에 시공시 페인트의 수명을 연장.
(6)목재부분의 수분 침투에 의한 손상 방지.
(7)시공에 기후조건이 없으며 산·알칼리 및 해수(海水)에 강하므로 결국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줌.
(8)표면내부에 침투하므로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지 않음.
(9)내후성이 우수하며 자외선에 강함.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그리고
권하고싶습니다





주요 생산제품 안내

●텍스－코트 600®
강한 접착력과 유연성을 지닌 속건성 수성제품. 합판이나 시멘트판 및 벨시스템용으로 사용.

●레인스토파™ 스테인
페인트 도장과 다른, 위의 레인스토파－크리어 제품에 침투성 색이 첨가된 제품.
석공(MASONRY),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건축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스타코.

●텍스 타이트
석공표면, 합판(WOOD), 수영장(POOL), 콘크리트 블럭, 지하실 내벽用 강력방수액

●TCA CONCRETE FLOOR STAIN FLOOR, WALKWAYS, PATIO, DECK등 내마모성 침투성 바닥제.

●BLACK TOPPER —
아스팔트 주차장용 상도코팅제

株式會社 韓國텍스코트
(美国 T. C. A. 社 技術提携)
事務室：서울特別市永登浦区汝矣島洞13－31
(韓国機械工業振興会館 5 層)
電　話：783－8141～3
私書函：汝矣島 P. O. BOX 302
TELEX：K22064 KOTONCO